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지비 광명 찬덕 만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만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10월 5일(음력 9월 3일) 수요일 (주간) 제 546 호

기획연재 – 조계종 총무원장 어떤 자리?

한국 종교계의 '얼굴'

조계종에 선거바람이 불고 있다. 제32대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가 10월 31일로 공고되자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열기가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계 안팎에서는 도대체 조계종 총무원장은 어떤 자리인가? 라는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한국 대표종교의 대표종단 조계종. 조계종의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은 실질적이든 상징적이든 적지 않은 위상을 갖는 자리다. 네 차례에 걸쳐 조계종 총무원장은 어떤 자리인지 조명해 본다.

연재순서
1. 위상과 권한
2. 어떻게 선출하나
3. 인물로 본 총무원장 上
4. 인물로 본 총무원장 下



인사·재산권 쥔 '조계종 대통령'
'이판사판' 자질 두루 갖춰야

최근 원적에 든 인곡당 법장 대종사가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측은 법장 스님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나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러자 미국 정부측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조계종 총무원장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 왔다.

조계종 총무원장의 위상을 파악한 뒤 그에 걸맞은 대접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은 "(조계종 총무원장이 부르면)대통령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오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결국 법장 스님은 미국 방문시 엘리어트 에이브럼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보좌관과 디트러니 북핵 대사 등과 연쇄적으로 회동하면서 부시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조계종이라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의 행정수반이다. 일반 사회로 비쳐보면 '조계종 대통령'에 해당한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주요 종단들의 모임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당연직 회장을 맡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불교계를 대표할 뿐 아니라 종교계를 대표하기도 한다. 법장 스님이 한국종교를 대표하는 7개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직을 맡았던 것도 이에 기인한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청와대에 초청돼 가면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으며 대통령 옆 좌석에 앉기도 한다.

이 같은 위상 때문에 장관 등 주요한 위치에 오르면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해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또 정치권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해 법문을 듣기도 한다. 이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이 상징적인 비유를 섞어 이야기를 하면, 서로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위상이 높아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94년 종단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한 총무원장은 당시 문공부 주사를 만나기 위해 1시간 이상 기다리기도 했을 정도였다. 사회정치권에 대한 총무원장의 저자세에 대해 '호(護)정권불교'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94년 종단 개혁 후 자주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종단 위상이 높아졌고 따라서 총무원장 권한 및 위상이 높아졌다.

70년대만 하더라도 권한은 종정에게 집중돼 있었다. 62년 통합종단이 출범하면서 종정은 비구측, 총무원장은 대처측으로 나눠졌다. 그러나 60년대 말 비구로 종단 정체성을 확립하며 종정측에 힘이 쏠렸다. 종정은 인사와 재정에 관한 전권을 가진 반면 총무원장은 종정 보좌에 불과했다. 67년 종정 청담 스님과 총무원장 경산 스님간 대립도 이때문에 발생했다. 66년 통합종단 2대 종정으로 추대된 청담 스님은 종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려 했고, 총무원장 경산 스님은 종정이 지나치게 실무를 장악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78년에도 종정측의 조계사와 총무원장 중심제로 종헌을 개정하려는 종회측의 개운사 2곳의 총무원으로 분열하는 극도의 혼란상을 3년간 지속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총무원장이 사회법상 종단의 대표성을 갖게 된다.

일반 사회의 헌법에 해당하는 종헌 제54조 1항에 따르면 '총무원장은 본종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한다.' 총무원장은 국회에 해당하는 중앙종회에 종헌 종법 개정안, 종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종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사회법상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종령을 발할 수도 있다. 총무원장은 중요한 종책을 심의 의결하는 종무회의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총무원장은 총무원 임직원과 각 사찰 주지를 임면한다. 또 종단과 사찰에 속한 재산을 감독하며 처분 승인권을 갖는다. 총무원장은 당연직으로 조계사를 비롯한 직영사찰 주지, 중앙승가대 이사장,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등을 맡는다. 교육원장 포교원장도 총무원장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선출된다.

이처럼 총무원장은 많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94년 종단 개혁으로 삼권분립 및 총무원장 주요 보직 겸직 금지 등을 이뤄냈지만 그 권한은 여전히 막강해, 각종 오해와 추문에 시달리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쟁의 한가운데에 서기도 한다. 이로 인해 종단 대사회적 이미지가 흐려지기도 한다.

이 같은 폐단 때문에 총무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교구본사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구본사 또한 이미 몸집이 비대해져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의 이상형은 수행자로서의 위의와 행정수반으로서의 역량 즉 '이판사판'의 자질을 두루 갖춘 덕망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행정정치라는 현실과 한국불교 대표종단의 수장이라는 '명함' 사이에서 가장 고독한 존재이기도 하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
'한국불교 계맥의 자주적 전승'
법주 : 지관 스님(10월 8일 오후 3시)

"공정 청정 선거를"
출·재가 단체 감시기구 구성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출재가 모임이 공식적으로 구성된다.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창립준비위원장 금강, 이하 청정선거운동본부)는 9월 26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발기인 모임을 열고 10월 7일 창립법회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발기인 모임에서는 또 창립준비위 산하에 서명홍보사업팀, 교육정책사업팀, 선거감시단 구성준비팀, 사무회계팀을 두기로 했으며, 발기인 스님들은 공정한 활동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를 비롯한 불교계 28개 단체들도 10월 5일 가칭 '청정선거문화정착 운동본부'(이하 청정선거정착운동본부)를 발족한다.

청정선거정착 운동본부는 앞으로 △청정선거 실현의 원칙 및 실천방안 제시 △청정선거 실천서약서 작성 △후보자 합동 종책토론회 개최 △부정선거 감시 및 신고창구 개설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무원의 엄정 중립 촉구 및 감시 △선관위 재정지출 내역공개 △청정선거를 위한 문화행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11일 '동국대 이사추천' 논의

조계종 제168회 임시중앙종회가 10월 1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장적 스님을 비롯한 33명의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9월 27일 중앙종회 사무처에 '동국학원 이사 영배 스님 임기만료에 따른 종립학교관리위원회 복수후보 추천 동의를 위한 임시종회 소집'을 요구하는 문서를 접수했다.

남동우 기자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
'아제아제 바라아제 -사리불'
미산스님
10월 5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종단 화합·발전 '새 회의장'에서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 마련된 조계종 중앙종회 본회의장이 첫 선을 보였다. 9월 26일 제167회 임시종회가 열린 본회의장(국제회의장) 천장에는 조계종을 상징하는 삼보륜이, 연단 중앙에는 부처님이 봉안돼 있다. 그 아래로 중앙종회의장과 부의장, 총무원장, 호계원장 자리가 마련됐으며, 법랍과 선수(選數) 순으로 81명의 중앙종회의원 좌석이 배치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할'



그림·조태호

각묵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봉행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회주 성암 종범 스님 추대식


회주 종범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회주 성암 종범 스님 추대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 하오니 사부대중께서는 무루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은사 회주 추대 공동 위원장 원혜 · 정념 합장

■고문 명진 범산

■지도위원
만화 법진 석담 성문 성천 수안 수일 자견 자운 지운 진협 혜욱 혜정 효원 수완 영진 원표 인묵 정각 허주 혜관 혜인 효종 각해 견조 경선 경욱 광후 금주 능인 대원 덕현 도명 도웅 동숙 동은 명주 명준 명진 묘정 무진 무상 명궁 송강 해관 계호 경륜 원정 법경 법륜 법률 법매 법연 법정 법조 법천 법환 보명 삼오 삼휴 상덕 상률 상호 선휴 성문 성오 성혜 수원 의선 일운 일화 정수 정안 정암 정오 정우 정운 정준 종실 종인 종일 지광 지선 지윤 지홍 진성 진옥 철호 청견 탁연 태운 해용 행덕 현각 현기 현수 현우 현원 현주 현찬 혜광 혜근 혜덕 혜묵 혜연 혜운 혜주 혜철 효광 원천 법광 종삼 금타 도수 동현 명훈 법주 보원 상효 성지 수은 원조 원천 은주 의성 일선 일장 장진 정담 정안 정연 정운 정화 종서 종운 종주 지성 지운 철은 해만 현장 혜도 혜진 (1기~4기 일동) 원행 도완 월우 도각 정광 도정 현공 초격

■공동 추대위원장 원혜 정념

■추대 위원
경진 원천 수봉 자용 원소 정민 원장 현수 정인 초우 묘근 보화 정주 성곡 일지 공운 수봉 성보 성관 정미 정민 원장 현수 일광 초우 정암 묘근 각원 창욱 부광 활중 선용 혜철 혜각 승우 종호 금강 태범 각문 각우 덕관 묘현 지일 인성 상원 효성 성묵 반공 성각 각연 묘장 종현 현재 성일 원묵 여준 도전 수영 법운 수현 도봉 보규 선민 혜능(5기~23기 일동)
봉은사 견진 지월 선업 정일 성도 정안 명선 관철 명관 성인 정혜 청우 휜일 지원
봉은사 신도회 정창현 안승기 전봉수 나정호 유정상 최재동 황남수 하용이 한기신 김성대 김금자 민병련 홍숙자 김계숙 이옥성 조윤주 박순옥 고미화 은혜선 이진화 임동희 양을순 이명숙 신은수 강순례 김희동 안혜숙 김용옥 허승옥 권미옥 김계선 이현숙 박정숙 노우림 이미애 전경자 김복아 최은숙 이차숙 김성희 염응길 조성혜 김동례 윤용화 정현주 서명숙 이명주 강주희 정영숙 오춘자 이혜화 유덕숙 양명순 김복희 양정심 손영희 김덕자 김경화 손경자 박미자 강옥선 전영희 진영자 김매자 정상미 김금당 정미림 윤용화 이순주 정정남 홍진숙 류오숙 박월순 김상인 김영례 김기옥 김양오 이효자 이정림 윤정순 윤금순 김 완 김철현 김전량 허동중 김효태 고춘화 최현숙 홍성기 이동호 이원일 김기영 한규선 문병석 오왕근 박희재 봉은사 종무원 일동

●일 시 : 불기 2549년 10월 5일 (음 9월 3일) 오전 10시 ●장 소 : 봉은사 대웅전 앞 ●문의 : 02)511-6070
※ 참석하시는 스님께서는 가사장삼을 수하시기 바랍니다. (객비는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추대" 주장 속 행보는 따로

물살타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추대위 발족 · 간담회 · 월서스님 출사표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추대 준비위원회가 공식 발족되는 등 총무원장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20명의 교구본사 주지스님(대리참석 3명 포함)과 중앙종회의원 31명, 비구니 스님 6명, 선원장 2명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30일 대구 동화사 무설전에서 '32대 총무원장 추대 준비위원회 발족대법회'가 봉행됐다.

법회에서는 교구본사주지 8명, 중앙종회의원 7명 등 총 15명으로 총무원장 추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동안 총무원장 후보자를 추천받기로 했다. 상임위가 추천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1주일 내 다시 1명을 추천하면, 추대위에서 이를 최종 인준한다. 선거로 돌입할 경우 추대위는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법회에서는 또 '제32대 총무원장은 합의 추대해야 합니다'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법적인 선거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종단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선거인단 전원이 참여하는 '공명선거 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에서는 또 "제32대 총무원장 추대는 종단안정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돼야 한다"며 ▲'원융종단'의 확고한 기틀 확립 ▲중앙과 교구본사로의 조화로운 권한 이행 ▲승려노후복지문제, 불교관련 국가법령체계정비 등 교육과 포교 복지 등 시급한 종책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28일 서울 타워호텔에서는 은해사 주지 법타, 대흥사 주지 몽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등 3명의 발기인을 포함한 14개(대리참석 2개 포함)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후 정념 스님은 "지난 20일 대전 유성에서의 총무원장 합의추대 서약은 특정한 계파에서 일부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뒤 "10월 6~7일 경 교구본사주지연합회 회의를 개최해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또 '교구자치제 실현' 등의 차기 총무원장상의 원칙을 제시하며 "이에 합당한 후보를 총무원장으로 추대하는데 적극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는 문건이 나왔다.

한편 월서 스님은 29일 정릉 봉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화 1세대'로서 "우리 종단은 그간 끊임없이 정화와 개혁을 외쳐 왔건만 과연 만족할 결과를 창출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더 이상 종단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소명의식 때문에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서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향후 종단운영 기조가 될 '4대 종단 운영안'과 종단운영 세부 종책 및 혁신안이 될 '8대 의제안'을 제시한 뒤 "누가 후보로 나오더라도 끝까지 경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는 29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금번 총무원장 선거는 우리 종단이 국민적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선거가 청정과 화합의 전통이 진작되는 진면목을 보이며, 종단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떠한 비불교적 선거행위도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남동우 · 배지선 기자



군종교구본사 주지 일면 스님(오른쪽)이 부주지 계성 스님과 '전법선언'을 하고 있다.

"내실 관리 · 타종교와 교류"

군종특별교구 주지 일면 · 부주지 계성 스님 취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군종교구장 진산식(취임법회)가 9월 28일 오후 2시 국방부 국방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진산식에서는 초대군종특별교구 주지에 일면 스님이, 부주지에 계성 스님이 취임했다.

진산식은 '군포교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영상물을 상영하는 것으로 시작해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의 직인과 군종기 인계, 선임 군승인 육군교육사령부 자운사 주지 김말환 법사의 축하화한 전달, 지관 스님의 법어 등으로 이어졌다.

이어 일면 스님과 계성 스님이 전체 군승과 함께 사부대중 앞에서 <불본행집경>의 '전도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치사를 통해 "군포교를 위해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과 방법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불사를 위해 내실 있는 관리를 하고 타종교와도 원활한 교류를 이끌어 내 보다 조직적 · 효과적인 교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지관, 교육원장 정화, 포교원장 도영,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등 11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은비 기자

영축총림 방장추대무산

제167회 임시종회 "요건 미비"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추대의 건이 중앙종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또 동국학원 이사 선임 연기 촉구가 결의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9월 26일 제167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했다.

본회의장(국제회의장)에서 처음 열린 이번 임시종회에서 통도사 방장 추대와 관련 "법률적 요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류하고, 관련 서류는 종회사무처에 접수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동대 이사 선출에 대해서는 임시종회 하루 전 후보자 1명이 사퇴했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다만 찬성 31 반대 7명으로 중앙종회에서 동의할 때까지 이사 선임을 연기하도록 촉구 결의했다.

임시종회에서는 법계위원에 보성지관 고산 인환 혜정 월주 종진 설정 고우 스님을 위촉하는데 동의했다. 또 재심호계위원에 세민 스님(前 합천 해인사 주지)을 선출했다. 종헌개정 및 종법 제 · 개정의 건과 관련, 종헌종법특위에서 각각의 안건에 대해 단일안을 만들 뿐 아니라 제 ·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교육분야 종회의원 법진 스님 선출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9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의원 직능직 교육보궐에 법진 스님(중앙종회 사무처장 · 사진)을 선출했다.

남동우 기자

승가단체 '화합승가포럼' 발족

조계종 35명 스님 "선거와 무관"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적극적 현실 참여를 모토로 한 승가단체가 발족돼 행보 및 영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랍 20여년 안팎의 스님 20여명은 9월 23일 조계사 인근에서 모임을 열고 '화합승가포럼'을 발족했다. 화합승가포럼은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포교 및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10명의 준비위원을 포함해 3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5월부터 준비해왔다.

화합승가포럼 한 관계자는 "총무원장 선거 등 종단 현안을 비롯해 각종 종책에 대해 문중과 계파와 관계없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포럼을 발족했다"고 설명한 뒤 "10월 12일 '바람직한 총무원장상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첫 포럼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 "포럼 구성원 개인 자격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순 있어도 포럼 차원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남동우 기자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첫 삽'

"한국불교의 새역사를 창조합시다." 태고종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착공식 및 건립불사 원만성취 기원법회가 9월 29일 서울 사간동 법륜사 불사현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원로회의 의장 일우, 총무원장 운산, 승정원장 난파, 사정원장 법장, 종회의장 인공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글 · 사진=강유신 기자

조계종 3급 승가고시 7일부터 범어사서

조계종 교육원(원장 정화)과 고시위원회(위원장 법산)는 제5회 3급 승가고시 및 고시산림을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 13일까지 6박 7일간 부산 범어사에서 개최한다.

승랍 10년차 이상 비구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3급 승가고시는 지난해와 달리 1차 논술고시와 2차 승가고시산림 성적을 평가해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한 스님에게만 합격증을 교부한다. 3급 승가고시는 2년 전부터 시험과목과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됐다. (02)2011-1801

조용수 기자

'조계종' 이름 지키기 구슬땀

'업무표장' 등록 거절…대법원에 상고

'○○불교조계종' '△△불교조계종' '□□불교조계종'

조계종이 이른바 유사조계종을 방지할 수 있는 '업무표장' 등록이 안 돼 애를 태우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해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 상표 · 서비스표, '대한불교조계종'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했다. 그러나 공익상 특정 종파에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조계종' 업무표장을 거절당해왔다.

조계종은 2002년 12월 특허를 출원을 거절당하자 2004년 6월 특허심판원에 특허청의 거절결정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2월 기각당했다. 2005년 2월에는 특허법원에 거절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7월 다시 기각됐다.

이 같은 결정과 관련 조계종은 "국내외 각종 언론매체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브리태니커 사전 등 각종 사전을 참조해도 '조계종'이란 대한불교조계종단과 동일하게 설명되고 있음에도 유독 법원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조계종 명칭을 사용하는 여타 종단의 규모가 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계종은 '조계종의 정통성에 편승하는 단체들 때문에 등록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지난 8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남동우 기자

종단내 절차 안 거치고 사회법 제소 '징계' 해당

종단 내의 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가 종단의 자율성을 해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신수길)는 지난 9월 14일 前 부산 선암사 주지 정야 스님이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에 대해 "징계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지해임처분은 결국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종립 동국대학교 법인임원진은 종헌종법을 준수하라!!!

조계종단에서 파견한 종립 동국대학교 법인임원진이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10월6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를 선임하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며 종립학교를 종단과 분리시키려는 음모에 다름 아닙니다. 특히 이는 9월26일 조계종중앙종회에서 결의한 이사선임 연기요청 마저 무시한 처사로 중대한 종단의 위계질서 파괴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26일 하루만에 폐회된 제167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후보 추천동의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후보의 사퇴서를 현 동국대학교 이사인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이 종회 개회 직전에 종회사무처에 제출함으로써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10일 회의를 갖고 오는 11월12일자로 이사임기가 만료되는 현 이사 후임으로 두분의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후보이사 선출과정에는 현 이사 한분도 출마했으나 표대결에서 밀려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종립학교관리법 제7조 제4호 · 제12조 3 · 4항에 의해 이사 · 감사를 종단 산하 교육기관에 추천해야 하며, 종립학교 법인이사회는 종관위가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후보를 이사 · 감사에 선임해야 합니다.

제167회 임시종회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결원이 된 1인의 이사후보를 종관위에서 재추천해 종회에서 동의절차를 밟을 때까지 이사를 선임해서는 안된다"는 결의를 참석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채택했습니다.

제167회 임시종회의 결의에 따라 종회의원 스님들은 9월 27일자로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 임시중앙종회 소집을 요구했고, 종헌종법에 따라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10월7일, 제168회 임시중앙종회는 10월10일로 확정됐습니다. 종단에서 파견한 종립 동국대학교 이사회 임원진이 공심을 발휘한다면 1개월전에 교육부에 취임승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그동안의 관례로 보아 연기가 가능한 만큼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력이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법에도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2개월 안에 충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차기종회에서 이사후보 추천동의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종헌종법 ·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내년 1월12일 이전에 이사회를 소집해 후임이사를 선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립 동국대학교 이사회 임원진은 어찌된 영문인지 법과 관행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종회 대다수 의원들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종립 동국대학교 이사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종단에서 파견된 이사회 임원진은 종헌종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약 중앙종회의 결의와 종헌종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종단의 책임있는 자세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종립학교를 사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것과 다름 아님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종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이사회를 강행할 경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불기 2549(2005)년 9월 30일

종회의원 정휴 도후 장윤 종광 법보 혜승 향적 지만 진구 장적 선광 동광 원담 법경 도진 도문 무자
일문 의연 법광 보경 정문 현공 성직 종본 보원 장주 자승 성원 원경 정도 광조 덕문 (이상 무순)

"사리구 현등사 명문 지워버리면 그만인데도…"

유홍준 청장 발언에 교계 '발끈'

국감서 "항온항습 안되는 유물전시관" 폄하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에 대해 불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 청장은 9월 2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성보박물관을 '항온항습도 안 되는 유물전시관'으로 폄하하는가 하면, 삼성문화재단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소유권이 분명한 사찰출토문화재를 사찰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 청장은 "항온항습 시설이 잘 된 통도사성보박물관을 제외한 사찰박물관은 '유물전시관'에 불과하다"며 사찰박물관 시설의 취약성 때문에 반환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현등사 사리구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이 "사리구에 '현등사'라는 명문이 있어 소유가 분명한 만큼 삼성 측이 장물인 줄 모르고 구매했을 가능성은 적다"며 삼성문화재단의 장물취득 의혹을 제기하자 유 청장은 "'현등사'라는 명문을 지워버리면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소장처가 박물관이기 때문이며, 그나마 다행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성보박물관과 현등사 사리구에 대한 유 청장의 답변에 대해 불교계는 유 청장의 성보문화재에 대한 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반응이다.

조계종 문화국장 혜조 스님은 "자신들이 성보박물관을 지어놓고는 항온항습도 안 되는 유물전시관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며, 현등사 명문을 지워버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발언 또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니다"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또한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도굴범들의 스승인가! 길잡이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유 청장 발언의 취지를 따졌다. 중앙신도회는 논평에서 "천륜을 저버린 자들에 의해 조상의 무덤이 파헤쳐져 시신과 관이 호암미술관처럼 좋은 시설과 관리시스템에서 잘 보존돼 전시되고 있다면 지금처럼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부당하게 약탈된 문화재 반환을 추진하고 우리 문화재를 유지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첫 여성신도회장 체제 출범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의정씨 취임



조계종 중앙신도회 23대 회장에 현 회장권한대행인 김의정(64 · 사진)씨가 선출됐다.

김의정 회장은 9월 24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총 270명 중 16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신도회 3차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새 회장에 추대됐다.

김의정 회장은 당선인사말을 통해 "신도회가 어려운 조건에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회장직을 수행해 나가겠다"며 "대의원 여러분과 전국의 불자들께서도 열심히 도와 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임기 중에 반드시 신도회관을 마련할 것이며 신도회의 재정 자립 등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대의원 총회에 이어 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회향50년 정진50년'을 주제로 신도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대이은 불교사랑 화제

김의정 회장은 독실한 불교 집안 출신이다. 김 회장의 부모는 바로 쌍용그룹 창업자인 김성곤 회장과 명원 김미희 여사. 특히 김미희 여사는 전국 사찰의 크고 작은 불사에 동참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차 문화를 복원한 차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은 "부모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전국 사찰의 각종 불사에 동참하셨었다"며 "최근에야 여러 스님들로부터 부모님의 보시행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어머니는 신도회관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무척 아쉬워하셨다"며 "유업(遺業)이라 생각하고 꼭 신도회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은 김의정 회장의 친언니다.

유철주 기자

종단협 대표, 청계천 둘러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대표들은 9월 29일 2년 3개월의 복원공사를 끝내고 새 모습을 드러낸 서울 청계천을 둘러봤다.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등 40여 종단협 대표들은 이날 분수광장을 출발, 광통교 밑을 지나 삼일교까지 새 모습으로 단장한 청계천을 둘러봤다.

강유신 기자

정각사, 장애복지관 수탁

군포 정각사(주지 정엄)가 군포시청으로부터 군포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체로 선정됐다. 정각사는 9월 23일 군포시 복지단체 심사실무위원들로부터 위탁운영 신청을 한 3개 단체 중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 위탁운영체로 결정됐다. 복지관은 연면적 900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1999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유일원이 운영해왔다. 김강진 기자

난치병 어린이돕기 바자

3개 종교가 연합으로 난치병 어린이 돕기에 나선다. 서울 화계사(주지 성광)는 수유동 송암교회와 천주교 수유1동 교회 등과 함께 10월 8일 '제6회 난치병 어린이돕기 종교연합 바자회'를 개최한다. (02)902-2663 김강진 기자

포교원, 사이버법당 '108월드닷컴' 오픈

불보살상 꾸미고 공양 올릴수 있게 설계



언제 어디서든 사이버 세상에 접속하기만 하면 자신만의 3차원 불보살상을 꾸미고 공양물을 구매해 공양도 올릴 수 있는 가상공간이 인터넷 상에 마련됐다. 2년여의 작업 끝에 9월 27일 조계종 포교원이 개통한 '108월드닷컴(사진)'에서다.

'108월드닷컴'은 인터넷 상에서 예불과 공양을 올릴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된 신개념의 예불시스템이다. '108월드닷컴(www.108world.com)'으로 접속하면 자신만의 법당에 곧바로 입장할 수 있으며 타 가입회원의 사이버법당도 구경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상의 개인신행공간이 될 자신만의 법당은 싸이월드 미니홈피처럼 사용자의 취향대로 꾸미는 것이 가능하다. 부가기능으로 불교경전, 염불 등 각종 미디어 정보가 담긴 '마음 다스리기' 메뉴도 있다.

108월드운영센터 박혜윤 대표는 "게임을 즐기는 젊은 네티즌을 겨냥해 대웅전 배경에서부터 장엄구와 각종 공양물까지 일일이 선택하고 꾸밀 수 있도록 만들었고 '법당 구경가기'라는 기능을 통해 자신이 꾸민 법당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은비 기자

문화재기능인 대상 봉원기作 '관음보살 좌상'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회장 최기영)가 주최한 작품전 대상(문화관광부장관상)에 봉원기씨(목조각 1972호)의 '관음보살 좌상'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박인주(목공 1786호)씨의 '문갑'이, 우수상에는 김석만(석공 1805호)씨의 '보현보살상', 박정인(칠공 2766호)씨의 '연리지', 박갑용(도금 2781호)씨의 '삼세불회도'가 각각 수상했다. 특별상(조계종 총무원장상)은 노정용(석조각 1732호)씨의 '삼화령 미륵불'이 뽑혔다.

200여 출품작과 역대 우수작가 작품, 중요무형문화재 작품 등은 10월 12일까지 덕수궁 석조전에서 만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개원법회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개원기념법회'가 9월 27일 일산불교병원 5층 대강당에서 봉행됐다. 국내 최초로 초대형 양 · 한방협진 불교종합병원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린 이날 개원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고 스님, 동국대 이사장 현해 스님, 홍기삼 총장, 이석현 의무원장을 비롯해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 1000명이 참석했다. 글 · 사진=조용수 기자

내원암 토지 소유권 소송냈던 친일파 후손

봉선사 찾아가 공식 사과

내원암 일대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했던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들이 봉선사를 찾아 공식 사과했다.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은 "9월 27일 오후 소송을 제기했던 이모씨 부부가 주지 철안 스님께 공식 사과했다"고 9월 28일 밝혔다.

이모씨 부부는 봉선사 큰법당을 참배한뒤 철안 스님 등을 만나 "내원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소를 취하한 만큼 봉선사도 취하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철안 스님은 "소취하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찾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소송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봉선사와 내원암, 중앙신도회,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10월 6일 오후 6시 30분 조계사 앞마당에서 '친일청산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유철주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불신임 투표 해놓고

결과 공개 '미적미적' 왜?

사상초유의 총장불신임 투표를 벌인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회(회장 이시영, 이하 경주교수회)의 행보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경주교수회는 9월 27~29일 오후3시까지 경주캠퍼스 소속 평교수들을 대상으로 '현 홍기삼 총장의 직무수행이 적정한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경주교수회 소속교수는 370여명. 이 가운데 투표권이 없는 일부 교수들을 제외한 234명 가운데 165명(70.5%)이 참여해 매우 높은 투표참여율을 보였다.

그러나 경주교수회는 돌연 투표결과 공개를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주교수회는 투표결과를 놓고 이날 오후 3시간여의 격론을 벌인 끝에 투표결과 공개와 향후대응을 회장단에 일임하는 것으로 결론의 내렸다. 불신임투표 강행의 명분이 일방적인 부총장 선임과 교수연구업적 평가 강행 등으로 고조된 홍기삼 총장체제에 대한 불신임 성격이었다는 점에서, 투표결과 공개유보 결정에 대한 평교수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수회장 이시영 교수는 "학교가 어려운 때에 대학당국과 교수회 직원 등 구성원 모두의 화합을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평교수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상경대학의 한 교수는 "투표참여를 독려했던 교수회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불신임 투표는 왜 강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문대학의 또 다른 교수도 "학교측 모 인사로부터 평교수들에 대한 협박과 회유가 심했던 것으로 안다"며 "투표결과를 밝히지 않은 것은 투표에 참여한 165명의 교수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분개했다.

이러한 평교수들의 반응에 대해 이시영 교수는 "교수들이 집행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평교수들의 정서가 반영되지 못한 이번 교수회의 결정으로 동국대는 또다시 시끄러워 질 것으로 보인다. 조용수기자

공 고

종헌 제 52조, 제 53조 및 총무원장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32대 총무원장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제 32대 총무원장 선거일
불기2549(2005)년 10월 31일 월요일(음 9월 29일) 오후 1시 ~ 4시

2. 선거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 총무원장 입후보자 자격
승랍30년 이상, 연령50세 이상, 법계 2급 이상의 비구로써 총무원장선거법 제 9조 제 2항, 제 3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입후보자 등록기간
불기2549(2005)년 10월 21일(금)~10월 23일(일) 오전 9시 - 오후 5시

5. 입후보자 등록서류
1) 등록신청서 1부(선관위 양식)
2) 호적등본 1부(원적이 표시된 등본)
3) 이력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5매
5) 투 · 개표참관인 신고서 1부
6) 입후보자 신상명세 및 종책광고내용(일반신문 5단통 분량)

6. 입후보자 등록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7. 선 거 권 자 : 재임중인 중앙종회의원,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하는 10인(본사주지 포함)

8. 선거권자의 자격 : 구족계를 수지한 본종 재적승려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멸빈 ·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2)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호계원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4) 기타 종법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9. 선거인단 명부 열람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10. 문 의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 (02)2011-1867 / FAX (02)733-8286

※ 교구종회 선거인단 선출기간: 불기2549(2005)년 10월 16일(일) ~10월 20일(목)

불기2549(2005)년 9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도 공

‘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한국불교 세계화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은 ‘해외포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세계 유수의 국가에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는 해외포교. 불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원력을 세워볼만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그 일은 생각만큼 간단치 않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각종 지원과 인식 부족 등으로 ‘해외포교’는 40여 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승가교육 시스템 현대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와 관광객 포교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포교 인프라를 하나씩 구축해야 한다.

해외 포교거점 세워 한인 역량 결집을

● 글 싣는 순서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사명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뇌 그리고 희망
3. 일터불심, 신행과 포교의 틈 좁히기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11. 지식인, 포교 주체인가 대상인가?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13. 기자방담

해외 포교

▥ ‘개척포교’에 나서야

1964년 경보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미국 땅에 전하며 시작된 한국불교의 해외포교. 이후 40여 년, 한국불교는 숭산 · 도안 · 법안 스님 등 해외포교 1세대의 노력에 의해 세계 30여 개국에 150여 사찰을 건립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에만 1백여 사찰이 활동하며 ‘한국 절만 찾아가도 미국 일주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그러나 칭찬만 하기에는 여전히 2%가 부족하다. 40여 년이 지났지만 한국불교는 교포 중심의 포교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조계종 포교원이 실시한 해외포교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사찰의 84%가 이민자 대상 포교를 하고 있었다.

현지인 포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외국인 불자들은 한국불교를 중국이나 일본 불교의 아류라고 생각하고 있다. ‘간화선이 최상승의 수행법’이란 주장은 그들에게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삼우 스님(시카고 선련사 주지)은 “숭산 스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스님들이 ‘교포포교’의 울타리에 안주했다. 이제 현지인 대상의 ‘개척포교’에 나설 때”라고 꼬집었다. 지금부터라도 현지인 대상의 ‘개척포교’를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할 것이다.

▥ 강원 교과과정에 외국어 포함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무엇일까?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말처럼 해외포교를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해외포교의 약점도 여기에 있다. 문광부 조사에 따르면 2000년 불교의 해외포교 인력은 241명으로 개신교 9049명의 1/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원불교 307명에도 뒤지고 있다. 바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진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현지인 포교에 나서지 못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티베트불교가 세계인들에게 ‘불교=티베트’란 인상을 주며 발전하는 데는 적절한 교육시스템이 큰힘이 되었다. 티베트는 1959년 국권을 빼앗겼지만 인도에서 불교교육시스템을 그대로 재건해냈다. 여기에 외국어와 과학교육을 커리큘럼에 추가해 스님 교육시스템을 현대화했다.

한국불교는 어떤 교육시스템을 갖춰야 할까? 현실적으로 티베트처럼 18년간 불교공부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가장 먼저 외국어 과목을 정식 강원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무리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도 전달할 길이 막힌다면 그것은 해외포교를 위해 쓸모없는 것이 된다.

동시에 외국인들을 수용할 교육시스템도 필요하다. 티베트 게세 중네 스님은 “티베트불교가 서양사회에 알려진 이유 중 하나는 서양 지식인들의 욕구를 흡수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는 가장 성공적인 외국인포교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발우공양을 체험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9월 17일 구미 보현의집에서 열린 추석큰잔치 행사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흥겹게 춤을 추고 있다.

교포포교에 안주…현지인 개척포교 시급
인력자원 네트워크 구축 적재적소 배치를

▥ 한국불교 영문서적 30여종뿐

해외포교가 ‘포교의 불모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적지않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스님들과 해외포교에 원력을 세운 국제포교사들, 한국사찰에서 수행 중인 외국인 스님 등이 1차적인 인력자원일 것이다.

해외 사찰 거주 스님들과 국제포교사들을 네트워크화해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불교를 체험한 외국인들도 중요 포교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

불교 관련자료의 번역과 출판도 필수적이다. 2003년 포교원 조사에 따르면 해외포교사의 30%가 교재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불교 관련 영문서도 현재까지 30여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응철(중앙승가대) 교수는 “해외포교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불교자료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영문 등으로 번역된 경전, 한국불교 자료, 신도교육 자료 등이 다양하게 출판돼야 해외포교 역량을 배가할 수 있다.

▥ 해외교구 네트워크 구축

해외포교 주체들을 하나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종단을 대표하는 공식기구인 해외교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한 교육과 관리 그리고 해외파견 등의 체계가 성립돼야 한다. 지역별 한국사찰의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와 정보 공유의 중심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외교구는 종단과 해외 현지사찰간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축이 될 것이다.

뉴욕사원연합회장 휘광 스님(불광선원장)은 “종단이 뉴욕이나 LA 등 대도시에 포교거점을 세워 강력한 지원을 한다면, 해외 한인 인프라의 역량을 총집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수익 없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 · 포교에 인색
상담 · 교육 · 문화 · 의료사업과 연계해야

국내 외국인 포교

▥ 외국인노동자 포교는 계륵?

“외국인노동자 포교는 불교계에 ‘계륵’(鷄肋)과 같은 것입니다. 포교를 하긴 해야 하는데, 막상 이렇다 할 ‘수익’은 없고, 안하자니 주위의 비판은 계속되고….”

평소 활발한 포교활동으로 불교계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운 한 스님은 불교계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낙제 수준’이라고 잘라 말했다.

올해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6월 현재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모두 35만 5000여명. 대부분이 불교문화권인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불교국가 출신들이다.

어느 계층보다 쉽게 포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04년 6월 개소한 조계종의 외국인노동자상담지원센터는 개점휴업상태다. 올해 1월 ‘홀로’ 업무를 진행하던 담당 간사가 그만둔 이후 실무자도 없이 명패만 걸어놓고 있다. 서울 지역의 몇몇 사찰에서 진행하던 지원사업도 끊긴지 오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포교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개신교 80여개 단체와 가톨릭 50여개 단체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선교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안산 마하보디사 주지 와치사라 스님은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 불자가 개종하는 비율이 70%가 넘는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 온다”며 “이대로 간다면 ‘불교 형제’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 원력 세우면 반드시 효과 거둔다!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묵묵히 외국인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스님과 사찰 · 단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인 구미 마하부다 보현의집(대표 진오)은 ‘눈높이 포교’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대표적 사례. 스리랑카 스님 2명을 초빙해 직접 법회를 주관하게 하고 인근 지역으로 ‘출장 법회’를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노동자들이 모이고 있다. 또 상담,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사업 등을 벌이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내실있는 활동이 계속되다 보니 구미시도 연간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안산 보문선원(주지 보림)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 외국인전용 법당 ‘마하보디사’를 개원하기도 했던 보문선원은 특히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9월 30일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라디오방송도 개국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작은손길 아시아인권문화연대(대표 이란주)와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이사장 영담), 광주 한꽃외국인노동자 쉼터(대표 현장)와 동두천 자재암(주지 법해) 등도 한국불교문화체험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좀 더 쉽게 한국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현의집 대표 진오 스님은 “스님들이 원력을 세우고 관심만 갖는다면 재정문제 등은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다”며 “종단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산문을 개방하고 외국어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직은 열악한 외국인노동자 포교환경. 이제부터 마음을 열고 눈높이를 맞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유철주 기자

圓 韓國佛敎 如來宗 總務院長 月峯堂 法友 大僧正 寂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월봉당 법우 대승정께서 평택 용호사에서
2549년 9월 27일 (음, 8월 24일) 오후 9시 30분에 원적하셨기에 알려 드립니다.

※ 문상장소 : 평택 용호사 ☎ 031)691-6272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 12리 20-18
● 영결식 및 발인 : 10월 1일 (음, 8월 28일)
오전 7시 용호사

※ 다비식 장소 :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10월 1일 (음, 8월 28일) 오전 10시
☎ 043)731-2261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앞산)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2

한국불교 여래종 장례위원회 위원장 법룡

“온가족 손잡고 오세요”

부산 길상사 10월 9일 개원식, 주말 가족 신행 프로그램 풍성



가족들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부산 길상사가 10월 9일 개원한다.

토요 휴업일 시행과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 단위의 신행 프로그램을 알뜰하게 마련하고 개원하는 사찰이 있어 관심을 모은다.

10월 9일 개원식을 갖는 부산 길상사(주지 자인)는 가족의 건강과 신행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웰빙 수행 도량으로 가족이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자녀들을 위한 청소년 한문 학당, 청소년 다도 예절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도량의 문을 활짝 연다.

특히 길상사는 9일 개원법회와 함께 노인의 날을 기념하며 인근 독거노인들을 초청, 경로 잔치를 열고 100일간 가족을 위한 기도 정진도 입제한다. 100일간 봉행되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가족 간의 정을 나누며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된다.

주말에 부모와 함께 사찰을 찾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학업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봉화산 포행과 차를 마시며 주지 스님의 법문도 듣고 고민도 함께 풀어가는 다도 시간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밖에도 가족별로 가족에게 맞는 맞춤별 기도법과 수행법을 직접 지도해주며 가정의 위기를 불교적 가르침을 통해 극복하는 길을 터주는 노력을 이어가게 된다. 가족이 함께 하는 기도와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가족 신행의 장을 마련하게 될 길상사는 고향집처럼 푸근한 도량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포부다.

고향집 같은 넉넉한 공간과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웰빙 도량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길상사는 법당과 불상을 모두 옥으로 조성해 눈길을 끈다. 백옥으로 삼존불과 천불 등을 조성하고 홍옥, 황옥으로 수미단과 바닥을, 흑옥으로 신중탱화를 조성했으며 법당 바닥도 모두 옥으로 조성해 여느 사찰과 차별화된 불사를 마무리했다.

길상사 주지 자인 스님은 “길상사가 사람들에게 푸근한 휴식을 주는 마음의 고향이 되었으면 한다”며 “시골 고향집을 찾아가듯 부담 없이 찾아와 가족이 다함께 수행도 하고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 하겠다”고 말했다. (051)973-5224

맞춤기도 · 수행법 직접 지도
소규모 템플스테이도 마련

선망 조상과 가족을 위한 기도는 가족에 대한 참회기도, 가족 인연에 대한 감사의 기도, 가족에 대한 발원기도로 주제별로 진행되며 매 기도마다 법사를 초청, 주제에 맞는 법문을 듣는 시간도 갖는다.

매월 첫째, 셋째 주말에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두세 가족의 신청을 받아 템플스테이도 소규모로 진행한다. 사찰예절, 108배, 사찰 음식 만들기, 발우공양, 황토방 참선, 봉화산 포행, 다도, 백옥 찜질방 찜질 등의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명대사 뜻 기리는 축제 연다

밀양 표충사, 사명제전 10월 8~10일

학술 강연회 · 유물전시 등 다채

밀양 표충사(주지 청운)가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표충사에서 개최하는 사명제전은 나라와 민족의 위대한 스승인 사명대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국적인 문화 축제로 주목받고 있다.

표충사는 매년 춘계, 추계에 열어왔던 사명대사 향사를 올해는 전국 규모의 문화축제로 승화시켜 8일 입제식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행사를 펼친다.

특히 표충사는 이번 축제를 통해 밀양도예가협회, 밀양차인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심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밀양시 유림회와 함께 제524 추계 향사를 장엄하게 치르게 된다.

8일에는 사찰음식 시연회와 전통 다도 및 밀양 도예 시연회, 사명대사 일본 평화사절단 행렬 재연, 청소년 디지털카메라 콘테스트 등이 진행되며 9일에는 사명대사를 기리는 백일장 대회, 전국학생웅변대회, 사명대사 학술강연대회, 표충사 산사음악제가 열리고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가 일본군 적장과 화의를 담판 짓는 모습을 재현한 영상물을 상영한다.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밀양 작약산 영산재와 밀양유림회와 함께 하는 추계 향사에 이어 시상식을 갖고 회향된다.

표충사 주지 청운 스님은 “승병을 훈련시켰던 표충사에서 열리는 사명제전은 호국불교의 이념을 되살리고 사람들에게 사명대사의 위대함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5)352-1150

한편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는 9월 29일 초읍 어린이대공원 사명대사 동상 앞에서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사명대사 열반 제 395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천미희 기자

대흥사 미륵마애불 ‘국보승격’



보물 제48호 ‘대흥사 북미륵암마애여래좌상(사진)’이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최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을 국보 제308호로 지정했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마애여래좌상은 공양천인상이 표현된 독특한 도상에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는 여래좌상이다. 높이만 485cm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조각이 유려해 뛰어난 상으로 평가된다. 천인상 조각은 고려전반기의 유일한 예로 평가되고 있다.

박익순 기자

대한법화 성파 종정 추대식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혜륜)은 9월 28일 고성 안정사에서 제 9대 종정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제 9대 종정 성파 스님을 비롯 5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제 1부 식전행사로 사단법인 대한전통 불교문화예술원 김진하 원장 외 문하생의 영산재가 펼쳐졌으며 2부 행사로 법회가 열렸다.

이날 법회에서 제 9대 종정 성파 스님은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끊어 없애면 억겁의 죄업이 한순간에 스러지는 것이니 모든 종도들은 스스로 망념을 단속하여 부동심을 이루기 위한 정진에 힘써야 한다”고 법문했다.

대한불교법화종은 이날 달마선원 청광 김용대 화백의 시화전과 국악 공연 등 문화행사를 열어 제 9대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취임을 축하했다. 천미희 기자

영천 은해사 개산대제 봉행

미타도량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가 10월 8일부터 9일까지 개산 1196돌을 맞는 개산대제를 거행한다.

10월 8일 오후 3시 개산조 혜철 국사와 역대조사의 다례제로 시작되는 은해사 개산대제는 9일 오전에 헌공, 사시예불, 지장보살 점안식이 봉행되고 오후에는 전계사 혜인 스님, 교수사 지안 스님, 갈마사 혜국 스님을 3사로 모시는 보살계 수계식이 거행된다.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는 만등불사 점등식을 갖는다.(054)335-3318

배지선 기자

두송복지관, 봉사사례 발표

두송종합복지관(관장 지현)은 10월 5일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과 올바른 자녀교육’이라는 특강과 자원봉사활동 사례 발표회를 갖는다.

두송복지관 개원 10주년을 기념하며 5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이 초청 강사로 특강을 연다.(051)264-9471

천미희 기자

비상대책위 통해 해결키로

‘통도사 젊은 승가회’ 9일간 단식 회향

‘통도사 젊은승가회’ 소속 스님들이 9월 28일 9일간의 단식을 회향했다.

9월 20일부터 현문 스님의 통도사 주지 직무대행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던 ‘통도사 젊은승가회’ 소속 스님 3명은 28일, 현문 스님을 면담한 자리에서 ‘동안거 전까지 주지직무대행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단식을 회향했다.

이날 젊은승가회 소속 스님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문 스님은 “영축 총림 정상화를 위하여 전 문도를 초월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빠른 시일안에 구성하고 차기 주지 직무대행을 선출해 통도사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동안거 결제전에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통도사 젊은승가회’ 스님들은 28일 ‘9일간의 단식 정진을 회향하며’라는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의 참회정진과 단식 정진 일체를 회향하고 본분사로 돌아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통도사는 10월 4일 구하문도회를 개최한 이후 문중을 초월한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차기 주지직무대행을 선출한 뒤 늦어도 동안거 전에는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게 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부석사 화엄축제 개최

10월 8~10일, 탁본체험 등

제3회 부석사 화엄축제가 10월 8~10일 3일 동안 경북 영주 부석사에서 열린다.

8일 오전 10시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조사 헌다례를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부석사 화엄축제는 화엄경판을 머리에 이고 법계도를 도는 의상 화엄대재를 비롯해 학술대회, 화엄음악회, 불교공연예술제,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마련돼 있다.

또, 경내 곳곳에서는 범종, 도륜 스님의 부석사 사진 작품전과 시와 부석사 풍경전 등이 개최되고, 탁본체험과 경북전문대학 한국전통콘텐츠센터에서 제작한 부석사 3D영상물 체험 등 다양한 참여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연계행사로 부석면에서 부석골 사과 축제도 열릴 예정이다.(054)633-3464

배지선 기자

목판인쇄과정 · 이운행렬 재현

해인사 팔만대장경 축제 10월 7~10일

2005 팔만대장경축제가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합천읍 황강 체육공원과 해인사에서 열린다.

올해로 5돌을 맞는 팔만대장경 축제는 목판인쇄의 전 과정을 한자리에서 감상 체험할 수 있는 목판인쇄문화축제로, 10월 7일 오후 7시 황강체육공원에서 개막식과 기념공연이 펼쳐지고, 7일과 8일 오후에는 고령개포와 해인사 일원에서 조선 태조 때(1398년) 강화도 선원사에서 서울 지천사, 고령 개경포를 거쳐 해인사로 팔만대장경을 이운하는 행렬을 재현하는 등 4일간 다채로운 목판인쇄문화체험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해인사 스님 100여명을 비롯해 1000여명의 대중이 동참하는 팔만대장경 이운행렬은 참가자를 공모해 일반인의 참가도 가능하다. 또, 10월 9일 오후 7시 30분부터 황강체육공원의 유등대에서 열리는 유등제는 강물에 등을 띄울 수 있도록 강 가운데 다리를 놓아 강으로 걸어들어 가는 듯한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할 계획이다. 그 외 원목가공 및 목판 성형, 목판 · 목각 전시, 장승 및 솟대 제작 시연 및 체험 등 목판인쇄 관련한 각종 전시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055)931-8133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해인사 인도네시아 포교원 ‘한국불교문화와 교육’ 행사

해인사 인도네시아 포교원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엑스포 전시관에서 인도네시아 불교협회장 왈루비, 인도네시아 CCM 그룹 회장 부르다 씨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한국불교문화와 교육’ 주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 기간 중 한국전통한복 20점, 한국사찰음식 전시 및 시식, 서예 및 사군자 70점, 한국승복, 현다의식 및 다도 시현, 찬불가 공연, 불교용품 전시 판매, 연등 만들기 등이 선보였다.

남동우 기자

성철스님 열반 12주기 추모 세미나

근현대 한국불교의 전통 인식과 성철스님의 선사상

성철스님은 일제 시대 초기에 이 땅에 태어나시어
한국전쟁과 70, 80년대를 겪는 등 격동의 시대를 살다 가셨습니다.
스님의 사상 역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근현대 한국 불교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님의 저작을 중심으로 스님의 사상을
근현대 한국불교의 전통 인식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대표 저술에 나타난 선 사상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면면히 흐르는 한국 불교의 전통성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일 시 · 2005년 10월 12일(수)
■장 소 · 부산 중구 중앙동 고심정사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주 관 · 고심정사 불교대학
■후 원 · 문화관광부

진행 순서
10:00 등록
10:10 개회식
10:30 제1발표 김영욱(가산불교문화연구원) “『본지풍광』 역주 : 그 틀과 방향에 대한 시론”
11:10 제1논평 및 토론
11:40 점심 공양
13:10 제2발표 서명원(서강대 교수) “『선문정로』의 전통 인식”
13:50 제2논평 및 토론
14:20 제3발표 서재영(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백일법문』의 전통 인식”
15:00 제3논평 및 토론
15:30 휴식
15:50 제4발표 석길암(한국불교연구원) “성철 돈오돈수의 전통 인식 : 화엄 및 통불교론과 관련하여”
16:30 제4논평 및 토론
17:00 종합토론
18:00 폐회

문의 : 성철선사상연구원(www.songchol.net). 02) 2198-5372, academy@songchol.net

성철대종사 열반 12주기 추모 칠일칠야 참회법회 /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철 대종사 열반 12주기를 맞이하여 칠일칠야 팔만사천배 참회법회를 갖습니다.

성철 큰스님께서는 “불교의 자비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푸는 것이니, 남을 위해,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 참회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스님 가신지 12년이 되었지만 생전의 그 큰 가르침은 세월이 더할수록 어두운 눈을 조금씩 닦아가려는 저희들에게는 크나큰 위안이요 복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에서는 올해도 “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일주일 동안 팔만사천배 참회법회를 갖습니다.
남을 나처럼 소중히 여기고, 남의 종교를 나의 종교처럼 존중하고, 남의 나라를 내 나라로 생각하고, 아픈 사람을 내 몸처럼 보살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두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나의 일천배가 뭇 중생을 위한 팔만사천배의 회향이 되도록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입재 · 2005년 10월 15일(음 9월 13일), 토요일 오전 7시
●회향 · 2005년 10월 22일(음 9월 20일), 토요일 오전 7시
●3천배 참회기도 · 2005년 10월 21일, 오전 10시, 큰스님 사리탑
●추모재 · 2005년 10월 22일, 오전 10시, 해인사 대적광전
●기도방법 · 매 두시간 단위로 일천 배가 이어져 팔만사천배가 이루어집니다.
●동참방법 · 누구든지 원하는 날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면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상하 법복, 수건, 세면용품 등을 준비하십시오.
●동참금 · 50,000원 이상(농협 843174-51-010195 여무의)
●부산에서 매일 오전 6시 서면 (구) 대아관광호텔 앞에서 관광버스가 출발합니다.
●문의 · 백련암 (055) 932-7300

'빈그릇 운동' 전국으로 확산



9월 28일 열린 빈그릇활동가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활동사례들이 발표됐다.

불교전통문화인 발우공양을 응용해 정토회 에코붓다(대표 유정길)가 진행하고 있는 '빈그릇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빈그릇운동에 동참한 총 인원은 27만여명.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광주 등의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국민이 동참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LA, 워싱턴, 뉴욕과 독일 등지의 교포와 외국인도 참가했다. 빈그릇운동은 특히 불자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학교 · 기업 · 군대 등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학교 · 기업 · 구청 등 사례 발표회 열어
잔반 줄고 교육 효과…유사 운동도 생겨

9월 28일 서울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빈그릇활동가 워크숍'에서 발표된 현황은 빈그릇운동에 대한 불자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시켜 줬다.

인천 부흥중학교는 빈그릇운동을 시작한 이후 하루 100kg이 넘던 잔반량이 30kg 안팎으로 줄어들었으며, 현재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의 90%이상이 빈그릇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또 서울 동작구청은 빈그릇운동을 인용한 '가나다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다. '가나다 실천운동'은 "가져가고(남은 음식 가져가기), 나눠먹고(반찬은 덜어서 나눠 먹기), 다 먹는(음식은 남기지 않고 다먹기)" 운동의 줄임말.

구청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가나다 실천운동'을 벌이면서 동작구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경기 · 대원고속 역시 1979년부터 시작한 잔반 남기지 않기 캠페인을 확대해 회사 차원에서 빈그릇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여성단체들은 지역 동사무소에서 홍보 비디오를 상영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열띤 호응을 얻고 있다. 에코붓다 유정길 대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빈그릇운동에 동참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는 물론 다양한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 · 사진=유철주 기자

청원 석문사, 경로잔치 개최

충북 청원 석문사(주지 혜전)는 10월 9일 오전 10시 청원 남이초등학교에서 '청원군민과 함께하는 제2회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전통사상과 효 실천이 어우러진 지역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경로잔치는 '신명풍물예술단'의 공연 외에 사물놀이 및 가요 공연 등 출연자와 참석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혜전 스님은 "불교의 자비사상과 효사상을 펼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경로잔치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제주 의료원에 첫 병원 법당

제주에서 처음으로 병원 법당이 개원했다. 제주 춘강정사(주지 수상)는 제주의료원 지하 1층에 법당을 마련하고 9월 24일 부처님 봉불점안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수상 스님은 "제주의료원 법당은 병원 이용 불자들은 물론이고 지역민들에게도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462위 수호신께 제주 발전 기원

관음사, 한라산 영산대재 봉행



9월 24일 열린 한라산 영산대재.

제주 관음사(주지 용주)는 9월 24일 경내에 단(壇)을 마련하고 제주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제6회 한라산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총제관을 맡고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내 4개 시장이 제관이 되어 진행된 이날 영산대재에는 도내 사암 스님과 신행 단체장, 지역기관장, 시 · 군 마을대표,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관들은 제주도민을 대표해 천신, 한라산신, 해신은 물론 탐라개벽이래 역대 선조신위와 향토수호신 등 총 462위를 모시고 제주의 발전을 기원하는 등(燈)을 밝혔다.

집례도감 중원 스님(관음사 회주)은 인사말에서 "탐라국 시대부터 면면히 이어온 제주인의 정신을 되살려 세계를 향해 나가고자 영산대재를 마련했다"며 "대륙, 해양문화, 섬문화가 어우러진 탐라문화권 개발과 전통문화 전승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라산 영산대재는 일제 때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중단된 제주의 토속의례를 관음사가 경신공양제(敬神供養祭)로 복원해 6회째 이어오고 있다. 제주에는 탐라국시대부터 풍운뇌우제, 한라산제 등의 국제(國際)와 마을마다 향토수호 민중제례가 전승되어 왔었다. 이준엽 기자

"나눔으로 무등등한 세계 구현하자"

원효사, 무등산서 소아암 환우돕기 행사

광주 원효사(주지 현지)는 9월 25일을 '아름다운 나눔의 날'로 선포하고 '소아암 백혈병 환우돕기 모금행사'를 펼쳤다.

무등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판매와 모금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무등예술봉사단,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함께 동참했다.

원효사 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된 모금행사는 국수를 비롯한 사찰음식 판매와 장기기증 서약, 나눔돼지 나눠주기 등 나눔 한마당이 전개됐다.

이날 가수 주권기, 유상호씨 등 무등예술봉사단(단장 이애자) 회원 20여명은 릴레이 자선공연을 펼쳐 나눔자리를 흥겹게 했다.

이번 나눔행사를 마련한 현지 스님은 "광주를 대표하는 무등산은 모두가 존귀한 부처라는 불교의 무등등(無等等)을 뜻한다"며 "나눔으로 무등등한 세계를 구현하자"고 말했다.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중앙)이 나눔의 날 행사에 동참한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원효사는 이날 음식판매와 모금한 성금 250여 만원을 소아암으로 투병중인 아이들의 후원기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글 · 사진/광주=이준엽 기자

세익스피어 문학 불교적으로 조명

해남 광보사 '깨달음의 향연' 서

땅끝 동네 해남 광보사(주지 자황)는 9월 23~24일 양일간 '제2회 깨달음의 향연' 축제를 펼쳤다.

축제를 여는 첫날 23일, 해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대중강연회에서 초청법사 혜당 스님(담양 금타선원장)은 '세익스피어 문학의 불교적 조명'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세익스피어는 문학작품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중생, 깨달으면 부처'라는 불교와 같은 인간관을 설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세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햄릿에서 '인간이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이랴. 세상의 아름다움이요. 만물의 영장이로다. 인간이란 정말 하느님과 같도다'고 말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 사상과 다르지 않은 인간관을 엿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광보사는 강연에 이어 24일 경내에서 '가을과 명상, 하늘소리 바람소리'를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군포 법해사

실천은 우리의 '힘'



법해사 자원봉사조직인 '연꽃봉사단' 신도들이 자원봉사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25명씩 6개조로 구성된 연꽃봉사단은 매주 서너 곳의 복지시설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무엇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일부 스님이나 사찰들을 보면 '무늬'나 '냄새'만 풍길 뿐 실제로는 내실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군포 법해사는 다르다. 법해사의 활동을 보면 '아하! 이렇게도 하는 곳이 있구나'하는 감탄사가 나올 만하다.

경기 군포에서 자리 잡은 지 40년 된 법해사(주지 벽해). 산본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도심포교당이 된 법해사는 '복지도량'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것도 그저 시간 나는 대로, 사람 모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봉사활동처도 다양하다.

법해사의 자원봉사조직인 '연꽃봉사단'은 각조 25명씩 모두 6개조로 구성돼 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신도수는 150명이 된다.

이들은 조별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군포 양지뇌성마비재활원, 군포장애인복지관, 군포매화복지관, 안산 둥지마을 등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매화복지관은 노인복지기관이고 둥지마을은 청소년 복지시설.

이렇게 다양한 시설에서 활동이 가능한 것은 연꽃봉사단이 군포시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군포시의 지원으로 호스피스 교육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이 모두가 법해사가 시에 요청해 이뤄진 일이다.

물론 연꽃봉사단의 활동이 복지관과 시설에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다. 7년째 무의탁노인 발지압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또 요청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심지어는 군포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요청해왔을 정도다.

도대체 이렇게 봉사활동에 주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직적인 '연꽃봉사단' 활약 지역사회로
선방 · 찻집 등 갖춘 시민회관 건립 목표

"요즘 신도분들은 많이 배워서 교리도 해박하고 나름대로 수행도 잘 하세요. 하지만 아직 회향은 좀 부족한 편이죠. 모름지기 불자라면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법해사 총무 영경 스님은 '실천하는 삶, 회향하는 삶'이 법해사의 모토라고 말한다.

최근 들어 법해사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2007년 요사채를 헐고 선방, 찜질방, 찻집, 불교노래방 등을 갖춘 시민회관을 짓는 것이다. 시민의 휴식처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또 있다. 주지 벽해 스님은 여건이 되면 불교유치원을 꼭 하고 싶다고. (031)394-7253

군포=한명우 기자



육경신을 통한 천의선도 태종선사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기적의 천의선도를 만천하에 공개, 전수시켜 드립니다.

"천문을 열어라" 책값 : 20,000원

천의선도를 전수시켜드리는 과정을 천문을 열어드린다 합니다. 천의선도는 미구에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빙의된 조상신을 연화장 세계로 보내고 영능력을 길러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 선경을 이루라는 천명을 받고 14년전 창도되었습니다.

※ 천문이 열리면 하늘에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손과 손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끼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고 태종선사님의 사면령이 내려지면 연화장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30년 두통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몸이 거뜬해지고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리며 집안이 편안해졌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열심히 수련하면 당신손이 약손이 되어 타인에 천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홍보기간 중에는 평생회비 50만원을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천의선도 13주년 기념행사는 사회봉사활동

신다림으로 고통받는 분, 만성두통, 이명증, 목디스크, 견비통, 요통, 위이상으로 소화불량자, 우울증,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분에게는 생명의 에너지(하늘에 서기)로 쓸어드리면 신화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분이 10명중 8,9명 입니다. 체험해 보십시오. **요실금이 없어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어 남편 바람날 염려없고 전립선이 좋아진 남자는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니 이러한 신비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 내 나이 75세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생로병사와 사후 영혼들의 실상을 강의하고 다니는 것은 첫째 지면을 통해 발표한 외래종교교육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례를 밝히며 한 민족의 주체의식을 회복시켜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데 목적이요 둘째 무엇에 씌워서 제 갈길을 못가고 방황하는 당신에게 조상신을 천도시켜준다고 유혹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에게 속지 마시고 빙의된 조상신은 당신 몸에 하늘에 서기가 충만할때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아야 떠나는 것이니 당신 외에는 누구도 보낼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셋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고충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천상비결을 전해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0월 10일부터 2주간은 서울 수련원에서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위 치**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답십리 고미술상가 2동 맞은편에 있습니다. ☎ 전화 : 02)2216-6278 / 011-9803-4600

매월 마지막주에는 부산에 있습니다

■ **위 치**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베르빌 오피스텔 1821호 서면 롯데호텔 뒤편 800미터지점
22층 건물에 24시 사우나 찜질방 간판 보임. ☎ 전화 : 051)803-5953, 011-9803-4600

■ **천의선도 본원**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토요일, 일요일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041)741-4600, 741-7600, 011-9803-4600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올림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이들 크는 모습에 보람"

안산 대부도에는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모여 사는 '둥지청소년의 집(원장 자월)'이 있다. 이 둥지에는 9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고민하고, 뛰어놀며 함께 살고 있다.

9월 25일, 이 곳에 아이들의 '친구'가 되길 자처한 사람들이 있다.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둥지'로 찾아온지 벌써 4년이 넘은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봉사 팀(회장 장영철, 이하 불여사)'이 그들이다.

"기저귀 차고 다니던 아이가 어느새 걸어 다니고, 자기 밑에 동생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 보람 있지요."

법명 때문에 '달마 거사'로 통하는 장영철(34)씨는 2년째 불여사 봉사회 회장 역할을 맡아 수시로 '둥지'에 드나든다. 자주 둥지에 들르는 것은 회장이라는 직함 보다는 아이들을 보고픈 마음 때문이라 한다.

이제 다른 회원들도 4년 동안 아이들을 돌봐 와서 그런지 아이들 각각의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안다. 그리고 꽤 친숙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잔소리도 할 줄 안다.

"애들이요? 처음엔 옆에 오기는커녕 눈도 안 마주쳤어요. '또 그렇게 왔다 가는 사람들이겠지'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금방 친해진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갖고 꾸준히 찾아오는 불여사 회원들에게 아이들은 결국 마음을 열었다. 뛰어들면서 품에 안기는 아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 조용히 상담을 요청하는 아이. '둥지'에는 각기 다른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기에 불여사 회원들은 먼 길을 마다않게 됐다.

불여사는 처음에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성지 순례를 주로 하던 인터넷 카페 모임이었다. 그러다 '좋은 일'에도 눈을 뜨고 싶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던 '둥지' 자월스님의 손을 잡게 된 것이다.

'둥지'일이라면 쌈짓돈도 아까워 않는 불여사 회원들은 말한다.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안산/글 · 사진=김강진 기자



"햇볕에 이불 좀 말려야겠네" 불여사 봉사팀이 9월25일 '둥지청소년의 집'에서 이불 정리에 한창이다.

겨울나기 유리창 보수 도와주세요

둥지청소년의 집에는 아이들이 워낙 많아 옷도 필요하고 식료품도 달린다. 그러나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둥지'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다.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봉사팀은 "겨울에 아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불자들에게 유리창 시설비 후원을 부탁했다. (032)883-9033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당신의 용기가 희망입니다"

생명나눔 등록 절차와 준비 이렇게

순수한 나눔정신 가장 중요
기증자와 대상자 비공개
골수 기증등록 40세까지

"당신의 용기가 그들에게는 삶의 희망입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를 비롯한 '생명나눔' 홈페이지(www.lisa.or.kr)에 접속하면 이러한 문구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실천하려면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고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좋을지 몰라 마음을 접기도 한다. '생명나눔'에 관심이 있다면 절차를 잘 알아야 한다.

또한, '생명나눔'의 본질도 잘 알아야 한다. 생체기증이나 사후기증 모두 비밀로 이뤄진다. 즉, 기증자와 대상자가 서로 누구인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그러므로 '생명나눔'은 철저히 마음을 비우고 실천해야 한다.

▲**신장기증**=만 18세부터 60세까지 등록 가능하다. 조직 검사를 충분히 한 후 거부 반응이 없을 때 이식 수술을 시행한다. 신장 기증은 생체 기증이 가능하다. 단, 고혈압 · 당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장 기증을 할 수 없다.

▲**골수기증**=등록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40세. 기증은 60세까지도 가능하다. 우선 3cc 채혈을 통해 조직적합성항원검사에 필요한 혈액을 채취한다. 혈액을 분석한 결과는 (사)한국조혈모세포은행에 등록된다.

골수이식 시에는 전신마취를 하기 때문에 통증은 심한 편이 아니다. 또한 기증자에게서 채취하는 골수는 전체의 약 5%정도이므로 2~3주 후면 다시 생성된다.

▲**사후 시신기증**=시신기증 신청서에 사인을 하는 사람에 한해 사후 자동적으로 각막이나 뼈, 조직 등이 기증된다. 이 경우 장례비용도 후원된다.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뇌사자 장기기증**=반드시 본인이 직접 장기기증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뇌사 또는 사망후 장기기증은 그 가족이나 유족 중 1인이 대신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와 함께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및 적출요건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김강진 기자



최근 생명나눔 열풍이 불면서 '생명나눔' 방법을 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제주 캠페인에서 골수기증 신청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진제공=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나눔 등록단체 연락처

단체 이름	생명나눔 종류	연락처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증, 사후 시신기증, 골수기증	(02)734-8050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장기기증, 사후 시신기증	(02)363-2114
(사)한국조혈모세포은행회	골수기증	(02)737-5533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기증	(02)363-2114
대한적십자회 혈액사업본부	헌혈, 골수기증	(02)3705-8000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일허 스님 달마도 구입안내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에 일허 스님(밀양 영천암 주지)이 달마도 100장을 보시했습니다. 달마도(사진)는 35×45(㎝)규격이며, 작품 가격은 장당 5만원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민수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달마도 구입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39

영천암 (055)356-2040, 일허 스님 011-867-4747

계좌번호: 006001-04-095472, 국민은행 예금주: 김강진 (현대불교)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hompy.buddhapia.com/homepy/help

폐쇄위기 사명당의 집 19일 후원의 밤 열린다

폐쇄위기에 처한 불교계 단체 유일의 노숙인 시설 사명당의집을 살리기 위한 후원행사가 열린다.

작은손길(대표 김광하)은 10월 19일 저녁 6시 30분 역사문화기념관 문화공연장에서 사명당의집 이전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거리에도 희망을'을 개최한다.

(02)924-1010 후원:조흥은행 397-01-09836(예금주 작은손길)

유철주 기자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1980년 10월 발생한 '10.27법난'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받습니다

본 종단은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세력의 정권찬탈 야욕으로 자행된 '10.27법난'의 25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8일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출범 하였습니다.

작년 8월 노무현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진상규명이 국정의 현안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가 올해 5월 구성되었습니다.

불교계는 '10.27법난' 발생 이후 정부에 대해 꾸준히 법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불교계의 요구가 반영되어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과제로 '10.27법난'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추진위는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밝혀진 자료를 수집, 분류하고 있으며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에도 법난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촉구하였고 본 위원회 또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최대한 협조 할 것입니다.

본 '추진위'는 법난의 진상규명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 증언 등의 조사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980년 10월 27일 및 같은 달 30일 발생한 군경합동 전국사찰일제수색 등으로 일련의 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사찰대표님들께서는 꼭 동참하시어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만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체규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2000년 역사에 가장 큰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10.27법난'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한국불교의 명예회복과 피해자 보상은 물론 특별법제정까지 나아가려 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불기2549년 9월

신 고 내 용

1. **피해제보** : 10.27 법난당시 피해를 당하시거나 알고 계신 분
2. **상황제보** : 10.27 법난당시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신 분
3. **자료제보** : 10.27 법난당시나 그 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운동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신 분
4. **기 타** : 10.27 법난에 관한 모든 것
5. **신 고 처** : 대한불교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 사무국
   전화: 02)734~6403 / 전송: 02)734~6402
   E-mail: bud1027@paran.com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전화: 02)2011~1822 / 전송: 02)735~0614

※ 신고양식은 조계종총무원 홈페이지에 링크된 추진위 블러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각 교구본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 위원장 법타 합장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유람선으로 출발하는

중국북경 관광 및 성지순례

매주 금요일 (진인페리 이용)

여행경비 : ₩ 490,000원 6박 7일

(비자비 등 다 포함)

만리장성, 자금성, 천단 관광
용화궁, 백탑사, 와불사, 대종사 순례
(10명이상 출발 가능)

유람선으로 출발하는

중국 산동성 성지 순례

매주 수요일 (위동페리 이용)

여행경비 : ₩ 490,000원 6박 7일

(비자비 등 다 포함)

장보고선사의 적산 법화원, 태산, 곡부
제남 천불산(천불동), 영암사 청도 잠산사
(10명이상 출발 가능)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약사여래부처님의 원력으로



자광스님

장애를 가진 스님이기에 몸 아픈 이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고경사 자광스님은 오불전 약사여래부처님을 모시고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을 부처님의 원력과 스님의 지극정성 기도로 치료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각종 신병 - 친견 상담 환영

스님 자신은 장애자이지만 정상인으로 오히려 장애자를 돌보는 듯했다. 뒤늦게나마 확인되어 알려진 청산자광스님의 부처님의 지극한 불심은 불치병에 걸린 모 종합병원 의사의 어머니가 후

대구경북신문 2004년 12월 21일자 5면
화제의 스님 탐방기사 중에서

두암말기로 현대의학으로 고칠수 없어 아들과 함께 고경사에 와서 먹은거라고는 겨우 스님이 준 사탕 2개를 먹고 완치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냥 나을리는 없지만 스님이 가르쳐준 지켜야 할 일을 병행해서겠지만 아무튼 기적이 아닌가?

원인모를 병으로 서울 등지의 유명의원을 전전해 오면서 생을 포기하고 환자의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마지막으로 가산 정리를 위해 1주일만 더 살 수

종합 newskorea 2005년 1월 5일자 37면
기사 중에서

있도록 해달라는 환자 부인의 애원으로 학가산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로 완치되어 주위의 사람을 놀라게 하기고 했다.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력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들여다 보인다
세상 모든 만물이 적용되는 방향이 있어, 골라서 처방하고...
인간에게 잡귀가 스미면 잡아 몰아내야 하고... 병이 나으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독한 병일지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정성이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약사경〉

대한불교본원종 고경사 (찾아 오시는 길 : 풍기IC에서 20분, 서안동 IC에서 25분)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9번지 전화 054-638-8886. 8887 핸드폰 011-507-8885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Wellbl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연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캅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캅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닫집 수미단 전문 조성

천불전,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인등, 현판, 주련 등 전문 제작

누리 불교 예술원
박 연호 합장

TEL : 031)543-7073
H·P : 011-703-9130
FAX : 031)543-9162

www.nuribul.com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쑥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박잡는 틈새업종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 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쑥뜸을 뜰 수 있다.

오행쑥뜸기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쑥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쑥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 좌훈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훈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행좌훈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특허등록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 제 03662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07019-3001
실용신안등록 : 제 0308642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18970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28990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 인증서번호 :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오행쑥뜸기, 음양 쑥뜸기, 오행좌훈기 등을 찜질방 및 사우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독점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완벽한 본사의 교육)

문의전화 02)521-4453

www.moxa4u.com 오행쑥뜸·좌훈기/음양쑥뜸기 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

D.M.I 산업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 창업보육센터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한국불교 세계화 교두보로 '우뚝'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준공법회가 9월24일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은 무량사 회주 혜성 스님이 준공된 문화원 설법전에서 축사하는 장면.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준공 기념법회 현장

혜성·혜총·진허 스님, 하와이 부주지사 등 300여명 참석
한인 양로원 건립 위한 김창배 선화 전시 등 행사 다채
무량사·현대불교신문 공동주최 '간화선 법회' 입제식도



무량사 문화원 준공식에 참석한 하와이 불교계와 하와이 주정부, 호놀룰루 영사관 등 교포사회 지도자들.



진허 스님의 간화선 법회 후 참가자들이 실참을 하고 있는 모습.

"20년만에 문화원 건축완공 및 사용허가서를 받으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9월 23일 문화원 준공법회를 하루 앞두고 하와이 주정부로부터 문화원 사용허가서를 받은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과 신도들은 꿈을 꾼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10년 전에 이미 지상 5층에 건평 3500평 문화원 건물을 번듯하게 완성했지만 사용허가가 나지않아 아예 접근도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9월 24일 오후 3시 무량사 설법전에서 열린 문화원 준공기념법회는 기쁨과 감격이 이어지는 시간이 됐다.

부처님 전에 올리는 등 향 꽃 과일 떡 차 공양을 시작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이 문화원 건축완공 및 사용허가서를 들고 대중 앞에 공개했다. 그런다음 허가서를 부처님 전에 올리자 300여명의 참가자들의 우레와 같은 축하박수가 이어졌다.

도선사 회주 혜성,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 前 동화사 금당선원장 진허 스님 등을 비롯 미국 일본 베트남 티베트 등 각국 불교계 대표, 하와이주 부주지사, 호놀룰루 시장 등의 축사가 이어지자 참가자들은 수십 번의 박수로 기쁨을 함께했다. 또 무량사 신도들은 부처님 전에 헌화를 하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굳건히 세워진 무량사 문화원이 동포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다.

준공기념법회에서 10년 전 주지로 부임해 한민족 문화를 후손에게 잘 계승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불사를 추진해온 주지 도현 스님은 모든 영광과 공덕을 은사인 도선사 회주 혜성 스님과 그동안 묵묵히 따라준 신도들에게 돌렸다.

준공법회에 이어 저녁 7시 하와이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호텔 코랄볼룸에서는 547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만찬이 열렸다. 좌석 1석당 100달러(11만원)의 기부금을 받는 400석 규모의 만찬을 예상했지만 하루전날 100석이 초과된데 이어 당일날 47명이 더 참가했다. 3만여명밖에 거주하지 않는 하와이 주에서 모처럼 547명의 한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다른 커뮤니티(사회)에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날 만찬에서 무량사는 앞으로 30년 불사 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은 노 보살들이 병든 몸을 부처님께 의탁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하와이 한인요양원 건립과 한국불교 대표 수행법인 간화선을 미국전역에 전파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

이런 한인 노인요양원 건립염원에 따라 부대행사로 이날 코랄볼룸 앞 전시공간에서 마련된 담원 김창배 화백의 선화 초대전은 첫날 16점, 다음날 3점이 판매되는 등 성황을 이뤘다. 김창배 화백은 본사를 통해 무량사 한인 노인요양원 설립기금 전시회에 선화 50점을 기증했다.

2부 순서로는 무형문화재 제57호 이은주 선생과 제자 김금숙, 방인숙씨 등의 경기민요공연과 무량사 합창단의 합창, 하와이 춤사랑단의 공연등이 펼쳐져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다음날인 9월 25일 오후 3시 무량사 설법전에서는 스님 30여명과 간화선에 관심 있는 불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와 무량사 주최로 선원장 초청 하와이 간화선법회가 열렸다.

간화선 법회에 앞서 열린 입제식에서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은 "간화선법회는 무량사 창건 30년 동안 가장 뜻깊은 행사"라며 "모두가 행복으로 나아가는 간화선 수행을 하와이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은 "선원장 초청 간화선 법회는 해외에서 처음 열리는 한국불교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라며 "법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희생한 것처럼 굳은 신념을 갖고 간화선을 전하자"고 말했다.

이어 법주로 참가한 진허 스님(前 동화사 금당선원장)은 "간화선은 본래부처로 이루어진 나를 깨닫는 참선법이다. 이 참선법이야말로 나고 죽는 것과 행복 불행 등 자신의 인생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법문했다.

법문에 이어 진허 스님의 지도로 30분동안 참선 실수가 진행됐다.

진허 스님의 참선 지도 후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과 불자들이 1시간여 동안 참선 수행에 들어갔다. 이날 처음으로 절에 와 간화선을 체험했다는 재미교포 버나드(Bernard, 미국 육군병원 의사)씨는 "모국의 선수행을 경험하고 싶어 찾아왔다"며 "좋은 경험이고, 정말 잘왔다. 앞으로 4회의 법회를 모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년전 한인 이민의 첫 기착지인 하와이에서 한국 수행법 간화선을 소개하는 이번 선원장 초청 간화선법회는 10월 23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열린다.

하와이/글 · 사진=김원우 기자

다음호부터 매주 한차례씩 '간화선 세계화를 위한 선원장 초청 하와이 무량사 대법회' 법문을 게재합니다.



■ 무량사 문화원은?

공사 중단 재시공 거쳐 20년만에
신도들 만두 팔아 불사금 내기도
싯달타대학·대학원 개교 임박

무량사 문화원 건립불사는 1986년 국회 정각회와 한국 불자 기업인들의 화주로 한인 이민의 첫 기착지인 하와이에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 지붕 건축 공정이 진행되는 도중, 인근 주민들이 건물이 너무 높다며 이의를 제기하여 호놀룰루시가 공사중지를 명령하면서 10여년간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다 96년 부임한 주지 도현 스님의 노력으로 98년 8월 하와이 주법원이 2m를 낮춰 재시공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마무리 공사와 내부공사를 진행, 올해 9월 준공됐다.

20년 동안 공사비 260억원에 재판비용도 100억원이나 소요됐다. 문화원을 짓는데 무려 360억원이 들어간 것이다.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지 스님과 신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지난 20년 동안 오직 한국불교와 문화를 알리기 위한 전초기지로의 원력을 세우고 문화원 불사를 계속해왔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노 보살들은 하다못해 빈 병, 깡통을 모으고, 김치, 간장, 된장, 만두를 팔아서 문화원 불사비에 내놓았다. 지금도 화요일과 목요일 매주 2회 전 신도들이 모여 빚는 만두는 하와이에서 인기가 좋다.

문화원에는 이미 무량사에 개원한 해외 유일의 선방인 태평선원과 명원문화재단 하와이 다실 및 교육시설인 명원다도문화원을 비롯 설법전, 국제선원, 싯달타대학교, 갤러리, 방사, 식당이 들어선다.

특히 4년제 정규 대학과 2년제 대학원으로 개교를 앞두고 있는 싯달타대학교는 한국불교, 차, 범패 등을 본격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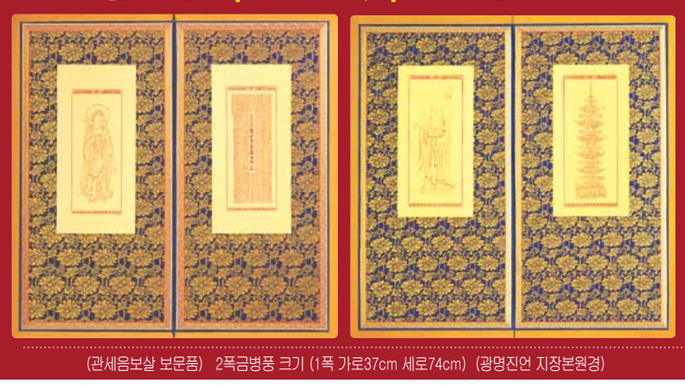


김창배 화백 선화전시회 개막식.

불경, 금책, 금병풍



실물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 · 천수경 12매 · 반야심경 8매



(관세음보살 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37cm 세로74cm) (광명진언 지장본원경)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호신용 소장용 영가천도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재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면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돌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아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아랫배가 냉하신 분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 "침" 쑥뜸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지역·단체 벽 허물고 '신행 UP'

국토개발연구원불자회 20주년 행사에 안양 5개 단체 함께 '합장'



직장직능 단체들은 최근 지역별 연대활동을 통해 달라진 신행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일터불교의 활로를 찾고 있다. 사진은 9월 23일 열린 안양시청 국토개발연구원 불자회 등 안양지역 5개단체의 연합법회 모습.

같은 지역 또는 인근의 직장불자회간 연대활동으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는 직장직능 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업종과 직능의 공통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일터불교에 새로운 신행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연대는 안양의 국토개발연구원 불자회와 안양시청 불자회, 안양경찰서 정토회, 안양교도소 성불회, 운불련 안양·과천·의왕·군포지역회의 교류.

9월 23일 의왕 용화사에서 열린 국토개발연구원 불자회의 창립 20주년 법회는 지역내 연대활동의 장점을 보여준 자리였다.

연대 통한 정보 교류 '일터 불교 활성화' 등 모색

올 들어 3월과 7월, 8월에 이어 네 번째 열린 연합행사로,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서로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나간다는 점에서 모범이 될 만하다.

이날 안양시청, 안양경찰서, 운불련 안양·과천·의왕·군포지역회 등의 회원들은 이웃단체인 국토개발연구원 불자회의 창립 20년을 축하하고 일터불교의 고충을 나누는 정겨운 모습을 연출했다.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신행생활과 직장내 포교활동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의식 국토연구원 불자회 고문과 양진홍 회장이 각각 '허공 같은 마음을 바람처럼 쓰라' '건강생태회랑의 구축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대중 앞에 섰다. 윤정택 안양시청 불자회장과 신진호 안양시청 불자회 고문, 김화자 안양경찰서 정토회 부회장은 직장내 일터불자들의 신행활동과 고충, 신행수기를 발표했다.

이들 5개 단체는 연합법회를 통해 운영상의 어려움은 물론 신행·포교사례, 수행프로그램 공유 등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함께 법회를 열고 교류함으로써 직장생활로 인해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신행환경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 법회 참가인원이 적어 지도법사를 초빙하기도 어렵던 일부 단체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

윤정택 안양시청 불자회장은 "많지 않은 회원들로 근근히 운영하는 직장단체들에게 같은 지역의 직장단체와의 연대는 '일터불교 활성화'라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서부와 경기북부지역 공무원불자들의 연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청과 은평구청, 고양시청, 파주시청, 양주시청 등 인접한 지역의 공무원불자회는 지난 2월 첫 연석회의를 열고 서북부공무원불자연합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후 분기별 연합법회와 상호간 법회 참석, 지도법사 지원 등 개별불자회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밖에 광주 서구청과 서부경찰서, 광주지방국세청 보리회의 연대활동과 대구불교산악회와 부산불교산악회, 광주불교산악회의 합동산행, 충남도청과 대전시청 및 산하 구청, 충남지방경찰청의 합동법회, 전남도청, 광주 동구청, 전남지방경찰청, 광주동부경찰서의 연합법회 등도 지역별 연대활동 사례다. 이들은 직종과 직능의 벽을 무너뜨림으로써 직장내 신행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동시에 '연대'라는 새로운 형태의 신행활동으로 일터불교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글·사진=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중생 아픔 아는 약사보살 돼라"

대구불교약사회, 첫 정기법회

대구불교약사회(회장 김태일)가 9월 23일 영남불교대학 대법당에서 창립 이후 첫 정기법회를 열었다.

60여명의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는 영남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의 법문에 이어 다과회를 통해 회원간 상견례의 자리를 마련했다. 또, 대구불교약사회의 발전을 염원하는 뜻을 담아 백옥부처님을 모시는 108통장을 부처님전에 올리는 통장 고불식도 있었다.

이날 우학 스님은 "부처님이 중생들의 마음 병을 치료했던 심정으로 환자들을 대한다면 그냥 약을 내어놓는 것 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진실로 따르고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약사보살이 되라"고 법문했다.

대구불교약사회는 앞으로 매월 정기법회를 개최하는 등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무료투약과 마약퇴치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우리단체 이사람



권장섭

서울노원경찰서 불교회장

1990년 문을 연 서울 노원경찰서에는 지난해에야 비로소 불자모임이 결성됐다. 오랜 기간 불교회 결성을 준비해 왔지만 경찰불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바쁜 업무로 인해 원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다가 권장섭 교통지도계장(55·흥륜·사진)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었다.

권회장은 꽤나 알려져 있는 유명인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 근무할 당시 KBS, 불교방송 등에 2만여회나 출연했다. 출근시간 교통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이었다. 경찰근무 기간 28년 가운데 26년을 교통경찰로 일하면서 자부심 또한 크다.

교통방송 2만여회 출연 경력

불자모임 창립, 포교에도 앞장

"방송을 하는 15년여 동안 사회적인 일익을 담당한다는 긍지와 보람을 느꼈어요.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기회가 아닌데,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 늘 감사했습니다."

권회장은 올 1월 경찰서내의 경승실을 법당으로 꾸미고 삼존불과 후불탱화 불사를 마쳤다. 앞으로도 계획이 있지만 큰 욕심 내지 않는다. 법당을 다녀간 회원과 경찰들이 더 큰 신심과 열정으로 일할 수 있길 기도할 뿐.

그가 불자모임과 법당을 만든 것은 노원경찰서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초등학교때 불교와 인연을 맺은 이후 대구 보현사 불교학생회에 다니면서 대성사와 옥련암, 무아불교학생회를 연이어 창립했고, 영남대 불교학생회를 거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불교를 위한 일이라면 팔을 걷어붙였다. 이런 인연으로 2000년에는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불교회를 만들거나 법당을 만드는 일이 어렵게 보이지만 '길'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 사찰을 전면에 내세워야지요. 아직도 법당이 없는 경찰서가 많은데, 그들도 '길'을 찾아 신행활동을 펼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권회장은 신행현장에서 활동하는 학생회시절 선·후배들의 모습에서 불교의 미래는 어린이 청소년포교에 달려 있음을 상기한다. 좀처럼 절에 가려하지 않는 요즘 청소년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온다. 그래서일까. 퇴직하면 미래 불교를 키우는 일에 나서고 싶은 것이 어린이회부터 중·고등학생회, 대불련을 거쳐 불자의 길을 걸은 권장섭 회장의 바람이다. 박봉영 기자

"가정 사회 위해 봉사할 것"

경남 공무원불자 '화합의 법회'

참선 실수, 숲길 명상 등 체험



9월 24~25일 하동 칠불사에서 열린 경남공불련 연합법회에서 경남지역 공무원불자들이 쌍계사 강주 통광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경남지역 공무원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법회'를 열었다.

경상남도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허학용, 이하 경남공불련)는 9월 24~25일 하동 칠불사에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연합법회를 열고 우의를 다졌다.

창립 4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한 이번 법회는 하동군 공무원불자들의 주관으로 입재법회와 연합법회, 대의원총회 외에도 다도 시연, 참선 실수, 숲길 명상 등 산사체험도 함께 진행됐다.

연합법회에서 허학용 경남공불련 회장(도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부처님 제자로서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공무원불자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경남공불련 불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팔만사천가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탐냄과 성냄, 어리석음을 털어내고 가정과 사회,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참된 공무원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경남공불련은 2001년 11월 경남도청을 비롯해 진주 양산 등 10여 시·군불자회가 동참해 창립한 이래 창원 마산 김해 함안 남해 합천 공무원불자들을 하나로 규합했다. 현재 경남공불련은 도내 모든 시·군에 1천여 회원을 확보하는 등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박봉영 기자

성북승무소법우회 자원봉사단 발족

부인회 주축, 활동 정례화

한국철도공사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도기환)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을 창립하기로 해 주목을 끈다.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는 11월 19일 발족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민순옥 조계종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 계장을 초청해 9월 20일 서울 월계동 기원사에서 첫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그간 진행해온 봉사활동을 정례화·체계화하기로 했다.

이미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는 창립 당시부터 소년소녀가장 6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자광원과 혜명양로원 등의 복지시설에서 목욕, 청소 등 각종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족모임인 승만부인회를 주축으로 의정부 선재동자원에서 매월 두차례 봉사활동을 펼치는 한편, 소년소녀가장 외에 이웃돕기 가정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찬연 교화부장은 "이웃을 돕는 자비행을 통해 회원간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모임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국태민안과 2005APEC성공개최기원

제6회 불교전통문화 팔 관 회

팔관회 동참안내

시민 불자 여러분이 소망을 담은 연등접수 및 영가천도재 접수를 통해 팔관회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1.팔 관 회 연 등(1인 1등 10,000원):희망 시민·불자
2.호 법 광 명 등(1인 1등 100,000원):각 사찰, 행단체 대표 및 희망 시민·불자
3.부산발전기원등(1인 1등 500,000원):각계 지도자 및 희망 시민·불자
4.수륙고혼천도재(영가 1위 5,000원):희망 시민·불자

팔관회 실천운동 자비의 쌀 모우기

일일 한끼를 금식하고 절약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자비의 쌀은 10월 15일(음. 9.13)토요일 팔관회가 열리는 광안리해수욕장으로 직접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팔관회 실천규범 팔재계 지키기

1.불 살 생(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2.불 투 도(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3.불 음 행(음행을 하지 말라)
4.불 망 어(거짓말, 악한 말, 꾸미는 말, 허황된 말을 하지 말라)
5.불 음 주(술을 마시고 취하지 말라)
6.지나치게 향을 바르고 가무를 삼가 하라
7.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지 말라)
8.때 아닌 때 먹지 말라

※부산불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팔관회 동참접수는 가까운 사찰에 문의바랍니다. ☎051)867-0501

10월 15일(음 9.13) 토요일 오후 5시
광안리해수욕장
식전행사 • 오후 4시 국태민안기원 영산재
축하공연 • 오후 7시

▶주 최: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051)867-0501
▶특별후원:문화관광부, 부산광역시
▶후 원: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부산불교실업인회, BBS부산불교방송, 불교TV부산방송,교계 각 언론사



※ FM 89.9MHz BBS 부산불교방송으로 생중계합니다.

제6회 불교전통문화 팔관회

국태민안과 2005 APEC 성공개최기원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2004-8213~6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사문의
011-869-8560 진우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8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특유의 관정비법으로 전수합니다.
전화: 02)720-5719/720-5682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정	천도	수	각	사	바라나비	경
안	재	륙	시		충	전
식	49재	재	식	물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사찰운영(동업,주주)모심
● 사찰위치 : 경주
● 규모 : 토지3500평,건물 300평
(소자본으로 힘을 모아 사찰운영 같이 할 분)
처사님 보살님 동참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051)803-5143

열린건강교실
(한국생활익지공협회)
● 생활기공수련비디오
테이프 / CD / DVD - 국내최초
● 가격 : 1만원(무료건강상담)
● 1주일 무료체험기간 운영중
대구 053)625-3118번

불교최초의 기도문 전문 사이트
http://www.gidovision.com
반야심경독송회
원장 覺光 합장
051)864-3740

사찰 부설 유치원 (제주시)
부식 담당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숙식완비)
011-692-5630

구병시식이나 천도재를 여러번 했는데도 병이 떨어지지 않으시분 원인을 찾아내고 영병을 한번에 다스려드립니다 가정이 잘풀리지 않으시분 전국암자 선방에 수십년간 참선수행하신 법력높으신 선승 큰스님께서 직접 다스립니다
영암 월출산 월산사 선각스님
061)473-4303
010-5850-4666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세계 어디에도 없는 눈을 위한신 개발품. 눈 생각
섭취하고 반응없을시 100%환불
02)2631-2205,1305
대리점 모집

정통 중국 황실 육임학 비법 전수
● 평생운 流年運의 정확한 예측법
● 古宮(자금성)에 소장중인 秘書로 강의
● 대육임 현대응용 활용법 강의
御定六壬學會
(어정육임학전문연구학회)
055)362-2799
010-4850-3900

구운 마늘환
● 혈액순환 잘 되고 피가 맑아짐.
● 수족냉증 해결 및 만성피로 해결
● 스테미너 강화 및 피부노화 방지
● 성인병 예방 및 강력한 항암효과
● 전립선 비대 예방 및 천식 해결
동양물산 051-338-0120
무료전화 080-766-660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50~60대
011-483-5639

포교당 포교하실스님께 보시합니다
010-7181-1878

수양처를 구하시는 스님
원력기도처를
구하시는 스님
부전스님, 사찰을 관리
해줄 스님(비구,비구니)
016-9388-1010

팔공산 임야 12,000평
토굴 2동에서 기도하며
불사하면서 평생 함께 할
도반스님 모십니다
불심있는 사무장 모십니다
▷ 60~70대
011-9554-6900

65세 이하 부부로서
사찰에서 함께하실분을
모십니다. 행자모심
▷경기도 양주
017-503-3576
031)826-3573

조석예불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9-673-4258

비구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50전후)
사무1명 (40세전후)
사찰요리보조원1명
011-9150-9190

부전스님이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주십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0-4555-2981

강원도 원주에 자리잡고 있는 보현사가 2005년 9월 15일 오후 2시 40분에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불사를 받고자 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보현사 201061-01-002545 우체국
010-2369-2822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팔공산〉
053)982-7226
010-3189-8745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하면서 사찰농장
돌보실분 신심있는
처사를 구함
043)646-2083
043)645-2085
011-244-2083

기도스님 행자승 모십니다.
남여 불문
▷ 부산지역에 계시는분
016-9730-3003

토굴관리하면서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전남 곡성군
011-620-551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분당)
031-719-0408

숲속유치원, 포교원, 노인병원, 웰빙관련업 할 분
017-840-5115

수행승입니다
인적이 드문 빈집
무상보시하실분 또는
인적이 드문 빈집이나
빈토굴 지켜드립니다
010-6510-9494

부전스님 모십니다
사미니 비구니
공부스님 학비지원
▷ 서울 서초구 소재
010-5688-5528

스님되실분 (남,여)
전화바랍니다

강촌에 작은암자터
사실스님은 전화바랍니다
033)263-5904
011-370-5904

자녀가 없는 불자님
모임을 갖고자 하니
불자라면 누구나
연락바랍니다
▷ 나이: 54~78세까지
010-4787-2177

- 노전스님 모십니다
(비구, 비구니스님)
50세이하 10년 넘으신 염불,
시달림, 기도 잘 하시는 분.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세이하 건강하고 불심있는 분
경주시 강동면 왕룡사원
017-531-7770

60대 독신 남자로 사찰에서 차량운전과 도량 관리하며 남은 생을 봉사하며 살곳을 찾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대형 면허이며 지방도 좋습니다
031)826-1152 / 011-9753-4152

산 좋고, 물 좋은 오래된 암자 3,500만원에 사글세 냅니다.
법당,요사채 100평. 용화전,
용왕전,산신각,정각
꼭 원하시는 분만 전화요망
011-9126-2266

명 리 학 무 료
초급반 00명 · 고급반 00명
• 기초에서 전문과정 까지 가르칩니다
• 지금 무엇을 할 까 망설이는 분
• 공부는 했으나 아직 갈피를 못 잡는 분
• 수강료 부담으로 독학 하시는 분
• 회원제로 운영되며 월 회비 3만원
해수 명리 연구원 원장 직강
문의 전화 : 02)3453-0001
위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영동 전화국 앞

수능시험합격부적패션출시
"경명주사"로 특수염색자수 하여 氣를 발산하고 액운을 막아주며 행운을 주는 패션제품
• 수험생에게 합격의 선물로... • 학업자에게 지혜의 선물로...
• 사업자에게 성취의 선물로... • 어려운이에게 희망의 선물로...
• 모든이에게 행운의 선물로... ■ 제품 : 팬티, 손수건, 양말, 차량용 복주머니
선물용포장 017-533-1356 [특허출원]
유통사업관심계신 분 – 전화상담

관음기도 성취도량
● 교통 사통팔달 산세수려 기도하는 분위기
● 최신식 실버타운 심신수련 기도처
● 독방사용, 숙식제공, 저렴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 편안하게 모셔드립니다 ● 선착순
010-9367-5982
주지 법사는 관음기도로 가피받은 사찰임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사주첩경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행자 [예비스님, 남 · 여]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납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지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 특강 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특전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수련일시 : 2005년 10월 11일 부터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6시(6주)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6시(6주)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3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역학 취업 전문반 대모집
◑ 대상 : 역학에 관심있는 25~65세의 남녀로 고정적인 고소득을 원하시는 분
◑ 기간 : 6개월 완성 (선착순 28명까지 취업보장)
• 명리 : 10월 8일 (토요일)개강
시간 : 14시 – 18시까지
• 타로 (카드) : 10월 11일 (화요일)개강
시간 : 10시 30분 – 13시까지

육 효	3개월 완성	10월 8일 토요일 10시30분 – 13시
관 상	5개월 완성	10월 8일 토요일 19시 – 21시30분
풍 수	3개월 완성	10월 11일 화요일 19시 – 21시30분
한 문	20주완성	10월 12일 수요일 19시 – 22시
구성학	4개월완성	10월 12일 수요일 14시 – 17시

◑ 특전 : 학술회원증 발급. 타로 마스터 자격증 발급.
우수생 강사요원으로 보장

역학 상담사 大모집
◑ 모집대상 : 역리사 자격증 및 학술 회원증 소지자.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역학 전문강의 유경험자.
타로 마스터 우대.
◑ 근무지역 : 전국 각 시도별 00명모집.
◑ 특 전 : 주 4, 5일 선택 고정근무 가능.
각 개인 연구과목 특강시 연구비 지원 혜택
월수입 150만이상 가능

주관) 한국 전통과학 아카데미
02)929-4646, 4643 / H.P 010-3908-7150
홈페이지 : www.kTSA.co.kr
(1호선 전철역 신설동역 5번출구 60m)

중풍 각종 암 소아마비
● 성뇌 개규침법 : 중국 청률 중의대 석학민 교수가 일본 침술 세미나에서 중풍환자 치료시범에서 환자의 마비된 팔과 다리가 즉석에서 펴지는데... 관중의 기립박수를 받은 비법.
● 336침법 : 중국 본토로부터 홍콩으로 피난나온 하봉광선생이 1952년(퇴각 경론의 논문)에 의해 발을 다스려서 오장육부의 전질병이 치유된다는 이론으로 경이롭기까지 하다.
● 안와침법 : 한의학 이론에 따라 눈을 팔구로 나누어 장부에 배당하고 그 상응부에 자침하므로써 속효적인 효과를 얻는 침법.
● 사와다 껜 침법 : 일본 침구계의 대명인으로서 괴자를 응용한 태극침법으로 만병을 고친다고 호언하며 살아 생전에, 중국 의성이라 불리는 장중경 선생을 비웃었던 분으로 일본 침구대학 교과서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인의 추앙을 받는 침법.
● 양도락 침법 : 저주파를 음과양으로 분류 자침하여 통하며 흐르게하여 허약해진 신경과 굳어있는 근육을 자극하여 경락을 통하게하며 오장육부의 기와혈을 순환시키는 침법.
● 남상천식 약침법 : 한약사이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비방을 찾던 중 윤제와 기제의 부족으로 암이 발생한다는 원리를 찾아 수많은 임상을 한뒤 6성 경락으로 체질을 분리하여 치료, 완치라는 쾌거를 남긴 뒤 스리랑카로 이민을 함.
● 의성스님 침법 : 중풍과 소아마비는 양경락의 뇌를 다쳐 발생한 원리를 적용 치료원칙을 세워 중국, 일본에서 3년이내의 환자를 96% 완치시켰던 침법. 디스크 헤르니아 수술 완치법
오래된 구완와사 매침법, (1회완치법) 교통사고 후 만성두통
■ 강의일정 : 저녁 7시부터 교육 숙식가능. 보시금 490만원 선착순 10명만
1차 : 2005년 10월 11일 – 10월 16일
2차 : 2005년 10월 20일 – 10월 25일 오후 5시 부터
(강습자 복강 가능)
■ 예약전화 외 일체사절 / 예약 선입금
농협 457109-52-098389 홍점순 (이후 교육 없음)
■ 찾아 오시는 길 : 공주시에서 청양가는길 13km 오셔서 공수원 4거리 하차(신풍면 쪽) 900m 좌측, 대나무 있는 곳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86번지 천제 불국사 의성 합장
041)855-7114, 016-552-2159

관절염 · 신경통 · 오십견 · 류마티스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

윤원장은 우슬, 창출, 당귀, 맥아로 60℃에서 6시간 동안 알콜추출(65브릭스로 농축), 속단, 구판, 홍화자 외 19개 약제를 특수효모와 흑설탕으로 16일간 속성발효하여 몰약을 액상화시켜 丸(환)으로 만든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관절염,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등에 주효하며 5~7일 정도 복용하면 통증 완화, 부기감소가 나타나며 혈행개선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 관신환(丸)



기관지천식 천연생약제로 치료한다.

윤원장은 항암작용이 뛰어난 신비한 약초로 구전되어 온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와 그 외 수종의 약제로 만든 기천탕을 처방하여 수년간 기침·가래·기관지천식으로 고생하신 환자에게 복용시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환자 증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일만 복용해도 80~90% 이상의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환자에 따라 1~6개월까지 복용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기천탕(湯)

윤량한의원 원장 윤 량

자 료 제 공 윤량한의원 02-598-9832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홍천	● 위치: 부산	● 위치: 경기 청평
● 법당: 23평	● 법당: 30평	● 법당: 25평
● 요사: 20평	● 요사: 120평	● 요사: 30평
● 부지: 5900평	● 부지: 107평	● 부지: 670평
● 가액: 3억	● 가액: 4억	● 가액: 4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분당목조사찰-9억5천
2.평창 3만평사찰-10억
3.경북관광사찰-12억
4.강릉 2500평별장-5억
5.이천 500평사찰-3억
6.산본포교원100평-월180만원

◆ 1억~10억 사찰, 사찰터 많음
※ 직원, 공양주, 기도스님 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급)안내

● 위치: 양산시 웅상읍(일명 서창)
● 대지: 60평(평당 200만원 이상)
건물: 법당 30평, 요사 32평
칠성각 5평(신축 단청필)
● 가액: 2억6천(은행 9천포함)
● 특징: 부산시내버스 5개노선
울산시내버스 2개노선
신도시 요충지

011-868-5997

포교당안내

● 위치: 천주시 흥덕구
청주과광호텔앞
● 평수: 45평 3층건물중 2층
● 시설: 삼조불, 후불탱화 3점.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부만 오셔서 즉시법회가능
시설비: 답사후절충

016-261-2068

도심포교당안내

● 위치: 밀양시 교동
시청주변
● 대지: 310평
● 건물 3동, 3층건물 1동
단청 슬라브 기와 1동
별채 1동
● 가액: 6억 5천

010-4876-5535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 안내

● 위치: 상계역 2분거리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내 위치
● 2,3층사용 보증금 1천만원
월 1백만원 / 2층만 사용시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2층 40평 3층 20평
● 삼존불 모셔져 있고 시설완비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시설비 약간

02)952-8131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하단동
● 법당 30평
요사 20평
부지 73평
● 가액: 1억8천만원

010-8955-5535
055)338-3020

사찰안내

● 위치: 서울 성북구 정릉4동
● 건물: 약40평(인법당)
● 법당: 18평, 부지: 약 300평
● 단청 있으며 전망 좋음
● 가액: 2억9천

02)918-1215
016-237-3006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4호선 7호선 교통요지
● 평수: 45평(2층건물 중 2층), 옥상 사용가능
● 시설: 큰법당 큰방2칸 큰주방
삼존고불(동불) 고좌대, 후불, 신중, 산신 영단
아미타변상도
● 최고시설 전혀 손 볼일없음
● 가액: 보증금 1천5백만원 월70만원,시설비 : 답사후 결정
● 새벽예불 올릴 수 있으며 몸만 오셔서 수행하시면 됨

010-4859-8472
02)598-8472~3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시내	● 위치: 경기도
● 부지: 850평	● 부지: 120평
● 법당: 20평	● 법당: 20평
● 요사: 40평	● 요사: 40평
● 양도가: 8억	● 양도가: 4억5천
● 산세 계곡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천호 4동 암사역 2분거리
대로변 변화가
● 평수: 48평(5층 건물중 2층)
● 시설: 사존불외 집기일체
후불탱화, 방2칸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즉시법회가능

010-7324-5115

포교당안내

● 위치: 인천 서구 가정동 부근
● 3층 건물에 3층 70평
법당30평, 주지실, 사무실,
총 방5개, 참선방 4칸,주방, 욕실,
화장실 3개(실내외)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세66만원,시설비25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9969-9895
032)572-750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경계
● 건물(조립식)
대지 200평, 법당 25평
요사채 10평,
부속창고 20~30평
총 1600평
● 심야보일러 130m암반수
● 가액: 1억5천(절충가능)

016-9559-8889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 총 602평에 대지 402평,
대웅전 33평(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7층석탑.
※수행과 포교에 적합
● 가액 : 7억 3천만원

011-9411-5302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042)274-0108

전원주택,절 터 토지안내

● 소재지: 충북 영동군 부용리 272번지 외 5필지
토지면적: 1,159.1평 / 용도지구: 관리지역(대지 150평, 전 1004.1평) ●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단층
● 난방: 석유보일러, LPG가스 사용
● 가액: 2억5000만원 / 융자 2000만원
● 특징: 포장도로 접함. 옥천IC에서 20분거리
과수원 포도 800그루, 감나무 30그루 식재

011-9824-333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부근
천안시내에서 15분거리
● 평수: 대지 62평, 법당,
산신각, 요사2채
● 가액 : 7천만원

011-209-5506

자리중에 자리!

국내 최고의 자리!
영험의 자리!(백문이 불여일견)
● 신당동 중앙시장 건너편
● 평수 : 20평 (철학관운영가능)
● 보증금 1,000만원 / 월6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2)2236-2284
019-634-3069

별장식 사찰안내

● 위치 : 이천시(중심가)
● 대지 175평, 법당 30평(1층),
요사채(2층건물)
● 가액 : 3억3천만원
● 특징 : 사찰뒤 산이며 앞은 이천시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좋고,
교통편리한 새절입니다.
(공찰 주지소임관계로 새로 사찰을
건립하고자 하는분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016-510-3455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내에서
15분거리
● 대지 600평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 교통편리, 산세위치 수려함,
신축건물 고건축
● 가액 : 4억5천만원
(절충가능)

011-530-8490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14억
●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0-6248-7345

포교당안내

● 위치 : 연신내역에서
2분거리
● 평수: 32평
● 몸만들어오시면됨
● 가액: 보증금 3800만원
월 20만원

02)388-7041
011-9943-7041

사찰안내

● 위치 :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 용도: 연수원 수련원 연구원
다용도 지하암반수 알 개울
● 식당건물 40평, 구옥1동
컨테이너1동, 창고 80평
● 유실수 조경과 완비
● 관리지역 총 3500평
하천부지 사용 500평
● 가액: 3억

054)683-0359

사찰(급) 안내

● 부산대 사찰
사내 평수 천평
● 주차 85대 가능,
● 가액 : 11억

051)326-1545
011-563-1545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376평, 전: 156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강릉시 옥계면
● 대지 150평, 전 430평
● 가액 8천5백만원(절충가)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산시 북부동
● 가액 : 500만원에 월35만원(절충가)

010-4841-3499

토굴안내

● 충남 칠갑산 자락
● 토굴 수행하실 스님
● 목조 한옥 약20평

011-218-514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군청 소재지
● 부지: 사용 삼백평 등기는 백평
● 법당: 18평 기와 단청됨 남향
● 요사: 23평 외 7평 기와 동향
용왕전 3평 약수물이 좋음
산신각 3평 산이 힘있는 도량임
● 미륵부처님 11자 석불로 모셨음
● 절 뒤로는 산이고 앞으로는 도시가
다 내려다 보이는 청정도량임
● 집기일체 구비되고 몸만오시면 됨
● 가액은 일억 오백만원 급 안내임
● 절은 20년쯤 되고 추천하는 사찰임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포동 시장상권 밀집
유동인구 (자갈치역 2분)
● 평수 58평, 엘리베이터 有, 옥상사용
* 내부 한옥식 포교원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게르마늄과 맥반석 온돌방 지공.
* 주지실 별채 화장실 구공.
* 삼존불, 삼존탱화, 집기일체,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3천8백만원에 월50만원
(조절가능) 시설비 2천2백만원

010-8678-5442
011-9193-2351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오진리
● 대지: 180평
임법당(2층) 방3개
● 도자기 굽는 장작가마 설비완비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집기포함) 2000만원 (1,2층)

054)372-8850
010-7150-8222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추풍령 부근
● 대지 약200평
1,2층 법당, 방4개,
요사채 1동
● 현대식건물
● 가액: 협의 절충 결정

010-4408-5060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남일면
● 법당 요사채1동 방3개
● 가액 : 5,000만원

010-9537-0108
043)296-4480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시 원주시근교
원주버스터미널에서 10분거리
서울에서1시간거리
● 종교부지(800평외 320평사용
적멸보궁20평 대웅전30평
산신각 미륵대불 3층불보탑
신축요사채50평(심야전기보일러)
(진입로포장완료)
● 정남향 산세수려 한도량 30년사찰
건강사유로 양도함
● 가액: 4억9천만원(절충가능)

011-361-051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
(지하철 광안역 대로변)
● 평수 : 4층건물 3층, 4층
3층 : 요사 30평(방4개, 주방)
다용도실 40평 (시민선방, 요가,
차(茶)실, 기타 다양하게
사용가능)
● 4층 : 법당 40평 (최고시설)

017-540-0568

토굴(급)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 대지400평, 등기 200평
법당20평, 요사채 100평
(방2, 사랑채1)
● 집기일체 양도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1억(절충가능)

031-531-6918
010-7474-0108

사찰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학교 부근3층건물의 2층
● 법당 23평, 전체 43평 방3개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010-7188-5612

포교당 안내

● 위치 : 충남 당진읍내한성아파트 단지 근처
● 평수 44평, 4층중 2층, 큰방1, 욕실, 옥상사용 가능
● 삼존불, 각단 탱화(손금겸 홍, 흑택화)
● 앰프 스피커 집기일체
● 즉시 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60만원.
시설비 1600만원
성모병원 하차 약30m전방 (상업지역)

010-9473-3174

포교당(급)안내

● 위치:대구시 남구 영대 전철역 옆
3층건물 중 2층 40평
● 법당, 삼존불, 신중, 시왕
방2개, 공양간, 집기일체양도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26만원
시설비 1300만원

053)653-0287

웰빙기수련원

기란?
기를 만지고 느낄 수 있다
자기 손에서 나온 기로 타인의 고통이 없어진다
자기 몸에서 나오는 탁기를 본인이 느낀다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에너지 요법
첫날부터 기를 느낀다면 믿겠는가?

치유기공 수련생 모집

◆ 이론은 있으나 실기가 안되는 분
◆ 실기위주 전문교육(집중교육)
◆ 3개월후에는 전문치유 기공사
◆ 기감 강화를 위해 전국 명산 수련
◆ 치유기공 과정 수료후 전국지부 개업 가능
◆ 개인지도 가능

교 육 내 용

• 기공의 종합이론	• 기감 증폭 수련
• 치유 특수 명상	• 자력 기공
• 타력 기공	• 치유 실습
• 염력 치유 기공	• 영적 치유 기공

치유기공 연구회 02)561-6488

탈종공고

● 사찰명: 불국사
● 법명: 태륜
● 주소: 경남 진주시 유곡동 82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보국불교 염불종에서
탈종을 공고함

보국불교 염불종 총무원장 법하

사찰안내

● 위치: 충남 부여 10분거리
큰도로 근접, 뒤는산, 정원양호
● 대지 200평 2층 골조 슬라브
2층법당 40평 대웅전, 산신각
1층 40평 요사채
● 가액: 1억2천만원
하실분만연락바람

041)832-1747
011-9805-6747

토굴터안내

● 위치: 경북 군위 우보
● 평수 169평, 건물 1동
다용면적 100평
● 가액: 3천8백만원
● 배산임수 명당절터
마을맨 끝집

011-9585-490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창녕
유어면 진창리
● 대지: 150평
법당: 목조 12평
요사채: 25평
입식주방, 욕실, 교통편리
● 가액: 8천3백만원

016-652-7547

사찰안내

● 위치: 부산 연제구 연산동 산자락
조용하고 그림같은 사찰
버스10분거리 전철역 10분거리(11월 개통)
● 대지: 등기 30평 실사용 약 100평
법당: 14평, 삼존불, 후진불, 흑탱화,
도천약사불, 적등2개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아파트 밀집지역 주차진입가
● 비구니 비구스님 법사 보살님께 적합

017-581-0173
051)553-0905

사찰겸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부천역사 2분거리)
●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연립 5층의 2층 30평
● 법당1개,큰방2개,거실,욕실,
도시가스(살림해결), 금불상,
삼존불,법단2단 목조각
● 가액:보증금 1천만원에 월 55만원
시설비 1천만원, 주차가능
※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보시는 분 적합

011-650-8481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 20분거리)
● 대지: 200평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목조)
부속건물 18평, 11평
● 옥천읍 5분거리에 270호
촌락의 산자락에 자리한 작고
아름다운 사찰로써 완벽하게
가꾸어졌음
● 가액: 1억2천만원

011-9405-818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청송군 진보면
면소재지에서 걸어서 5분
● 면적: 680평
법당 요사채 50평
삼존불, 단청
● 가액: 1억2천만원
(융자 5천만원)
가격절충

011-808-5206
054)874-2155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수맥,
대체의학 전수가능. 무료 전수

011-834-8545
055)337-8600

수덕사근역성보관, 월간미술賞 수상

사찰박물관 위상 높아져


월간미술대상 전시기획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수덕사근역성보관의 '지심귀명례-한국의 불복장 특별전' 전시실. 이 기획전은 2004년 10월 11일~11월 10일 열렸다.

국공립 박물관과 잇따라 특별전 공동 개최
특화전략 · 꾸준한 연구로 기능 업그레이드

사찰박물관은 더 이상 도난 방지를 위한 유물 수장고가 아니다.

다수의 사찰박물관이 사찰 측의 무관심, 무계획한 운영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몇몇 사찰박물관의 참신한 기획과 운영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사찰박물관 활성화에 자극제가 되고 있다.

수덕사근역성보관이 월간미술 주최 월간미술대상 전시기획부문 장려상 수상자로 결정돼 10월 10일 로댕갤러리에서 수상할 예정이며, 통도사성보박물관, 대원사 티벳박물관 등 몇몇 사찰박물관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과 특별전을 공동개최하는 등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도난방지 유물 보관창고는 옛말!

수덕사근역성보관(관장 정암)이 수상하게 된 월간미술대상은 1996년 제정된 국내 유일의 종합 미술이론상으로, 사찰박물관이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광주비엔날레나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규모 있는 기획전이 역대 수상자로 선정돼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적 · 물적 토대가 취약한 사찰박물관이 수상하게 됐다는 사실은 신선한 충격으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에 월간미술대상 장려상을 받는 수덕사근역성보관의 기획전은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열린 '지심귀명례(至心歸明禮)-한국의 불복장(佛腹藏) 특별전'이다. 일반인의 범접이 쉽지 않았던 복장 유물을 한자리에 모아 복장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있게 한 첫 특별전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복장 가운데서도 특히 직물 · 의류에 초점이 맞춰져 관련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1개월 전시기간 동안 찾아온 관람객만도 1만8천명에 달한다. 또한 공들여 제작한 '지심귀명례전' 도록은 10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1000부 가까이 팔렸다.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은 2005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열리는 특별전 '탱화, 그리고 현대적 읽기전'을 9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과 공동개최한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전시실 운영 외에도 지역민을 위한 문화강좌,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폭 넓은 활동을 보이고 있다.

2000년에 특별전 '한국고승진영전-깨달음의 길을 간 얼굴들'에서 백여 점이나 되는 진영을 동시에 전시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직지성보박물관(관장 흥선)은 이미 범종 · 금석문 등의 탁본 특별전을 여러 국공립박물관에서 순회전시 한 바 있다.

전남보성 대원사티벳박물관(관장 현장)도 지난 8월 광주국립박물관과 공동으로 광주에서 '인도세밀화 특별전'을 주최한 데 이어 춘천국립박물관과도 특별전을 가질 계획이다.

원주 명주사고판화박물관(관장 선학)은 교육기능이 돋보이는 곳이다. 고판화박물관은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선정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기관으로 선정돼 판화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판화체험관도 지었다.

■성공비결은 특화전략과 관리자 열정

아직도 상당수의 사찰박물관이 유물을 보관해두는 '창고'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 몇몇 사찰박물관이 일반 국공립박물관과 대등한 수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들 사찰박물관의 성공비결을 특화전략과 관장 및 학예사의 열정에서 찾는다. 통도사성보박물관 하면 불화가, 직지성보박물관 하면 금석문이, 수덕사근역성보관 하면 직물 · 의류가 떠오르는 것은 이들 박물관이 특화에 성공했음을 뜻한다. 대원사티벳박물관이나 명주사고판화박물관은 각각 인도세밀화와 고판화라고 하는 특화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이 분야 독보적인 박물관으로 이미지를 굳혔다. 대원사티벳박물관과 인도세밀화 특별전을 기획했던 강순형 광주국립박물관 학예실장은 "좋은 자료를 갖고 있는 사찰박물관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특별전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박물관의 관장이 박물관과 문화재에 정통하며, 박물관의 발전방향에 대한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이들 박물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가령 수덕사근역성보관장 정암 스님은 직물과 의류에 관심을 갖고 4~5년 전부터 '지심귀명례전'을 기획해왔고, 다음 특별전으로 '지심귀명례II-직물로 승화된 불경과 불화'를 준비하고 있다.

기획력 만큼이나 박물관 운영에 쏟는 정성도 지극하다. 고판화박물관 선학 스님은 박물관 운영을 위해 문화관광부나 한국박물관협회, 강원도, 원주시 등 관계기관을 뛰어다니며 부단히 자금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박물관의 특화전략과 시 · 도의 관광자원화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탓인지 고판화박물관은 시 · 도로부터 1억 6천만원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특화'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조계종 문화부 한 관계자는 "특정 시대 또는 인물 중심의 특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도갑사의 도선국사성보관이나 표충사 호국박물관, 흥국사 의군수병유물전시관 등과 같이 다양한 기획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725년 주조된 상원사동종(국보 제36호).

상원사 종소리 달라졌다

1979년 용접보수 후 맥놀이 주기 · 진동수 변해

현존하는 동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국보 제36호 상원사동종(725년 주조)의 종소리가 1979년 용접 보수 이후 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10월 2일 월정사(주지 정념)에서 열린 '상원사동종의 종합적 검토'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서울대 이장무 교수(기계항공공학부)의 논문 '상원사동종의 음향학적 고찰'에서 밝혀졌다.

이 교수는 지난 6월 실시한 진동음향 분석 결과와 1976년 故 염영하 서울대 교수의 것을 비교했다. 조사 결과 용접 전 동종의 기본모드 진동수는 102~104Hz였으나 최근 실측값은 105.5~105.72Hz로 변했고, 맥놀이 주기 또한 용접 전 0.495초였으나, 최근 실측값은 4.54초로 늘어났다. 맥놀이 주기가 길면 소리가 웅장한 반면, 주기가 짧으면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또한 동종에 타격을 가하는 지점인 당좌의 적정위치도 조사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맥놀이 현상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이상적인 당좌 위치는 원래 당좌위치에서 반시계방향으로 24° 위치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나형용 서울대 명예교수가 '상원사동종의 주조기법 및 금속학적 고찰'을 최응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팀장이 '상원사동종이 지닌 한국범종에서의 위치와 중요성' 등을 발표했다.

특히 나 교수는 상원사동종의 무게는 1226kg이며,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이뤄져 있으며, 종구 밑면에 설치한 4개의 주입구를 통해 하주법으로 용탕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27>

달이야기
달과 인간의 상관관계 규명 노력
과학 · 종교 · 시인의 입장은 같을까?

시(詩)를 읽다보면, 동양시와 서양시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서양의 시가 대단히 인간 중심적인 주제를 택했다면(비록 대상이 자연이라고 하더라도), 동양의 시는 자연 속의 일부로서 매몰된 정취를 노래한다.

특히 가을의 달 만큼 동양의 시에 자주 등장한 소재도 없다. 안록산의 난 당시 흩어졌던 동생들을 그리면서 지었던 두보의 '월야억사제(月夜憶舍弟)', 그리고 당나라 3대 시인 중, 가장 회화적인 시를 지었다는 시불 왕유의 시중 대나무 숲에서 보는 달빛을 표현한 '명월래상조(明月來相照)'는 참으로 시에 그림이 있다고 하는 옛사람의 비평이 허구가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달이 찾아와서 서로 비춘다는 장면에서는 시에서 그림을 느낄 수 있으며, 선적인 경지까지도 읽혀진다. 마음을 조용히 두었을 때 단순히 대상으로 느껴졌던 바깥의 사물들이 나의 마음에서 녹아버리는 느낌들을 서로 비춘다고 표현한 것만 같다.

이와 같이 동양의 시에 달이 많이 등장하는데 반해, 부처님 경전에서는 달이 등장하는 예가 드물다. 음양의 조화를 중시했던 중국의 문명과는 다르게, 태양의 에너지를 더욱 강조했던 인도 문명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인도를 방문한 사람들은 인도 문명의 강렬한 에너지에서 감명을 받는다고 한다.

달은 왜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가. 역사적으로 점성술을 포함하는 신비과학에서는 천체와 인간의 운명을 점치기 위해서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의 천체의 위치들이 태어난 아기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다. 별이 미치는 오묘한 인력들의 조합이 인간의 생체를 결정한다는 다소 신비적인 믿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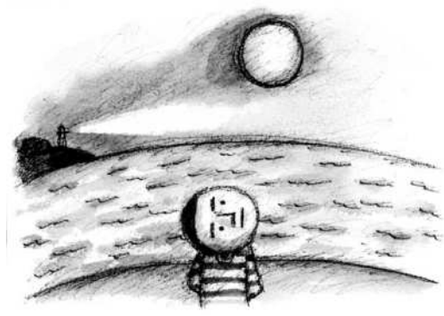
라틴어에서 유래하는 'lunar'는 영어로 달을 나타내고 여기에 파생된 'lunatic'은 '약간 미쳤다'는 뜻이다. 보름달일 때 자살률이 많다는 경험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최근에 과학적으로 보름달과 인간의 심리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과학적인 데이터는 인간과 보름달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미력하기는 하지만, 바닷물의 조수를 결정하는 달과 물로 이루어진 인간(아니 생물 전체)의 미세한 생체 리듬의 영향을 부정하기 또한 힘들다. 여성의 배란 리듬이 달의 주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기 전에 가끔은 어느 태평양의 어느 섬, 인적이 없는 바닷가(아니 해운대 바닷가여도 좋다)에 비치는 달빛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바닷물의 파돗소리를 생각해 보자. 과연 그 바닷가의 적막은 나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문득 관련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수 억년 동안 '나를 만들기 위해' 존재해온 수많은 달빛에 대한 기억들 때문은 아닐까.

파도 소리의 들고 낢에서 소리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관세음보살을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오디오불경대전집
New 2005년
佛經大全集 탄생
경전을 듣는 사람이면 어리석음에서 눈뜨고 무명을 깨뜨려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무소유보살경)



CD 23장

불경대전집 수록내용
천수경, 장엄염불, 아미타경, 화엄경 약찬게, 반야심경, 고왕경,목탁성, 법성게, 무상게, 관음정진, 금강경, 반회심곡, 천수경, 화엄경 약찬게, 관세음보살보문품경, 나옹화상 발원문, 천지팔양신주경, 산왕경, 조왕경, 북두주, 법화경 약찬게, 신심명, 보현행원품, 별회심곡, 지장경, 약사여래본원경, 관세음보살 사십이수주, 석가모니불 정근, 약사여래불 정근, 관세음보살 정근, 지장보살 정근, 화엄정중 정근, 마하반야바라밀 정근, 우리말 천수경, 우리말 아미타경, 우리말 반야심경, 우리말 관세음보살보문품경, 우리말 나옹화상 발원문, 이산 혜연선사 발원문, 우리말 법성게, 우리말 무상게, 경허 스님 참선곡, 부모은중경, 우리말 천지팔양신주경, 나옹스님 토굴가, 회심곡(불가조), 우리말 보현행원품, 우리말 지장경, 우리말 금강경, 현대어 부모은중경, 명상의 말씀1 (밝은 미래를 향하여), 명상의 말씀2(탐,진,치를 멀리하고), 명상의 말씀3(옛 성현을 따라) 명상의 말씀4(행복의 문을 열자), 회심곡(소릿조),탑돌이

◆ 수록시간 : 25시간 07분
◆ MP3용 : CD1장 + 고급우단 케이스 가격 = 25,000원
◆ 일반CD용 : CD23장+휴대용 CD자켓 가격 = 60,000원



부처님의 말씀은 수 많은 경전으로 엮어져 무량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세계를 다시 이 작은 CD로 감히 엮어 선을 보이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충고와 지도를 바라며 부디 이 「불경대전집」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MP3 CD 1장
컴퓨터,DVD,MP3CD 플레이어 용

은행계좌 : 제일은행186-20-017075 예금주 : 홍선희

티비에스시(TBSC) www.tbsc.co.kr T.3274-1198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16-58 용산전자 0/T1116호

다시 보는 화제의 신간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명리학 용신분석 기초를 모아 핵심만 정리!
알기쉽게 풀이한 교과서적인 한국 최초의 역학 지침서!

필자는 어느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주 속에 이것만 있으면 한평생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방법은 용신을 모르고도 운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이점(利點)이 있다.

이책의 특징
● 삼대(三代) 복신 개념 도입
● 주용신(제1용신)과 부용신(제2용신) 개념 설정
● 격(格)은 월령의 본기만 인정한다.

이선종 지음 / 사륙배판 / 484쪽 / 정가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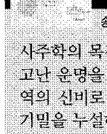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훤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숫자로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 숫자와 숙명
- 자동차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집 · 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번호 숫자와 사주필자
- 부동산(집 · 땅 · 가게 · 사업장) 금액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 · 교제 · 결혼 · 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해광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416쪽 / 정가 12,9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최근 이혼률 급증!
당신의 사주팔자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입금계좌 : 390-04-150044 조홍은행 예금주(소광호)

일주문



아도 스님 다례제

구미 도리사 주지 법등 스님은 10월 1일 아도 스님 다례재 및 '법음의 종' 타종식, 아도 스님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봉은사 회주 추대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은 9월 23일 열린 중앙승가대 운영위 회의에서 서울 봉은사 회주로 추대됐다. 추대식은 10월 5일 봉은사에서 열린다.



보살계 수계법회

김천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은 10월 13일 오전 10시 만덕전 금강계단에서 직지사 회주 녹원 스님 등을 계사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영산재 및 예수재 봉행

대구 대성사 주지 정산 스님은 10월 9~11일 3일동안 무형문화재 50호 영산대재 및 예수재를 봉행한다.(053)624-0542



태고종 충북교구 신도교육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월담 스님은 10월 22~23일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에서 정기 신도교육을 실시한다.(043)265-7100



봉정암 성지순례

서울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은 10월 1일 서초경찰서 불자회원 40여명과 함께 삼보사찰 순례길을 떠나 설악산 봉정암을 참배했다.



경북불교대학 입학식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장 돈관 스님은 9월 25일 설법전에서 18기 200여 명 주·야간 대학생 입학식을 거행했다.



동화사서 동양화 전시회

대구 동화사 전 총무국장 재윤 스님은 9월 28일~10월 8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동양화 작품 64점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해인사 강원의 추억을 그렸어요"

'아름다운 기억' 주제 전시회 여는 원성 스님

영국에서 유학중인 동승의 화가 원성 스님(사진)이 9월 26일 잠시 귀국했다. 시드니 난티엔뮤지엄(10월9일~12월31일)과 멜버른 포광위앤갤러리(내년 1월6일~3월31일)에서 '아름다운 기억들(Beautiful Memories)'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 홍보차였다. 스님은 이번 두 전시회에서 동자승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런던에서 화인 아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학중에는 주로 해외 전시에 치중할 예정이고 국내에서는 6년 뒤에나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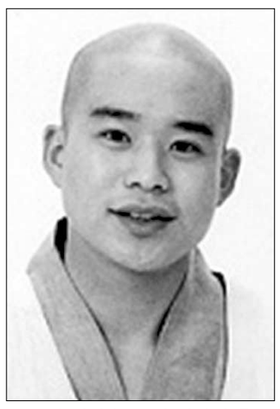
원성 스님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2년전쯤 일이다. 당시 동자승 그림과 시를 함께 엮은 <풍경> 책 출간과 모 인터넷회사의 텔레비전 CF 출연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며 유명세까지 치르고 있었다. 하지만 스님은 '수행자의 길은 이게 아닌데' 하며 2003년 홀연히 영국으로 미술공부를 위해 걸망을 지고 떠났다. 이후 잠깐씩 한국에 다녀간 적은 있지만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에서 제일 그리웠던 것이 바로 절의 대중생활이었어요. 특히 해인사 강원에서 200여 명 스님과 함께 생활했던 아름다운 기억들은 잊을 수가 없더군요. 그 그리움의 갈증을 이번 작품들 속에 담아 냈습니다."

스님은 지금 영국에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수묵 담채 기법에서 벗어나 유화풍으로 동자승을 표현하고자 변신중이다. 대대적인 화풍의 변신 유효 기간을 스님은 유학이 끝나는 6년 뒤로 잡고 있다. 또 내년에는 <꽃비>라는 제목의 동화책도 출간할 예정이다.

"2년 전 수경 스님과 함께 서울 역에서 조계사까지 삼보일배(三步一拜)를 했어요. 그때 머리에 흙을 묻혀본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전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바닥이었죠. 그때 환경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에다 어린이들에게 환경문제를 일깨워 줄 수 있는 동화책을 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원성 스님은 "당분간은 해외 전시와 공부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호주 전시회 준비를 위해 9월 28일 출국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지거 스님 서울시노숙인시설협 회장에



9월 22일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열린 서울시노숙인시설협의회(이하 서울노숙시설협) 창립총회에서 2년 임기의 초대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된 지거 스님(사진). 불교계 노숙자 시설인 서울 '보현의 집'을 이끌어온 스님은 노숙자 인권 보호에 앞장 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80여 개 노숙인단체가 소속된 서울노숙시설협회장으로 활동할 지거 스님은 "이번 기회에 불교복지 위상을 한층 높이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노숙자들에게는 시설 프로그램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합니다.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일경 스님 환경운동가·인권상 수상



일경 스님(서울 삼광사 주지·사진)이 9월 24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수여하는 환경운동가상과 국민연대 산하 삼청교육진상규명위원회에서 표창하는 인권상을 동시에 받았다.

스님이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3년여 전. 국민연대 불교분과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스님은 서울본부의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위원회를 통해 사건의 어두운 일면에 관심을 갖게 됐다.

작년 11월에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달래는 노제를 올렸다. 또 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수차례의 장외집회를 가졌고 국회의원 방문단을 구성해 요구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조직 정비해 활동 폭 넓힐터"

연합포교사단장 차은산 포교사



신임 연합포교사단장 차은산(51·사진) 포교사는 10월 8일 김제 금산사에서 진행될 취임식을 앞두고 연합포교사단의 '힘'이 되기를 자처하고 나섰다. 불교 포교에 전적으로 투신한 것이 3년여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차은산단장. 그러나 불교 포교에 대한 열정과 지난해 동산불교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보여준 사업 능력 등을 다른 연합포교사들로부터 인정받았기에 신임 단장이 될 수 있었다.

우선 전국 15개의 불교대학이 함께하고 있는 연합포교사단의 연대관계 구축과 연합포교사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차단장의 가장 큰 고민이다. 그래서 차단장은 "연합포교사들의 포교 활동을 독려하고 조직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현재 11개로 나뉘어져 있는 분과를 6개 분과로 개편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모든 연합포교사들이 저를 도와주실 것이라 믿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젊고 역량 있는 연합포교사의 활동을 기대해주십시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여래종 총무원장 법우 스님 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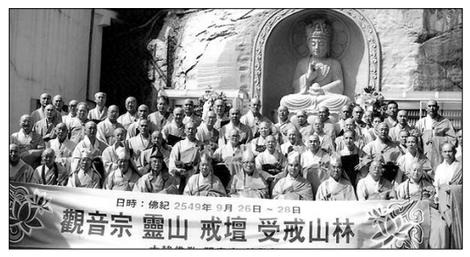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월봉당 법우 스님이 9월 27일 저녁 평택 용호사에서 입적했다. 영결식은 10월 1일 용호사에서 봉행됐고, 다비식은 여래종 총본산인 옥천대약사사에서 거행됐다.

법우 스님은 1965년 인왕 스님을 은계사로 출가, 평택 용호사를 창건하고 대승불교여래종 총무원장을 4대째 역임했다.(031)691-6272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태허 스님 탄신 101주년기념 수계법회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9월 28일 서울 묘각사에서 개산조 태허 스님 탄신 101주년 기념 영산계단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또한 관음종은 9월 26~28일 묘각사에서 연수교육과 승과고시를 실시했다. 52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50명이 비구·비구니·사미·사미니로 새롭게 탄생했다.

민추본, 대북지원 물품 상차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는 9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할 3억 50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 600여 상자 상차식을 진행했다. 지원물품은 전국 90여개 사찰에서 보내온 비누, 치약, 칫솔, 의류 등으로 10월 초순경 조불련까지 보내진다.

광주 서부경찰서 불교회 수계식



광주 서부경찰서 불교회(회장 김창배)는 9월 24일 광주 향림사(조실 천운)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서부서 불교회원 20여 명은 조계종 대종사 천운 스님(대흥사 조실)을 계사로 재가 오계를 받았다. 수계식에 이어 서부서 불교회는 향림사에서 보육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금일봉을 전달했다.

광주 원각사 동구청에 성금 전달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 9월 20일 동구청을 방문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주지 도제 스님은 유태명 동구 청장실에서 성금을 전달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성금은 9월 3일 원각사 선우회가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개최해 마련됐다.

대원불교대 추계체육대회



대원불교대학(학장 허경구)은 9월 25일 김천 봉계초등학교에서 추계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허경구 학장을 비롯한 불교대학과 대학원생 200여 명은 피구, 족구, 2인 3각, 줄다리기, 장기자랑 등의 실력을 겨뤘다. 부산대원불교학팀이 우승하여 트로피와 상금을 가져갔다.

「대한불교 조계종」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헌에, "본종은 신라 헌덕왕 5년에 조계혜능 대사의 증법손 서당지장 선사에게서 심인을 받은 도의 국사를 종조로 하고, 고려의 태고보우 국사를 중흥조로 하여 이하 청허와 부휴 양법맥을 계계승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계宗祖 도의국사 님께 참배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설악산 진전사

초조 달마 에서 도의국사 까지 조계종 신비의 설악산 "진전사" 에서 만나보세요


하사지(下寺地)발굴구역 전경


진전사지 출토 청동여래입상


진전사3층석탑(국보122호)



도의국사부도(보물439호)


500여년만에 복원된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가 주석했던 진전사

조계宗祖「도의국사」의 천년 숨결이 있는 「조계종찰」 진전사가 500년만에 발굴 복원되었습니다

찾아오시는길
- 영동고속도로-강릉-양양방면-양양장산리-석교리-둔전리
- 중부고속도로-홍천IC-인제-속초-양양물치-장산리-석교리-둔전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산 37
011-545-2375, 016-358-8084



불자 세상보기

한 갑 조

위덕대 외식산업학부 교수

김치에 버무려진 '인과'

우리식탁에 오르는 먹을거리 문제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요즘, 시골에 살면서 두부 한모에 따라 나오는 넉넉한 김치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다행임을 느끼고 있다.

경주와 포항 사이의 조그만 산골 마을이기에, 어느곳을 가더라도 아주머니가 내어 주는 김치에 납이 들었을까 하는 의심은 하지 않는다.

건너 편 마을에 있는 식당은 김치에 검은 빛깔이 나는데 감칠맛이 난다. 또 다른 집은 김치의 붉은 빛이 아주 곱다. 아직도 내가 사는 이 작은 동네에는 이집 저집 김치 맛이 달라 식객들은 맛을 논하곤 하지만, 이제 서울의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마음이 앞설 것 같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김치도 이미 중국산이 점령해 버렸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1㎏의 김치에 0.3㎎의 납이 들어있는 중국산 김치를 자신도 모르게 먹어 왔다. 납은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에 이상을 주는 등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중금속이다.

국내에 시판되는 김치의 15%가 중국산이라고 한다. 중국산 김치 1㎏에 1000원인데 한국산은 3000원이라면 수익을 남겨야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산 김치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것이 훨씬 매력적이다.

중국산 김치에 납이 많은 것은 수년 전에 조기에 납을 넣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제조자에 악의가 있었다가 보다는 좀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하는 한국쪽 수입업자와 이들의 수입업체를 관리 감독해야할 정부당국의 무관심이 주범이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산 김치는 당분간 수입이 잠시 주춤하겠지만, 사람들의 기억이 흐려지는 시점이 오면 다시 늘어날 것이 뻔하다. 생산과정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유통과정을 심각하게 다시 점검해야 한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김치가 한국에 들어오면 납이 문제가 되지만, 일본에 들어가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일본 사람들은 생산에서부터 중국에 들어가 현지에서 철저히 관리 한다고 한다. 중국산 김치를 중국에서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정부당국이 수입식품의 검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도 인과(因果)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어리석은 이기심을 앞세우기보다 인과의 무서움을 깨닫고 바로잡으려는 의식의 변화가 절실하다. 중국산 김치를 들여와 1㎏에 2000원을 남기지 말고, 1000원 정도 남기려고 한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최근 개강법회를 위해 학교를 찾았던 진각종 혜정 종사님도 법문을 통해 "내 앞의 밥상에서 인과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다. "부엌에서 밥을 만드는 사람이 일부러 밥을 덜 익게 하고, 된장찌개를 맛없게 만들려고 하겠는가, 내가 그 정도의 밥상을 받을 인(因)을 지은 결과다"라며 좋은 인연 지을 것을 강조해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 사람들이 먼저 김치를 생산하는 중국인에게 좋은 인을 만들지 않았으니 당연한 업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치 1㎏에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을 들인다면 우리식탁에 오를 김치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훌륭한 김치가 될 것은 뻔한 이치다. 물론 경제적인 정확한 수치의 이익이 계산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수입업자들도 1㎏에 1000원의 이익이 고마움과 함께 돌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바꾸어 보면, 생산자나 수입자나 판매자나 소비자가 불법의 가르침에 따라 좋은 인을 지으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우리의 김치 맛을 돌려주지 않겠는가!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 중앙신도회에 첫 여성 회장이 추대된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한국불교 앞날의 여러 가지 긍정적 조짐 가운데 하나라 믿고 싶다.

추대된 김의정 회장은 모태불자로서의 돈독한 신행생활은 물론,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7호 궁중다례의식 보유자인 '차인'이다. 이런 탄탄한 전통성과 함께 세계와의 교류를 위해 필요한 국제성도 갖추고 있다.

창립 50주년이 된 올해를 중앙신도회에서는 '회향 50년, 정진 50년' 으로 규정짓는다. 나름대로의 성과를 지니고 있는 반 백년을 회향하고 다시 반 백년의 정진을 다짐하는 시점에 새로운 성장 동력에 걸맞는 여성지도자를 추대했다는 것이 순리라는 느낌이다.

"임기 중 반드시 신도회관을 마련하고 재정자립에 진력하겠다"는 김 회장의 첫 다짐에서 우리는 50년 역사를 지닌 중신회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다.

중앙신도회 여성회장 1호

곡절 많았던 역사는 있으되 물질적 정신적 인적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해 왔다는 현실이다. 재가자들의 신행공동체를 조직 활성화하는 일이며 불우한 이웃에 대한 관심, 화합하는 사회, 통일문제, 환경, 생명문제, 한국불교의 세계화 등 신도회가 앞장서 해야 할 일들이 변변한 신도회관 하나 없이, 재정자립 없이 가능하기나 한가?

또한 중신회는 정치권력이나 사회적 여러 영향에서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해야 하며, 종단의 종지 종통, 부처님과 원로 대덕스님의 가르침에 소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면 종단 안에서 조차 자주성을 지녀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로 실천하는 신행공동체와 새로운 신행문화 확립을 위한 첫 과제는 재가불자 교육이다. 지역이나 직능별 신행단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중신회의 기본틀을 짜고, 그 힘을 높여 나가는 일도 우선해야 할 일이다.

김 회장의 추대에는 이밖에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숙제로 던져져 있다.

사부대중, 승가 공동체 전체의 화합을 이끌어 내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지혜롭게 풀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한다.

■김징자(칼럼니스트)

조계종 총무원장 이런 사람을 바란다

10월 31일 치러질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통한 종단의 화합을 바라는 종단 안팎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종단 내 오피니언 리더들이 밝히는 새 총무원장의 기준과 바람을 들어본다.

종단 화합 · 정체성 살리며 적극적인 포교 · 사회활동 필요

○… 법장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맡는 등 복지 원력을 많이 세웠었다. 신임 총무원장도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불교계에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복지분야가 많이 있다. 승려노후복지부분도 시작단계다. 前 총무원장 스님의 원력을 이어받는 것은 물론 이런 상황들을 잘 규합할 수 있는 분이 총무원장이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복지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며 길러진 복지 마인드를 갖춘 분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 성운 스님

○… 제방의 어른스님들이 계신데 선방에 있는 사람이 감히 뭐라 말하기 부담스럽다.

수좌들은 선거라는 세속법으로 종단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내놓았었다. 물론 합의추대가 바람직하다는 수좌들의 의견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수좌들이 어떤 입장을 드러내 놓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무엇보다 종단의 정체성을 살리는데 힘써나갈 분이 총무원장이 되어야 한다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

백담사 무금선원장 신용 스님

○…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화 문명의 발전으로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춰 승단이나 승단 바깥으로도 '열린마인드'를 가진 스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폐쇄성을 벗고 사회가 원하는 불교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이끌어 줄 스님이 총무원장이 되기를 바란다. 덧붙여 후보로 나오시는 스님이나 선거권을 가진 스님들 모두 수행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회장 종석 스님

○… 개인적으로 강원을 나온 뒤 동국대를 다니면서 대학생 포교에 대한 심각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동국대 석림회가 20여 개 대학에 법사단을 파견하고 있지만 불교학생회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여태껏 총무원은 대학생포교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불교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늘고 있지만 종단은 이러한 호기를 활용할 준비가 너무나 미흡하다. 이제는 종단차원에서 적극 나서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나서야 한다. 이를 종단 정책에 반영하고 추진할 수 있는 총무원장을 기대한다.

동국대 석림회장 일진 스님

○… 종단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불교종단은 투명한 운영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일반사회의 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총무원장이 될 스님은 바로 이 점을 중심으로 삼아 종단 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또한 스님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화합할 수 있도록 원융화합으로 이끄는 것은 총무원장이 될 스님이 꼭 해야 할 일이다.

행원문화재단 주영운 이사장

○… 수행자로서의 본래면목에 충실한 분이길 바란다. 우선 행정과 섭외에 능해서 종단살림을 살뜰하게 꾸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상 중요한 덕목은 청정함과 수승함이다. 그러한 바탕위에서 생활 속의 불교, 청년들이 중심인 불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무행정에 반영하는 어른이길 기대한다.

불교TV 조재룡 사장

○…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은 수행과 학문과 덕망을 갖춘 분이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분이 되어야만 불교계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자타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분으로서 선거보다는 추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사회에 대한 인식도도 높은 분이어야 할 것이다.

불교출판인으로서 바라고 싶은 것은 '전국의 모든 사찰에 의무적으로 도서실을 설치하도록 해 줬으면 한다.

불자들이 사찰에 갈 때마다 좋은 불서를 읽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도 신도 교육과 포교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불교출판문화협회 윤창화 부회장

○… 과도기적인 상황인 만큼 다음 총무원장은 전륜성왕 같이 훌륭하게 사회를 다스리고 통합할 수 있는 분으로 선출되기를 바란다. 특히 역대 총무원장들이 종무행정위주 정책으로 종단의 내실을 다지는데 앞장섰다면, 새로 선출되는 총무원장은 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포교에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

법장 스님이 생명나눔실천운동을 널리 퍼트려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재고했듯이, 앞으로도 불교계가 적극적인 대사회운동을 통해 사회 속에 불자상을 정립해야할 것이다.

조계종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

○… 종단에 두루두루 추대를 받아 평화로운 방식으로 선출되고, 선출된 뒤에는 종단 내 모든 스님들이 승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런 만큼 새로 선출되는 총무원장 스님은 평소의 행동에도 한 점 흠이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해서 모든 의혹을 종식시켜주는 모습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 사회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있어서 조계종 내의 각종 산하단체 및 재가사회단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종무원들을 감싸 안고 사부대중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스님이기를 발원한다.

대한불교청년회 김익석 회장

○… 법장 스님이 노력했던 것과 같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종단의 새로운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비구니스님을 종무행정에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재가불자들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스님이면 좋을 것 같다.

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김희욱 원장

(무순)

'현대' 만평 심 민 섭



위기를 정진의 기회로! 종단의 발전을 위해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 창립법회"에 참여합시다.

금번 총무원장 선거를
종단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모습으로 치러내기 위해 젊은 스님들이 뜻을 내었습니다.

종단의 어른스님들을 모시고 금번 선거를 승가의 전통에 맞게 대중의 뜻을 잘 모아내는 발전적인 모습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 승가 대중이 대중을 향해 스스로 약속하는 서약서에 서약하는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어른 스님들의 지도와 젊은 승가의 정진의 힘으로 다시 한 번 한 단계 성숙되는 종단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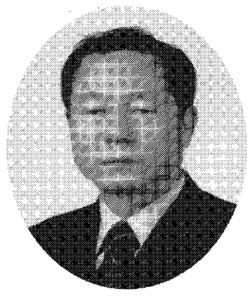
◆ 이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서약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모든 승가 구성원이 서로서로에게 좋은 선거 분위기를 만들자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모든 대중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 다 함께 창립법회에 동참함으로서 종단의 발전에 참여 합시다.

◇ 일 시 : 2005년 10월 7일 금요일. 오후 4시 ◇ 장 소 : 조계사 설법전

● 준비위 : 위원장(금강) 서명홍보준비팀장(종선) 교육정책준비팀장(원명) 감시팀장(희문) 사무팀장(하림) 외 30여명의 스님
● 연락처 :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
● 장 소 : 조계사 신도회관 3층, 전화 02)732-8463~4 / 팩스 02)732-8465
● 홈페이지 : www.seungga.org 이메일 seungga@seungga.org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 창립준비위원회

"운명"을 읽고 나면 대운(大吉)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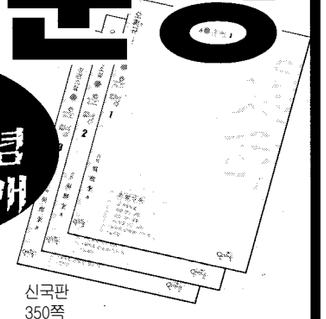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건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21세기형 청정 지장기도도량 보금산에 자리잡아

경기 여주 백화사

3만 지장보살 봉안 계획…주말수행 인기
지장전 천장 티베트 만다라 화려하게 장엄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인 경기도 여주 보금산 한가운데 현대인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편히 가라앉히기 위한 '초현대식 도량'이 들어서고 있다. 청정수월 지장기도도량 백화사(주지 정왜).

백화사의 특징은 '21세기형' 도량을 지향했다는 것. 한국 전통사찰이 목재를 주로 이용한 목조건물이라면 백화사 대웅전은 마치 파리의 유명 오페라하우스처럼 천연 화강암이 사용해 지어진 석조건물이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감탄을 자아내는 백화사의 대웅전이 보금산 중턱에 우뚝 서, 자신을 돌아볼 사이도 없이 바쁜 삶은 사는 현대인들을 반갑게 맞고 있다.

최근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된 후부터는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한 번씩 찾아와 하룻밤을 묵으며 수행과 기도를 하는 불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장전 앞에 위치한 부도탑.


육지장 보살상이 우뚝 서 있다.

천연 화강암을 사용해 지어진 오페라 하우스 형식의 대웅보전.


불사가 진행중인 지장전.


백화사 대웅보전 법당.

2대에 이은 신심 창건 동력

첫눈에도 여느 보통사찰과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백화사가 창건된 것은 특별한 인연을 만났기 때문이다. 주지 정왜 스님은 그 사연을 조금씩 털어놓는다.

"송광사 등 제방선원을 돌며 수행에 전념하던 수좌인 제가 8년 전 우연히 불교방송 라디오법문을 하게 됐어요. 그 때 신심 깊은 70대 거사님이 방송을 듣고 자꾸 만나기를 청해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사는 스님에게 시주를 할 테니 사찰 하나를 지어달라는 부탁을 해 왔다. 한참 선원에서 수행을 하던 정왜 스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려니 하고 거사의 제안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연을 다한 거사는 세상을 떠났다.

"조금 지나서 거사의 아드님이란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친의 유언을 받들기 위해 사찰을 건립하고 싶다는 거예요."

거사는 '첫째 대웅전 외부를 파리 오페라극장 같이 지어 달라' '둘째 명부전을 건립해 3만 지장보살을 모셔달라' '부도탑을 세워 자신의 직계가족 유골을 봉안해 달라'는 것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정왜 스님은 거사와 아들의 신심에 크게 감동했고 그 자리에서 불사를 맡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3년 동안 스님은 전국을 누비며 적당한 사찰부지를 찾았다. 그러다가 현위치인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도전 2리에서 연화지 형상의 명당을 발견하고, 2003년 6월 잣나무 백(栢) 꽃 화(華)란 이름을 짓고 공사의 첫 삽을 떴다. 공사 책임도 거사의 아들이 맡았다. 대웅전과 지장전 요사채 수행관 등이 잇달아 모습을 드러냈다.

화려한 석조 대웅전, 불자들 발길 붙잡아

대웅보전으로 발길을 돌려보자. 대웅전의 첫 인상은 웅장함 그 자체. 100평이 넘는 넓은 법당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여러 부처님이 기도객을 맞는다. 닫집도 정성을 다해 장엄하면서도 한층 멋을 내 여법하게 조성됐다. 특히 법당 천장에는 티베트 만다라의 꽃이 활짝 폈다. 누구든 들어서는 순간 옷깃을 여미게 된다.

대웅보전 우측에는 전통양식의 요사채가 건립돼 있다. 바로 밑으로는 13개의 방사를 갖춰 50여 명이 동시에 머물며 수행과 기도를 하는 수련시설이 들어서 있다.

대웅보전 좌측 산자락에는 지장전이 건립돼 있다. 이 안에는 시주자의 당부에 따라 3만 지장보살들이 봉안되고 있다. 지장전 천장에도 티베트 만다라가 화려하게 장엄돼 있다.

백화사의 불사는 아직 절반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장전 우측 언덕에는 동양최대의 아미타 부처님이 조성되며 그에 앞서 육지장보살상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서 있다. 지장전 앞마당에는 시주자와 직계가족의 부도탑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는 평생 어렵게 모은 돈을 아낌없이 시주한 신도의 보시공덕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일반인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정왜 스님은 백화사를 주말 산사체험과 명상수련회를 통해 '참나'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보금자리로 개방할 계획이다. 불교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타종교인도 사찰을 찾아 다이어트 수련회, 요가, 명상 등을 하는 수련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이유는 오랫동안 송광사 등지에서 수련회 법사로 활동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매주 1회 서울대학교 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금강경>을 비롯해 <선가귀감>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백화사는 여주의 문화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백화사 주변에는 온가족들이 함께 현장체험을 할 수는 목아박물관과 여성생활사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다. 정왜 스님 이런 입지조건을 백프로 이용, 여주의 각종 관광산업인 골프장, 도자기엑스포 등과 연계를 통해 백화사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불교 유적인 고달사지와 온천도 인근에 있어 1박 2일 여행코스로도 적당하다.

또한 정왜 스님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회활동(어린이 한문교실, 소년소녀 가장 돕기, 무의탁 독거노인 돕기, 장학금 지원 등)등을 통해 사찰과 지역민들이 어우러지는 중심도량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왜 스님은 "백화사 창건 불사를 통해 수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씻어주고 함께 나누며 신도들과 희로애락을 같이하는 사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찾아오는 길 여주IC에서 10분을 여주 쪽으로 달리면 강천면 '케슬파인 골프장'이 보인다. 그 길을 바로 넘으면 좌측으로 보금산 산언저리에 도착하고 좌측 길을 오르면 거대한 석축을 층층이 쌓아 불사를 하고 있는 백화사에 이른다.

(031)886-0435~6



영원한 유골 안식처 '그린함'

진공처리로 부패 · 악취 · 벌레 안생겨

'그린함'은 고인의 유골을 모시는 봉안함이다. 기존의 봉안함에 결로현상 때문에 유골이 썩거나 악취를 풍기고 심지어 벌레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그린함은 진공한 다음 실리콘 팩으로 입구를 봉인하고 질소를 충전해 유골의 부패와 악취를 영구히 막을 수 있는 내함과 도자기를 구워 만든 외함으로 구성됐다. 외함은 영구히 녹이 쓸지 않는 알루미늄과 규소의 특수성분으로 만들어진 도색을 했다.

양방향 체크밸브를 사용해 진공과정과 질소충전을 하나의 밸브로 처리했다. 세라믹 필터는 진공시 유골반출을 막고 원적외선을 방출해 내부신선도를 유지한다.

그린함이 개발된 이유는 평생 모은 재산을 시주한 신도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서다. 정왜 스님은 시주자의 유골을 영구히 부도탑에 봉안할 수 있도록 전문함 개발업체에 의뢰해 '그린함'을 제작, 실용신안등록과 의장등록을 마쳤다.

화장율이 이미 6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지만, 유골의 부패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 기존 시설들은 냉온풍기, 습도조절기, 환풍기 등 장비를 이용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완벽한 밀폐로 산화와 결로현상과 부패로 인한 악취발생을 예방함으로서 지금까지의 봉안함이 가진 문제점을 깔끔하게 해결했다. 그린함은 유골을 가정에서 모실 수 있을 만큼 청결함과 외형의 세련됨을 갖추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총림 송광사 말사 백화사
전화 : 031-886-0436 Fax 031-886-0437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도전 2리 1165-2

제품문의
(주) 뉴 그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40-4
전화 : 031-416-2088 Fax 031-407-9444

인 터 뷰 / 백화사 주지 정왜 스님

"삶에 지친 이들 참나 찾는 도량"



"2대의 걸친 불심으로 세워진 청정도량에서 세상 번뇌를 깨끗이 정리하고 참나를 찾는 불연을 얻기 바랍니다."

8년 전 한 신심 깊은 불자와 맺은 인연으로 경기도 여주에 수월청정 지장기도도량 '백화사'를 창건하게 됐다는 정왜 스님(사진). 스님은 최근 육지장보살 조성불사를 마치고 영탑 조성과 3만 지장보살 봉안불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님은 불사를 진행하기 위해 편한 법복차림으로 이곳저곳 공사현장을 누비고 있지만 형형한 눈빛을 가진 전형적인 수좌다.

정왜 스님은 "제방선원에서 수행정진하기 위해 출가했는데 인연을 맞나 이렇게 거대한 불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칠십 노구로 서원을 한 거사와 그의 아들의 효심에 보답하게 위해 최선을 다해 백화사 불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부자의 불심에 감동을 받은 정왜 스님도 3년 넘게 전국을 돌며 사찰 부지를 찾았고 마침내 2003년 여주 강천면 도전 2리 2만평의 부지가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눈이 녹은 자리가 있어서 보니 대웅전이 있을 곳이란 느낌이 확연하게 들었습니다."

더욱이 대웅보전 자리에 분묘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스님의 노고에 감탄하며 분묘 이장비만 받고 2만 평을 보시해 주었다. "당시 시세로 10억이 넘는 땅이었는데 선뜻 보시를 해주는 것을 보니 더욱 영험한 도량이 되리라는 감이 왔습니다."

정왜 스님은 이곳을 여주권을 대표하는 핵심도량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장도량의 면모를 갖추고 주5일 근무제에 부응하는 주말 수련법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

정왜 스님은 "백화사가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감로수 같은 기쁨을 주는 사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은한 풍경소리와 바람소리를 들으며 수련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길을 발견하길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무궁화 캐릭터를 타일, 벽지, 도장, 십자수 등에 새겨넣어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김영만 대표. 무궁화 캐릭터를 대표하는 '무궁돌이'와 '무궁나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무궁화 피면 사랑도 피죠"

한국고유문화콘텐츠진흥회 대표

김영만



독도지킴이 캐릭터 '무궁돌이'.

창조 도반의 기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옛 나라에 비춘 달아/ 쇠창을 넘어와/ 나의 마음 비춘 달아/ 계수나무 베어내고/ 무궁화를 심으과저….

망국의 한과 구국충정을 무궁화에 투영시킨 만해 한용운의 시조 '무궁화를 심으과저'다.

5천년 동안 우리 민족과 운명을 함께 해온 우리 겨레의 꽃 무궁화. 하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방치 되고 있는 것이 '무궁화의 자화상'이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 '무궁화 도안 제작 및 무궁화 보급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영만 한국고유문화콘텐츠진흥회 대표(43)다.

김대표가 무궁화 디자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는 1996년 여름이다. 꽃문양을 연구하기 위해 서점을 찾은 김대표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본 · 영국 · 대만의 국화인 벚꽃, 장미, 매화에 대한 도안과 이미지 관련 서적은 셀 수 없이 많은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궁화 도안집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

"정작 나라꽃이지만 무궁화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 보면 선뜻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구요. 무궁화를 도안해 새로운 캐릭터로 만들고 이미지화 시키면 누구나 쉽게 무궁화를 이해하고 관심과 사랑을 보일 것 같아 이 일을 시작하게 됐죠."

이때부터 김대표는 지하철을 탈 때도 무궁화 도안과 이미지를 스케치 했으며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도 무궁화 그리기에 온 정성을 쏟았다. 회사 직원들은 물론 선 · 후배 디자이너와 친분 있는 대학 교수 등을 만날 때 마다 무궁화를 응용한 도안과 캐릭터를 그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무궁화 도안과 캐릭터 그리고 이미지를 합치면 1만 2천 여점에 이른다. 나라꽃 도안하나 제대로 없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나라꽃 도안이 가장 많은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 도안 캐릭터 이미지 1만 2천여점
> '나라꽃 무궁화'로 청와대 전시도
> 사이버 100만 그루 심기 등 펼쳐
> 테마 동산 조성, 교육관 건립 꿈

그중 2002점의 작품은 1999년 산업자원부 선정 '제1회 한국 밀레니엄 상품'으로 뽑혔고 '나라꽃 무궁화 2002'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에 특별 전시되는 영예도 안았다.

상도 많이 타고 도안을 비롯한 이미지와 캐릭터는 날로 쌓여만 갔지만 실상 이런 작품들을 널리 알릴 곳은 오히려 마땅치 않았다. 고민 끝에 생각해 낸 것이 2000년 8월 15일에 맞춰 문을 연 무궁화 전문 웹사이트 '무궁나라(www.mugungnara.com)'다.

그때부터 김대표는 '생활 속 무궁화 보급'을 모토로 그 동안 제작된 무궁화 도안과 이미지, 캐릭터는 물론 무궁화 관련 정보 · 게임 · 이메일 · 칼럼 등 다양한 콘텐츠로 무궁화 알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무궁나라'의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사이트를 오픈한지 1년 만에 가입자는 10만명을 훌쩍 넘었고 대형 포털과 정보통신부 추천 사이트로도 선정됐다.

이처럼 김대표의 무궁화 알리기 운동은 순풍을 타는 듯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사이트를 운영한지 채 3년도 못돼 문을 닫아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비영리로 운영하다보니 사이트를 꾸려나갈 돈이 없었던 것이다. 비록 사이트 문은 닫았지만 무궁화 바로 알리기에 대한 김대표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다. 오프라인에서는 계속해서 무궁화 디자인을 연구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전통문화를 현대화할 사단법인 창립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한 호스팅 업체가 무료로 무궁나라 사이트를 호스팅



타일에 새겨진 무궁화 캐릭터들.

해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고 시인 김광림씨를 비롯해 미술계 인사들도 김대표를 돕겠다고 하나 둘씩 연락을 해왔다. 그렇게 해서 2003년 창단된 것이 바로 사단법인 한국고유문화콘텐츠진흥회다.

"무궁화 알리기에 더 박차를 가해야죠.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무궁화 심기 운동과 무궁화 도안이나 디자인을 활용해 무궁화를 우리 생활 속에 더 가깝게 하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품에 응용한다면 사회적으로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김대표는 자체 제작한 무궁화 도안이 그려져 있는 타일, 도장, 십자수, 석고상, 벽지, 뱃지 등을 자매결연한 학교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10년 동안 김대표가 이일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궁화를 사랑하는 '무궁나라' 회원들의 응원과 성원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강민음(15) · 김현우(17) 학생들의 무궁화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남다르다.

강민음 학생은 '무궁나라'에 마련된 '사이버 무궁화 심기' 코너에서 지금까지 2002그루의 무궁화 나무를 심었고 오프라인에서도 수 백 그루의 무궁화 화분을 분양했다. 또 각종 무궁화 디자인 공모전에서 상을 휩쓴 김현우 학생은 "식물에 관련된 학과에 진학해 무궁화를 연구해 무궁화 박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며 매일 같이 무궁나라 게시판에서 김대표와 함께 무궁화 얘기를 나눈다.

이처럼 팬들의 응원만큼이나 김대표가 그동안 펼친 무궁화 알리기 운동도 다양하다. 2001년 10월에는 만해기념관에서 열린 '무궁화 사랑 백일장'을 2002년 3월에는 중견 미술작가 33인이 그린 다양한 무궁화 작품 50여점을 선보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무궁화 동산에 100만 그루 무궁화 심기 운동, 무궁화 한글 이메일 보급, 사이버 무궁화 박물관 운영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

'무궁화 지킴이' '무궁화 박사' '무궁화 아저씨' 등 다양한 애칭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호칭은 자신에게 과분하다고 손사래를 친다.

"사재를 털어 무궁화 품종 개발과 연구에 평생을 바친 유달영 박사님 같은 분에 비하면 부끄럽습니다. 무궁화 디자인을 개발하고 무궁화를 심는데 만 그치지 않고 무궁화에 담긴 정신과 민족의 얼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김대표는 2008년까지 각 지역에 무궁화 테마 동산을 조성하고 무궁화 교육관 건립 및 무궁화의 날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원대한 꿈을 세우고 있다. 단기 4338년 개천절을 맞아, 나라사랑의 상징 무궁화에 대한 김대표의 가이없는 사랑은 무궁화에 무관심한 우리들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글=노병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외국 위빠사나 고승들이 몰려온다

서양의 위빠사나 열풍을 주도해온 스리랑카의 구나라타나, 미얀마의 아친나, 우 자띨라 스님 등 위빠사나 외국 고승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한다. 그간 띄엄띄엄 방한했던 것을 감안하면, 눈여겨 볼 일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위빠사나 수행법과 남방 상좌부 불교의 국내 소개가 늘면서, 이들 외국 고승의 한국 나들이는 '위빠사나 수행법 수입국'의 지위를 갖는 국내 위빠사나 수행단체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럼 이들의 방문이 국내 위빠사나 수행단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서울 홍원사(회주 원명)와 한국위빠사나선원(원장 묘원)이 마련한 '외국 고승 초청 집중수행 프로그램'과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알아보자.



사진은 지난해 안성 황룡사에서 열린 법회에서 구나라타나 스님이 수행자들과 문답하고 있는 모습.

미얀마 · 스리랑카 스님 초청법회 잇따라
수행법 다양화 · 수행풍토 진작 기여할듯

 # '위빠사나 원류' 체험의 장 마련

먼저 서울 홍원사가 마련한 행사의 특징은 '입출식념(入出息念:수식관)' 집중수련회와 국제학술대회. 미얀마 파욱 사야도 계통의 위빠사나 수행법이 국내에 알려진다.

<청정도론>의 40가지 수행주제를 '사마타(정신집중)'로 수행하는 파욱 사야도 위빠사나 수행은 '입출식념'을 통해 몸의 32가지 구성 부분과 뼈 등을 관찰하고, 이후에 정신을 관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행사는 또 <입출식념경>과 그 주석서에 나타난 호흡관에 대해 공부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현재 수행전통에서 실제 적용되는 예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수행을 통한 체험의 장도 마련돼, 위빠사나 호흡관의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배울 수 있다.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스리랑카 미얀마 출신의 고승들이 직접 집중수행지도에 나선다는 점이다. 스리랑카 반테 구나라타나 스님이 10월 20일~26일, 미얀마 파욱 아친나 스님이 10월 30일~11월 3일, 태국 붓다다사 스님의 제자인 미국 산티카로 법사가 11월 4일~11월 7일 각각 서울 홍원사에서 집중수련회를 진행한다. 국제학술대회는 10월 30일 오전 10시~오후 6시30분 법당에서 개최된다. (02)2658-3100. www.santisukha.org

홍원사 회주 원명 스님은 "이번 행사는 초기불교경전에 입각해 수행지도하는 미얀마 스리랑카 고승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며 "그간 한국불교계에서 남방불교를 소승불교로 낮춰보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위빠사나선원은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서울 강남 선원에서 미얀마 마하시 선원의 우 자띨라 스님을 초청,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어 11월 12일~20일에도 경북 영주 현정사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집중수행의 특징은 마하시 사야도 계통의 순수 위빠사나 수행자인 우 자띨라 사야도 스님이 한국 수행자를 1:1로 지도하는 점. 관찰대상에 '명칭붙이기' 등을 통해 알아차림을 강조하는 마하시 사야도 위빠사나 수행을 경험할 수 있다. (02)512-5255

한국위빠사나선원장 묘원 법사는 "위빠사나 외국 고승의 한국 방문은 수준 높은 법문과 집중수행지도를 함께 받을 수 있어, 그동안 수행에 망설였던 초심자들이 위빠사나 수행의 참맛을 맛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위빠사나 수행 흐름은?

위빠사나 수행 전문가들은 국내 위빠사나 수행단체가 마하시 사야도 계통에 몰려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위빠사나 수행이 한 쪽 방향으로 편중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전문가들은 위빠사나 수행단체 10곳 중 9곳은 마하시 사야도 계열을, 나머지 1곳은 레디 또는 파욱 사야도 계열이라고 분석한다.

마하시 사야도 계열은 순간적 정신집중, 즉 사마타를 통한 찰나삼매를 거치지 않고 지혜로 곧바로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는 위빠사나 수행법이다. 레디 사야도 계열은 소의경전인 <대념처경>에서 몸의 움직임(身), 느낌(受), 마음의 움직임(心), 생각의 대상(法)의 사념처(四念處) 가운데 수념처를 강조하면서 수식관을 병행한다. 수행자로는 인도의 고엔카 법사가 유명하다. 마지막으로 파욱 사야도 계열은 사마타를 강조한다.

현재 국내 20여 곳 위빠사나 단체의 수행흐름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도자들은 미얀마의 마하시 수행센터에서 지도받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선 1988년 국내에 위빠사나를 처음 소개한 거해 스님으로부터 위빠사나를 접한 한국위빠사나선원장 묘원 법사가 대표적이다. 레디 사야도 계통에는 고엔카 위빠사나를 위주로 지도하는 황용식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명상치료 전공)가, 파욱 사야도 계통은 봉인사와 정신세계원에서 위빠사나를 지도했던 김열권 법사 등이 있다.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가?

다소 주춤했던 국내 위빠사나 수행 열기에 다시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년 전부터 국내에 수행 붐을 일으켰던 위빠사나 수행은 지난해 초 조계사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 선원장 초청 법회', 올해 범어사에서 진행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설선법회' 등 잇따른 간화선 법회 개최로 정체기를 맞았다. 국내 위빠사나 수행이 활력을 되찾게 되는 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위빠사나 수행의 흐름이 다변화되는 기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미얀마 마하시 사야도 계통 위주의 수행에서 스리랑카 태국 등의 위빠사나 수행법이 국내에 소개되기 때문이다.

김재성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는 "현재 한국 위빠사나 수행단체들의 90% 정도가 마하시 사야도 계통의 위빠사나 전통에 따른 수행을 하고 있다"며 "위빠사나의 원형이 남아있는 스리랑카 위빠사나의 국내 전파는 수행법의 다양성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전망은 한국 위빠사나 수행단체 대부분이 미얀마 수행센터에서 그 전통이 비롯되는 현실에서 적지 않은 파급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행자들의 직접적인 수행체험 기회 및 수행법 선택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위빠사나 수행 대중화에 큰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국내에 '출입식념(수식관)'을 중심으로 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연방죽선원장 법주 스님은 "미얀마 마하시 전통의 위빠사나만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오늘날 한국 위빠사나 수행현실에서 파욱 사야도 계통 등의 위빠사나 소개는 수행풍토 진작과 체질개선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진단했다.

김철우 기자

국내 위빠사나 수행처

연방죽선원	(02)334-1763
미얀마선원	(02)3427-0087
반냐라마 선원	(02)597-2841
초기불전연구원	(02)391-8579
보리수선원	(02)517-2841
한국위빠사나선원	(02)512-5255
홍원사	(02)2658-3100
남양주 봉인사	(031)574-5585
제따와나 선원	(031)967-0511
천안호두마을	(041)567-2841
부산 백련사	(051)632-8488
태종사	(051)403-1207
여래선원	(053)744-9009
다보선원	(055)331-6118
한꽃위빠사나선원	(062)222-2841

'마음동산 꾸미기' 참선교육
우곡선원 서울 · 부산 16일까지

우곡선원(원장 장명화)은 29 · 30기 초심자를 위한 '마음동산 꾸미기' 참선교육을 10월 16일까지 서울과 부산선원에서 각각 실시한다.

서울 우곡선원은 10월 16일까지 매주 월 · 목요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씩 진행되며 △실상관법 △좌선과 호흡 △좌선실수 △선과 참삶 △우곡선기공 △참선입문론 △선과 21세기 △선입문의 예(禮) △특별행사 만행정진 등을 주제로 장명화 선원장과 선원 법사단이 지도한다. (02)2055-3111~2. 또 부산 우곡선원의 참선교육도 10월 16일 매주 화 · 금요일 오후 8시부터 2시간씩 진행되며 프로그램은 동일하다. (051)740-6288~9 www.zenkorea.org

위빠사나 고승 누가 오나?

서구 위빠사나 열풍 주도

스리랑카 **구나라타나** 스님



스리랑카 구나라타나 스님은 1968년부터 미국에서 35년 넘게 머물면서 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해오고 있는 수행자다. 교학을 중시하는 스님은 스리랑카에서는 '교학 제일'로 통한다. 47년 비구계를 받고, 위드야란카라 불교대학에서 전통불교교육과정을 마쳤다.

1968년에는 미국 워싱톤 D.C.에 건립한 미국 최초의 남방 상좌불교 사원인 워싱톤 정사를 중심으로 전법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71년 아메리카 대학에 입학해 80년에 '선정과 지혜의 길'이란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스님의 수행특징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것을 강조하는데 있다. 선정을 가르치면서도 위빠사나 수행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 위빠사나 수행단체와 인연은 2004년 홍원사 등의 초청에서 시작됐으며, 저서로는 <가장 손쉬운 깨달음의 길>, <마음챙김으로의 여행-반테 지의 자서전> 등이 있다.

남방 사마타 전통 되살려

미얀마 **파욱 아친나** 스님



미얀마 파욱 아친나 스님은 위빠사나 수행의 소의경전인 <청정도론> 수행법의 고수다. 1934년 양곤 동북쪽 힌타다에서 태어난 스님은 10살에 출가, '아친나'란 법명을 받고 사미가 됐다. 64년 양곤의 마하시 센터에서 마하시 사야도와 우 판디타 사야도의 지도아래 위빠사나 수행을 시작해, 66년 쉐테인도 사야도에게 3개월 반 동안 입출식념을 지도받았다. 그 이후 현재까지 24년간 파욱 숲속 수행처에서 경전연구와 수행지도를 해오고 있다.

아친나 스님의 수행 특징은 '사마타' 수행을 바탕으로 위빠사나 수행을 거쳐 열반의 체험에 이르기까지 수행지도를 하는데 있다. 때문에 사마타 수행을 닦고자 하는 수행자들에게 큰 매력이 되고 있다.

한국 위빠사나와의 인연은 대만에서 2개월의 집중수행을 지도한 법문집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한글로 번역되면서부터다.

한국에 위빠사나 첫 소개

미얀마 **우 자띨라** 스님



미얀마 우 자띨라 스님은 한국 위빠사나 수행자들 사이에서 고승으로 통하는 인물. 현재 스님은 미얀마의 마하시 선원에서 수행지도를 맡고 있다.

한국불교와 인연은 지난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산 승가사에 스님은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을 한국불교계에 처음으로 소개했다. 그 뒤에도 김열권 법사가 이끄는 한국위빠사나선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금까지 한국인 비구, 비구니, 재가 수행자 등 종교를 초월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1966년에 양곤 마하시 사사나 센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하시 선사에게 지도를 받은 우 자띨라 스님은 우 빤띠따 사야도에게 미얀마 전통 위빠사나 수행법을 배웠다. 현재 한국 위빠사나 수행단체의 절대 다수가 미얀마 마하시 선원의 수행전통을 잇고 있다. 저서로는 <큰스승의 가르침>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 등이 있다.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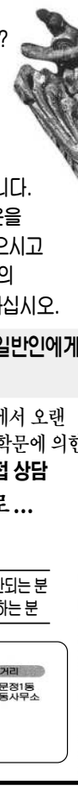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 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숨을 관하라!

김한용 선도수련원장에게 듣는 '마음호흡'

"부처가 쉬는 숨이나 중생이 쉬는 숨은 같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에요. 부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은 똑같아요. 마음호흡은 이런 원리를 깨닫는 수행법입니다."

김한용 대구 선도수련원장은 '마음호흡'의 원리를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원장은 자신의 '한마음'을 기(氣)의 흐름에 따라 느끼는 마음호흡이 자성자리를 찾는 선수행의 원리와 같다고 설명한다. 그럼 마음호흡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 9월 23일, 불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마음호흡법의 요체와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김한용 원장을 만나 물었다.



대구 선도수련원 회원들이 마음호흡의 3단계인 입선(立禪) 수행을 하고 있다.

▲마음으로 호흡이 가능한가?

-사람은 숨을 쉬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숨쉬는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마음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있다.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이 상대방과 소통이 가능해진다. 내 숨이 코를 통해 몸에 들어가 생명을 유지시키듯, 내 마음이 상대의 마음과 교류된다. 이것이 마음호흡이다.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소통되기에 마음으로 호흡이 가능하다.

▲마음호흡의 특징은 무엇인가?

-내가 쉬는 호흡을 통해서 내 기운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운이 변함에 따라 감정이 변하고, 또 감정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변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觀)함으로써 마음자리를 깨닫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은 호흡의 뿌리다. 마음호흡의 중심은 단전에 있다. 또 기의 흐름을 모르면 '수박 겉핥기'식 마음호흡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몸을 바로 봐야 한다. 몸이 살 수 있는 것은 3가지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숨을 쉬고, 말과 행동, 생각을 끊임없이 한다. 그 뿌리가 마음이다. 몸 전체를 도는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호흡은 이 같은 순환적 구조에 발전기 역할을 한다. 호흡이 근본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행법이 궁금하다

-와선(臥禪)은 누워서 하는 숨쉬기다. 하단전(下丹田:단전을 세 곳으로 나눌 때 아랫배에 해당하는 단전)에 힘을 축적하는 수행단계다. 누워서 기를 원활하게 불러들이는 단계다. 좌선(坐禪)은 와선에서 개발한 에너지를 운기(運氣:몸의 혈에 따라 기맥을 흐르게 한다)하게 한다. 입선(立禪)은 몸에 돌린 기운으로 얽힌 온갖 감정을 녹이고 다스리는 단계다. 마지막으로 심공(心功)에서는 모든 기운과 감정을 느끼는 단계다. 비유하면, 와선은 저수지(하단전)를 만들고, 좌선은 물을 가두면서 수로(몸에 있는 12가지 기맥)로 통해 논으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어 입선은 논에 있는 벼(中丹田)가 수로로 받은 물을 뿌리로 흡수해 자라게 하고, 심공은 벼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마음호흡 단계가 다분히 선의 원리와 유사하다. 마음호흡법의 원리가 선 수행에서 비롯된 것인가?

-선 수행과 다르지 않다. 마음(본성)을 다루기 때문이다. 단지 '운기법과 기맥에 대한 흐름을 느끼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곧바로 화두참구로 들어가느냐'가 마음호흡과 선 수행과 다른 점이다. 반면 유사한 점은 경전(經典)을 통한 수행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 수행이 '불립문자'를 강조하듯, 마음호흡도 교학 등의 경전공부를 강조하지 않는다. 운기법의 유무에 따라 선수행과 마음호흡법이 다르지만, 결국 마음호흡은 선 수행의 원리에서 비롯됐다. 왜냐하면, 마음호흡의 핵심이 자신의 '한마음'을 보게 한다는 점이 선의 원리가 맞닿아 있다. 한마음은 자신이 말하고 듣고 느끼는 그 중심이다. 선에서의 자성 불성 진여와 같은 개념인 것이다.

▲재가불자들에게 중요한 까닭은?

마음호흡은 모든 문제가 상대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비롯됨을 알게 한다. 즉 호흡이 바뀌면 기운과 마음, 감정의 상태가 잇따라 바뀌면서 상대에게 전달되는 마음자리를 제대로 알게 된다. 마음호흡이 그 과정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짚으며 들어간다.

내 감정과 기운을 알면, 상대방이 나를 욕하더라도 그 감정을 알게 된다. 그러면 욕하는 자체를 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 상대방의 마음 자체를 이해하게 된다. 결국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 수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상태가 된다.

글 · 사진/대구=김철우 기자

김한용 원장은?



경북 구미 출신인 김한용 선도수련원장(42 · 사진)은 20년 넘게 호흡법 관련 수행을 해왔다. 스승은 6~70년대 설악산 등 전국의 산을 운수납자처럼 수행했던 일대 산우 거사. '숨을 관(觀)하라'는 마음호흡법은 1980년에 원리를 바탕으로 김 원장이 주창했다.

현재 대구에서 14년째 선도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다.(053)636-2227

김원장에게 배우는 현대인을 위한 마음호흡법

우선 허리를 곧추 세워 가부좌 자세를 취한다. 양손바닥을 하늘 방향으로 양 무릎에 놓고, 마음을 집중해 양 손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 열감으로 우주의 기운을 안는다는 느낌으로 모은다. 기운이 압축된다는 느낌이 들면 머리끝에 모은 양손을 단전으로 끌어내린다.

김한용 원장이 강조한 이 마음호흡 동작의 핵심은 '화 다스림'에 있다. 현대인들은 늘 기의 흐름이 항상 정체돼 있어, 몸과 마음의 리듬이 깨져 스트레스를 달고 산다고 김 원장은 진단했다. 때문에 이 동작은 머리로 쏠리는 화(火) 기운을 밑으로 내리고, 배로 가라앉은 수(水)기운을 올리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10회 정도 반복하면, 막힌 기운이 원활하게 소통된다.



양손은 가부좌를 한 양 무릎 위에 하늘 방향으로 가볍게 놓는다.



양손이 뜨거워진다는 느낌으로 큰 공을 만들 듯이 기운을 모은다.



주먹 하나 공간으로 양손을 머리 끝에 모은다.



④머리끝에 모은 양손을 단전으로 끌어내린다.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Avatar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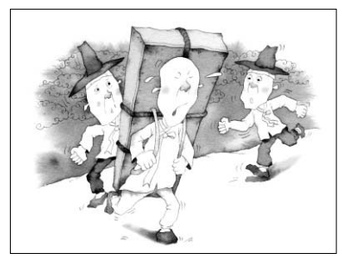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37> 보화 선사의 사문유관

영국이나 일본같은 나라들이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군주'를 현재의 민주국가 체제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구조를 보면서 그 나라의 역사적 정통성을 지켜가려는 국민적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대중부가 아무리 상좌부를 보고서 '소승'이라며 폄하해도 그 정통성의 우위는 부정될 수가 없다. 선종은 전등법계를 통하여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오는 법맥의 정통성을 확립하였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공안 역시 교리사적 정통성을 담보하고 있다면 그 생명력은 더욱 빛나기 마련이다.

흔히 괴각으로 알려져 있는 보화(普化?~861) 선사의 '전신탈거(全身脫去)' 공안을 보면서 부처님의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을 떠올렸다.



싯달타 태자시절에 카필라성의 동서남북 사문으로 나가면서 늙은 이, 병든 이, 죽은 이를 보고 마지막 북문에서 환한 표정과 당당한 걸음걸이의 수행자를 발견하고서 출가할 마음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 그 줄거리다.

그 사문(四門)의 가르침은 보화 선사에게 그대로 이어져 한 차원 더 승화된다.

보화 선사가 어느 날 길거리에 나가 보는 사람마다 장삼을 해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심깊은 단월(절이나 스님에게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옷을 해줄 때마다 거절을 했다.

임제 선사가 그 의미를 눈치 채고서 원주를 시켜서 나무장삼 즉 관을 사오도록 하고는 보화 선사를 불렀다.

"내 그대를 위하여 나무 장삼을 마련해 두었네."

그러자 보화 선사는 그것을 짊어지고 나가서 온 거리를 돌면서 외쳐댔다.

"임제 선사가 장삼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이제 동문으로 가서 열반하리라."

성 안의 사람들이 따라가니 선사가 말했다.

"오늘은 가지 않겠다. 내일 남문으로 가서 세상을 떠나리라."

남문에서도 죽지않고, 또 그다음 날은 서문으로, 사흘을 이렇게 하니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다. 물론 이후론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마지막 날 북문에서 혼자 성밖으로 나갔다. 관 속으로 들어가 길가는 행인에게 뚜껑에 못을 쳐주도록 부탁하였다. 이 진기한 사건은 삽시간에 말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얼마 후 누군가가 관을 열어보니 몸은 이미 빠져나가 버렸고 공중에서는 요령소리만이 은은하게 울릴 뿐이었다.

보화 선사가 동문을 나설 때 뒤따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늙어감을 발견했어야 했다. 남문에서는 자기의 병들어감을, 서문에서는 자기가 죽어감을 알아차려야 했다. 그것도 모르고 남의 생로병사만 구경삼아 뒤쫓아 다니고 있으니 보화 선사는 맨 처음 나간 동문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다.

목숨을 걸고서 가르쳤는데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중생들의 눈 어두움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 가르침은 '조주사문(趙州四門)' 공안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생로병사의 진리 중생에게 일깨우고자 관 속에 들어가 못박아 달라 청하고 열반

조주 선사(778~897)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다.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니라."

동문에서 서남북문을 모두 볼 수 있을 때, 또 서문에서 동남북문을 다 볼 수 있을 때, 그 동문 그리고 서문은 모두 무문(無門)이 된다. 남문 북문도 마찬가지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두 꼭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문(四門)은 알고 보면 모두 무문(無門)인 것이다. 태어남 속에 이미 죽음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도리이기도 하다.

'환란(換亂)시대'의 '공삼 선사'는 늘 '대도무문(大道無門)'을 외쳤고 또 이 말을 즐겨 휘호로 썼다. 이 이치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한 정통성과 안목 없는 나름대로의 견해였나 보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과일의 왕 두리안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두개 6.5KG이상 55,000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원

Sale!

후식으로
보이산차
장미차
국화차
중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향원

승광불교전통미술원



• 불 상
• 탱 화
• 개 금
• 원형조각
• 불사상담
• 천불삼천불
• 불교용품

귀의 삼보 하옵고....
대덕 큰 스님의 성원으로 불교미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바라옵니다

전 화 02-491-5336, 02-494-7478
공 방 031-595-6557, 031-595-6558
휴대폰 011-226-5336
e-mail : 0112265336@nate.com
목우 손동술 합장

관절염 · 신경통 · 오십견 · 류마티스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

윤원장은 우슬, 창출, 당귀, 맥아로 60℃에서 6시간 동안 알콜추출(65브릭스로 농축), 속단, 구판, 홍화자 외 19개 약제를 특수효모와 흑설탕으로 16일간 속성발효하여 몰약을 액상화시켜 丸(환)으로 만든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관절염,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등에 주효하며 5~7일 정도 복용하면 통증완화, 부기감소가 나타나며 혈행개선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 관신환(丸)



윤량한의원
원장 윤 량

기관지천식
천연생약제로 치료한다.

윤원장은 항암작용이 뛰어난 신비한 약초로 구전되어 온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와 그 외 수종의 약제로 만든 기천탕을 처방하여 수년간 기침 · 가래 · 기관지천식으로 고생하신 환자에게 복용시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환자 증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일만 복용해도 80~90% 이상의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환자에 따라 1~6개월까지 복용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기천탕(湯)

자료제공
윤량한의원 02-598-9832

무기와 번뇌의 마음을 여래심으로 바꾸는 수행체계

법기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법기불교대학은 부처님 당시의 수행과 깨달음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 ◆ ◆

· 개강 : 〈주간반〉 2005년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00-12:00)
〈야간반〉 2005년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7:00-9:00)
· 접수 : 당일방문접수 (선착순)
· 문의 : 02-854-1848, 011-9718-3826
www.bubkisa.or.kr (한글도메인 법기사)
· 기간 : 4개월, 주 1회 수업
· 수강료 : 총 75,000원(교재비 포함) *수강생 편의에 따라 중복 수강 가능합니다.
· 강의일정 :

1강	입재, 불교바로보기 / 사찰의례 (삼귀의, 오계, 사찰구조, 절하는법 등)
2강	초발심자경문 (1)
3강	초발심자경문 (2)
4강	중생의 마음 (무기,번뇌, 가아,진아) / 친목의 시간
5강	수행방법 (결인관, 수행자호흡법, 설관 / 염법) / 법담 나누기
6강	요처수행(산행)
7강	기초교리 (4성제 8정도, 3법인, 5온, 12처18계, 연기법) / 호흡점검
8강	삼매와 삼매관성, 경계와 법, 업장소멸의 원리 / 선배의 수행경험담
9강	I토요일I 철야정진 / 상기의 극복, 지식호흡과 반지식호흡
10강	수행자의 건강관리 / 반별 법담
11강	좌선과 행선 / 수행단계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와 수행방법
12강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 이근관, 안근관, 호흡점검
13강	봉사활동
14강	기복불교, 염불선, 북방불교, 남방불교의 비교분석 / 멜로디 연습
15강	불교상식 바로 알기 / 설문조사, 발원
16강	수료식 / 선지식 법문

· 오시는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출구 → 육교 → 강남우신병원에서 좌회전 60m직진 → 길건너 골목진입 → 골목시장 끝 오른쪽 하마빌딩 3층 (1층 토속촌)

바른수행 바른깨침 법기선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64)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10강 로마의 노예 현자 에픽테토스의 불교 강의

숫자 안 적힌 채무란도 보고 삽시다

미국의 어느 경영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차이를 아는 사람?" 각양 각색의 답이 쏟아졌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이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채무자라는 교과서적 답안에서부터, "돈이란 본시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 것"이라는 한국학생의 금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교수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기억력이 좋다는 거지!"

수양산의 그늘

이번 추석에 시골 바닷가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사촌 장형은 수협의 조합장을 오래 지낸 후, 지금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횟집을 차려 노후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장손으로 물려받은 재산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그야말로 맨 주먹 하나로 일어선 사람으로 저는, 방학때마다 사람을 만나고 일을 처리하는 그 생생한 노하우를 듣다가 밤이 깊어가는 줄을 모르고 듣던 기억이 여직 생생합니다.

제가 한번 사고를 친 적도 있습니다. 대학 초년, 집 앞에 대놓은 남의 오토바이를 분유 따개(?)로 시동을 걸고, 기어도 제대로 넣을 줄 모르면서 운전을 했는데, 글쎄 어느새 보니 파출소 앞에서 푸득 덜컹거리고 있었습니다. 순경이 놀라 면허를 보자고 했고, 나는 불퉁스럽게 뻗댔습니다. "아니, 이 시골바닥에서 누가 면허 따서 오토바이 끌고 다녀요?"

파출소 안으로 끌려들어간 나는 묻는 말에 대답도 않고,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신문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뻗친 순경은 나를 경찰서로 송치하겠다고 전화통을 붙들었는데, 그때 형이 배트맨처럼 달려와 저를 유치장행에서 빼내 주었습니다.

저는 늘 그 형이 있어 든든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과 위로를 어찌 말로 하겠습니까. 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아래 동생들, 사촌들, 먼 친척들까지 그 수양산 그늘 아래 더위를 피하고, 지친 다리를 쉬었을 것입니다. 다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하소연하고 도움을 구했으니까요. 집안의 대소사는 늘 장형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가니 분위기가 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형은 공직을 놓고 벌써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고, 한번 큰 수술을 겪기도 해서 예전의 풍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기세는 여전했는데, 동생 친척들이 예전처럼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했습니다. 집안 일 하나를 아직 금전적으로 다 못 처리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급하지도 않은데 대놓고 독촉하더란 것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존중이 문제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게 어디 돈문제이겠습니까. 저는 떠나 살고 있지만 가끔 차례나 제사로 형제 친척들이 모일 때, 형님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제사의 차례나 절차같은 사소한 일에도 고집을 양보하는 법이 없고,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동생들의 의견은 대놓고 무시하는 편입니다. 형님 눈에는 아직 물정 모르는 철부지들로 보일지 모르지만, 또 아직 세상을 형님처럼 부대껴 보지 않은 숙맥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들 어엿하게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하고 자신의 견해를 일구어 가진 어른들입니다. 형님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탓에,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자 형님은 자신의 채권을 주장했습니다. "그게 뭐 큰일 대수라고 그래... 그동안 내가 저들한테 해 준 것이 얼만데..." 놀라운 기억력이었습니다. 언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둘러싼 정황이 어떤 것이었으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누굴 만났으며, 그때 무슨 말이 오갔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수습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소상히 세세한 수치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잠깐 들렀다 몇 군데 들러가려던 계획이 장형 이야기에 또 두 시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장형은 하소연 끝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나 저들 형수가 제사 모신 것만도 40년이야. 어디 내 조상만이냐. 그 비용만 해도 집을 사고 남았을 거다. 그리고 그 땅 내가 아니었으면 진즉 수용되어 흔적없이 사라졌을 것인데… 그 프리미엄도 인정 안 해 준단 말이냐." 나는 웃으며, 앞의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중 만난 여러 형님들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또 막걸리 잔에 주머니 턴 것이 수월찮은데, 고맙다 수고했다는 소리도 변변히 들어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푸념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저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설사 그렇다고 해도, 장형이 은퇴하고 지금 사정이 어려운 형편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으냐"고 말해 주었습니다.

엔키리디온의 불교적 잠언

서로 엇갈리는 이 계산법(相)을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장부에는 적혀 있지 않은 숫자들의 대차대조표입니다. 이 참에 말인데, 기억하십시오.

장부에 있는 액수도 잘 관리해야 하지만,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숫자로 적혀 있지 않은 장부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관리해야 합니다.

장부에 아무 숫자도 적혀 있지 않은데, 각자 자기 눈에는 차변의 채권란에 글자들이 떠올라 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적혀 있지 않은 대변의 채무란에 부채가 수두룩 빽빽하다는 것을… 그것을 읽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자면 다들 앞만 바라보지 말고 뒤를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가 그 존재로 하여 받은 혜택들, 하늘과 바람과 물뿐만 아니라, 거기 있어서 힘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과 사건들을 떠올리고 재삼 기억하는 연습을 해 봅시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천둥 속의 먹구름이 울고, 버스의 기사가 온 몸의 근육과 시선을 집중하여 자신을 소모한다는 것을 가끔은 떠올려 봅시다.

형님들, 한 때는 한 자리에 둘러앉아 바가지에 담긴 보리밥을 나누어먹었고, 짝짝이 비행기 총탄소리에 형의 손에 이끌려 물 속으로 숨었으며, 대학에 합격한 막내 동생을 위해 반지 목걸이를 팔자고 내놓던 형제들이 아닙니까.

로마의 노예 현자 에픽테토스가 우리 집안에 있을 분란의 조짐을 미리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의 어록 <엔키리디온>에는 이런 잠언이 실려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보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다른 쪽을 보면 쉽게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형이 그대에게 부당한 짓을 했다고 합시다. 형의 부당한 행동에만 집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다른 면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즉, 그가 나와 피를 나누고 함께 자란 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일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상사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화해는 사물의 뒷면을 보면서 시작되고, 지혜는 그도 저도 분별(分別)하지 않는 데서 자랍니다. 그러니 장부의 채무란도 좀 보고 삽시다. 제일 좋은 일은 장부를 들여다 보지 않는 것입니다마는…

(참, 아는 척을 하자면 불교는 앞의 관용의 정신을 의타기성, 그리고 나중의 그 위대한 방임을 원성실성이라고 부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따라…

㊱ 부설거사의 '약속'

조태호



부설 거사 (浮雪, ?~?): 신라 후기 스님으로 이름은 진광세(陳光世). 파계하였으나 보살의 실천행으로 정진했다 함.

네티즌 교리문답

'탈락(脫落)'의 불교적 의미는?

문 취업 사수생입니다. 탈락이란 말을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에게 '탈락'이란 단어가 불교용어라고 들었습니다. 탈락과 불교, 서로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 이 말들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 사수생)

답1 : 탈락의 불교적 의미는 집착에서 벗어난 몸과 마음 해탈을 뜻합니다. 세속에서는 낙오의 의미로 부정적인 늬앙스가 짙지만, 불교에서는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됩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면, 탈락이란 어느 대열에서 빠져 버린다는 뜻으로 낙오의 뜻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공천에서 탈락되었다"든가 "발령에서 탈락했다" 등이 그것이지요. 세속의 탈락은 이처럼 실패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가 말하는 탈락은 "벗어버린다"의 의미입니다. 벗어야 할 것들은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 마음과 몸을 버리는 신심탈락(身心脫落)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몸과 마음에 집착해 삽니다.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해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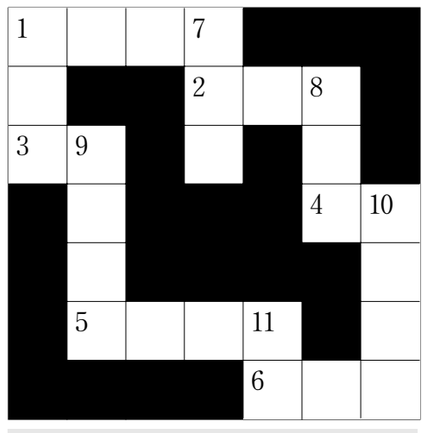
〈원각경〉 '보안보살장'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가 화합해서 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사대와 육근이 인연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대는 물질이고 육근이란 눈·귀·코·혀·몸뚱이·뜻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입니다. 이 감각기관이 색깔·소리·냄새·맛·촉감·대상·상상대상과 만나 이루어내는 결과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대가 없어지면 육근이 작용할 수 없습니다. 육근작용이 없으면 마음도 존재치 않습니다. 따라서 몸뚱이도 환(幻)이고 마음도 환(幻)인 거지요. 몸과 마음이 모두 환으로 없어지면 오직 청정함만 남습니다. 이런 상태를 신심탈락, 해탈이라고 합니다.(출가 사문)

답2 : 신심의 탈락과 함께 인아(人我)의 탈락도 중시합니다. 인(人)은 타인을 말하고, 아(我)는 나를 말합니다. 더 발전시켜 풀면 아는 주관이고 인은 객관입니다. 주관과 객관은 인연의 관계를 맺습니다. 인연상에서 벗어나는 길은 인아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상(相)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합니다. 상(相)을 상으로 보지 않았을 때 인간은 여래가 됩니다. 〈금강경〉은 이를 게송으로 지어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라고 말했습니다. 〈금강경〉의 탈락도는 공의 체험을 통한 득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탈락은 해탈이고 해탈은 종교의 최종목표입니다. 세속적인 탈락에 번민하지 말고 불교적 탈락을 위해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탈락이 해탈이다)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뉴올리언스주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2. 영화 '초록물고기'에서 주인공 한석규의 애칭 3. 불교에 몸담고 있는 성직자 4. 기관차, 선박 등의 신호 장치 또는 그것으로 내는 소리 5. 언행의 앞뒤가 맞지 않음을 이르는 한자성어로 비슷한 말, 모순 6. 여래불상 3위와 보살상 4위가 봉안돼 있는 전각으로 화엄사에 있음, 국보 제67호.

세로 1. 그리스인의 우주개벽설(kosmogonia)에서 만물발생 이전의 원초상태 7. 비가 올 때 신던 나무로 만든 신 8. 전설상 용이 되려다 못된 큰 구렁이 9. 노사연이 부른 노래로 '저 만큼 앞서가는 님 뒤로….'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유행가 10. 중국 삼국시대인 208년에 후베이성, 자위현의 북동, 양쯔강 남안에 있는 적벽에서 있었던 전투 11. 실제와 다르게 보고 느낌.

먹을거리 뒤에 숨은 정치 "기가 막히네"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의 폐단을 적나라하게 고발해 화제가 됐던 영화 '슈퍼 사이즈 미'의 한 장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음식에 관한 47가지 진실
크레이그 샘스 지음 | 이경식 옮김
휴먼앤 북스 펴냄 | 1만원

정부·기업 이익 위해 소비자 건강 위협하는 식품산업과 정부 정책, 현대인 식생활 낱낱히 고발
"자립적 유기농산물 생산·소비는 최선의 대안"

햄버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를 비롯해 요즘 식탁위에 음식이 범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요리로 완성된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 하나를 만들기 위해 소비되는 곡류나 육류, 비료 등에 관해. 또한 이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펼쳐지는 수많은 로비와 정부 정책까지, 무엇을 알고 있을까?

영국 유기농 커뮤니티 운동을 이끌고 있는 이 책의 지은이는 "식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알고 음식을 가려 먹는다면 지구촌 사람들의 건강과 정의는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이라고 머리말을 통해 조언하고 있다.

이 책은 결국 '먹는 행위'로 귀결되는 이 복잡한 관계의 망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47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 이면에 있는 진실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 진실은 대체로 충격적이다. 한 예로, 다들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일상적으로 먹는 정크푸드에 대해 단지 잘못된 우리의 음식문화를 한 번 일갈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정크푸드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정치적 측면을 이 책은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햄버거 한 세트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7.50달러다. 하지만 시중에서 팔리는 가격은 2.49달러다. 이처럼 햄버거를 싸게 팔 수 있는 것은 햄버거 재료인 가축사료, 설탕, 콩기름에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급성장한 패스트 푸드 산업은 비만의 주범이 됐다. 과도한 설탕과 지방을 섭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 할인매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는 과일과 채소, 빵과 우유와 같은 물품을 배치하고 수시로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눈에 띄는 이들 물품을 세일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하는 게 아니다. 썩기 쉬워 빨리 처분해야 하는데다, 세일을 통해 할인매장의 가격이 싸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상술일 뿐이다.

상식을 깨는 황당한 얘기도 이 책에는 들어 있다. 옥수수를 발효해 만드는 에탄올은 환경 친화적 연료로 각광받는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보면 실망하게 된다. 미국 코넬대학교는 에탄올 1리터를 생산하는 데 화석연료 1.7리터가 소모된다고 추정한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보조금까지 지급해 옥수수 에탄올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조장하고 있다. 그래야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비료와 제초제, 농약, 영농기계 등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지은이는 이처럼 정부나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건강을 희생하는 식품산업과 정부 정책, 그리고 여기에 길들여지는 현대인의 식생활을 낱낱이 고발한다.

지은이가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파헤치고자 하는 것은 패스트푸드, 집약농업, 녹색혁명 등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음식산업의 '정치성'이다.

오늘날의 '음식혁명' 이면에는 거대 식품산업과 정부의 이권결탁 메커니즘이 도사려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각 주제마다 소중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의 그림이 그려진다. 소수의 몇몇 거대 식품관련 기업이 정부와 결탁하여 소규모 자영농을 내몰고, 저개발국가를 점점 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환경을 망치고, 우리의 건강까지 빼앗는 독과점과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이다. 이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문구가 이 책에 나와 있다. 패스트푸드에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이며 미국 정부 보조금의 가장 큰 수혜자인 '아처 다니엘스 미드랜드(ADM)' 사장의 말 중 다음과 같은 것이 녹음돼 폭로되었다. "우리의 경쟁자는 사실 우리의 친구들이다. 고객이야말로 우리의 적이다."

따라서 이 책은 '먹을거리 정치의 폭로'라 할 만하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먹을 음식을 스스로 기르고 선택하지 않은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과 그 대안이 곁들여져 있다. 이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너무나 거시적인 이 진실 앞에서 우리는 당혹스러워하고 오히려 무기력에 빠져들 수도 있다.

광범위한 사례를 들어 먹거리 문화의 위험을 고발한 지은이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환경친화적인 음식문화다. 지은이는 "정부 보조금 없이 지역공동체에서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먹는 것이 우리 자신과 지구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대화-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
리영희 지음 | 임헌영 지음
한길사 펴냄 | 2만 2000원

'사상의 은사' '지식인의 사표'로 불리는 리영희 교수(75 · 前 한양대 교수)의 삶과 사상을 담은 자서전이다. 진실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아홉번이나 연행되어 다섯번 구치소에 가고 언론계에서 두 차례, 대학에서 두 차례나 쫓겨나야 했던 리영희 선생의 삶과 사상이 선생의 육성으로 생생히 전달된다.

스스로를 '60% 저널리스트, 40% 아카데미션'으로 말하는 리영희 선생은 무엇보다 '이 땅에서 지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생생하고 깊이있게 제시한다. 자신의 글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도 사실은 대단한 이론이나 새로운 담론을 제시한 게 아니라 오직 '진실을 추구'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책은 현대사의 현장마다 치열하게 부닥쳐온 한 지식인의 구체적인 기록과 증언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흥미롭다. 한마디로 술술 읽힌다. 술술 읽다가 눈길을 확 끌었던 대목이 대담자와 다소 논쟁을 빚는 민족과 계급의 문제였다. 리영희 선생은 4 · 19의 성공과 이어진 좌절을 회고하면서, 군사쿠데타를 부른 요인 중 하나로 진보적 혁신계열인 좌익 정치세력들의 갈등과 대립을 꼽았다.

실천적 지식인의 표상 리영희

그의 논지는 조선 500년 당쟁의 역사로 확대되면서, 현대까지의 우리 민족사를 볼 때 이같은 분열적 요소들이 '민족적 유전자'를 형성한 것이 아닌가하는 회의를 품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같은 상습적 분열주의는 강력한 지배권력이 있어서 통제력이 작용할 때는 나오지 않지만 통치권이 와해 내지 이완됐을 때 나타나며, 예를 들어 광복직후 남북의 상황도 이에 견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 대담자인 임헌영은 민족성으로 초점을 돌려버리는 위험성을 들어 우려를 나타내지만, 리영희는 '민족적 면책론'이라 반박한다. 그런 견해가 자칫 지나치게 민족적 완전성, 즉 절대로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는 자민족 불가류성(不可謬性)의 과오를 범하며 이런 편집광적인 자세는 일본인들의 야마토(大和) 민족우수론이나 독일 나치의 아리아민족 순결주의로 신앙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리영희 선생은 역사에서 지도층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지만 국민대중은 나라를 염려했다는 단순명료한 이분법적 관점에 대해서도 과학적 태도가 아니라고 입장을 확대한다. 이같은 이분법은 마르크시즘에 기초하고 실천적으로는 레닌이나 스탈린의 계급관을 반영한 것인데, 이를 아무런 수정없이 수긍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 자서전이 나오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리영희 선생은 고희를 맞이한 지난 2000년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 여파로 오른쪽 손과 다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부득불 선생의 구술을 녹취해 진행되었고 원고지 2700매 분량으로 완성되었다. 초벌 원고를 만드는 데만 2년이 걸린 만큼 책의 가치는 상당히 높다. '진정한 지식인'으로서 진실을 추구하고 이를 실천한 선생의 삶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김도경**(한양대 사회학과 강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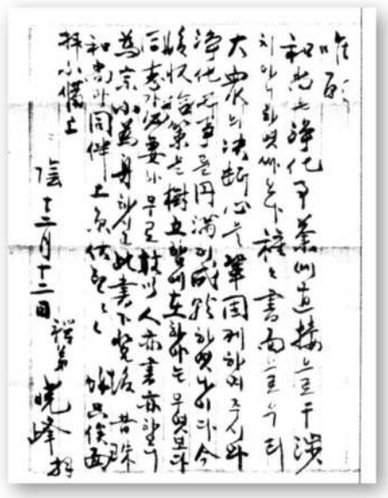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9697-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靑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월빙 자연당
1100g×2병 = 18,000원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산사조청 월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효봉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보낸 편지 원본.

선사들의 내밀한 고백 '편지'

"인간의 한 잎이 팔공산에 떨어지니 빛깔에 안팎 있어 바로 가을잎이라. 그 가운데 무슨 비밀이 있는 듯하나 떨어진 꽃 한송이 가지로 다시 올라가네."(효봉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본래 팔공산은 안팎이 없거늘 누가 봄가을로 한 잎인 줄 알겠는가. 비밀을 안 것은 비밀이 아니니 더럽고 냄새나는 것도 이상할 게 없음이 바로 인간이라는 꽃잎일세."(경봉 스님이 효봉 스님에게)

편지는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간의 내밀한 소통이다. 산사의 스님들이 주고받은 편지에도 서로의 깨달은 바를 점검하는 촌철살인의 선문답과 수행자로서 느끼는 고뇌와 갈등 같은 인간적인 면모가 두루 소개돼 있다.

<산사에서 부친 편지>는 경봉 경허 만해 성철 효봉 청담 스님 등 근 · 현대의 고승 50여명이 주고받은 편지를 묶은 책이다. 통도사 극락선원장 명정 스님이 스승 경봉 스님에게 물려받은 쌀가마니 두개 분량의 편지들 중 해독 가능한 130여 편을 골라 우리말로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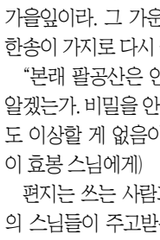
스님들은 편지를 통해 흩어진 잡념을 모두 지우고 정진하라고 서릿발 같은 경책을 내리기도 하고 "바람벽을 하고 서서 물끄러미 석양을 보노라니 불쑥 스님 얼굴이 떠오르지 않겠소. 그래서 발우에 지는 해를 담아 훌훌 마셔버렸소."라며 따뜻한 정을 전하기도 한다.

치열한 구도과정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겪는 세속적인 번뇌와 갈등, 혈연에 대한 애틋한 정도 담겨 있다. 어머니의 간병을 위해 잠시 산을 내려가야 하는 제자 벽안 스님에게 경봉 스님은 "부디 이번 길을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병간호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게.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그대를 나무라지는 않을 걸세"라는 답신을 보냈다.

편지를 주고받은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지 않고 한문 원본을 싣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편지 한 장 한 장마다 수행자의 참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

"돌아보면 저에게 남은 것은 방 안에 걸어둔 붓 한 자루와 낡은 서책 몇 권, 그리고 내 몸을 근질근질하게 하는 쥐벼룩 몇 마리가 전부일 뿐, 한평생 살아온 삶의 무게가 오직 그것뿐입니다."(한암 스님이 경봉 스님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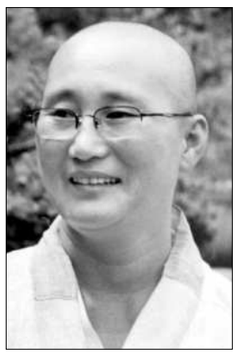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산사에서 부친 편지
명정 스님 옮김 | 정성욱 엮음
노마드북스 | 1만3천5백원

죽음과 만날때 풍성해지는 인생

불교계 최초 호스피스 시설서 만난 1000여명 환자와 맺은 인연 풀어내



1997년 무더운 여름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짐을 보면 스님 같은데 가족은 없고 임종이 임박한 사람이 있으니 한 번 와보라"는 천주교 호스피스 병동 수녀님의 전화였다.

부랴부랴 병원을 찾은 능행 스님(사진)을 맞은 이는 손발톱이 살을 파고들고 살점이 뚝뚝 떨어진 모습으로 누워 있는 폐암 말기의 비구 스님이었다. 선방에서 정진하느라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스님은 쌈지돈을 모아 입원시켜 준 도반들이 결제에 들고 나자 급속히 병이 깊어져 병원을 떠돌게 된 것이다.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진 종교가 불교인데, 이렇게 큰 십자가 아래 누워 죽게 됐다"며 "스님들이 편히 죽을 수 있는 병원 하나 지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후 충북 청원군에는 불교계 최초의 호스피스 시설인 정토마을이 들어섰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절망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말기환자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10여 년간 불자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온 능행 스님이 기존의 호스피스 운동에 불교의 아미타신앙을 결부한 '아미타 호스피스운동'을 펼치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능행 스님은 큰절에서 살다 병이 깊어지자 버림받은 스님을 비롯해 임종 직전에야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다면 불사 같은 것 안하고 공부했을 텐데"라며 눈물짓던 스님, '카타야수 동백염'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전신마비와 기억상실이 찾아왔지만 끝까지 목탁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스님 등 1000여 명의 다양한 환자를 만났다.

최근 발간된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에는 능행 스님이 이들과 맺은 소중한 추억이 스님의 눈물인 듯, 웃음인 듯 새겨져 있다.

어렵게 부지를 구해 정토마을의 터전을 잡았던 때부터 '죽을 일' 밖에 없는 환자들이 몰려드는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한 일, 법당에 시신을 쌓아둔다는 소문이 나 주민들 몇몇이 신발을 신은 채 법당을 뒤진 일, 경찰서와 검찰청을 수 없이 드나들어야 했던 일 등을 담담하게 정리했다.

또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종했다가 다시 부처님의 품으로 돌아온 할아버지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자녀들에 실망한 어머니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른 채 하고 있는 '죽음'의 적나라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능행 스님 지음 | 도솔 | 9천5백원

죽음을 코앞에 두고야 삶의 소중함과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현대인들에게 스님은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삶이나 30년 혹은 50년이 남은 삶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잘 죽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도 어느 날 막상 죽음 앞에 서면 그저 죽음을 피해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만이 있을 뿐입니다. 잘 죽는 법을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해결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삶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책은 절절히 보여주고 있다. (043)298-2258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기초부터 착착 … 경전 강의 시리즈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무비 스님 지음 | 조계종출판사 | 각 6천, 7천, 8천원

불교 의식에서 빠질 수 없는 예불문과 <반야심경> 등에는 어떤 가르침이 담겨 있을까?

수많은 불자들이 경전을 줄줄 외우고 법회 때 마다 독송하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참뜻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초심자들에 대한 신도교육 부족이나 불교계에 만연한 '책 안 읽는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읽기 쉬운 한글 번역서의 부재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조계종출판사는 불자들이 자주 접하지만 체계적인 공부가 부족했던 경전을 알기 쉽게 풀이한 '경전강의' 시리즈를 기획하고, 그 첫 번째 순서로 조계종 교육원장을 역임한 무비 스님(범어사 강원 강주)의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을 펴냈다. 1992년 첫선을 보였던 책의 개정판으로, 한글세대 불자들을 위해 좀 더 말을 매끄럽게 다듬었다. 우리시대의 대강백인 무비 스님의 자상한 안내로 어렵지 않게 불경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다.

불교의 ABC라 할 수 있는 예불문을 풀이한 1권에서는 예불문의 원문과 뜻풀이, 무비 스님의 해설을 만날 수 있다. 그동안 입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어떤 뜻이었는지 몰랐던 예불문의 참뜻을 알아가는 재미가 느껴진다.

2권 <반야심경>과 3권 <천수경>에서는 전체 불경 중에서 각 경이 갖는 위치와 중요성, 뜻풀이와 해설을 통한 경전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다.

삽살개가 된 사자이야기



사자개 삽사리
이가을 지음 | 곽영권 그림
사계절 | 9천5백원

먼 옛날, 인도 북부의 초원에 살던 한 수사자는 자신의 이빨에 물려 죽어가는 어린 사슴의 슬픈 눈망울을 본 후 살생을 해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진다.

사냥을 그만두고 식음을 전폐하던 수사자는 신라에서 온 스님에게 주먹밥 한 덩이를 받아먹은 후 스님을 따라 길을 나서려 한다. 하지만 "같이 가려면 개가 되어야 한다"는 스님의 말에 또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된다. "사자인 내가 개가 되어야 한다고?" 며칠을 고민하던 사자는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 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님과 함께 신라로 오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나운 사자의 형상이 차츰 충직한 개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바로 '사자개'라고도 불리는 '삽사리'가 그것이다.

<사자개 삽사리>는 천연기념물 368호 삽사리(삽살개)에 얽힌 내력에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버무려 담은 책이다. '동물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본능과 생명에 대한 연민에서 오는 갈등을 통해 '개가 될지언정 뜻한 바를 이루겠다'는 깨달음을 이뤄내는 과정을 풀어내고 있다. 곽영권 교수(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학과)의 따뜻하고 차분한 그림이 '어떻게 사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에 더 집착하는 오늘날의 교육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든다.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제7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매곡동 팔공산 계곡
전화번호 : (053)324-1289 자수 대진 합장

간(肝) B형간염, 알콜성 간염 간염보균자, 지방간 환자들의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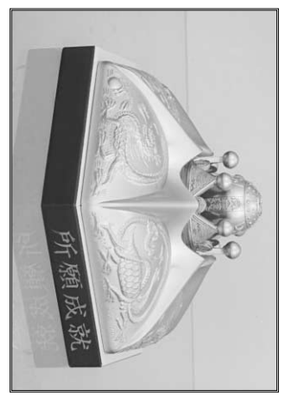
윤량원장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해발 1,700m의 고지에서 자생하는 희귀식물로 개발한 키모탕을 B형간염, 알콜성간염, 간염보균자, 지방간 환자들에게 임상실험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에게서 만족할만한 개선효과가 나타났고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나 간염, 지방간 환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의사 윤 량

윤원장은 계속 연구하여 더 좋은 제품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키모탕을 복용후 효과를 보신 환자들이 구전으로 소개하여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 키모탕(湯)

문의전화 02-598-9832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틀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맑고 청아한 소리 다 모였네

9월 22일 개관 진천종박물관

성덕대왕신종, 상원사 종 등 재현작 150여점 한자리
소리 비교, 종관련 정보 검색, 탁본 등 체험 코너 마련

외형의 아름다움이나 크기, 소리의 울림 등에 있어 세계 최고라고 찬사 받는 성덕대왕신종.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됐으나 깨져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원사 종. 박물관에 고이 모셔져 있어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었던 이들 종을 한자리에서 직접 치고 듣고 만질 수 있게 됐다.

9월 22일 개관한 충북 진천종박물관에 가면 가능하다. 실물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주조법으로 고증을 거쳐 만들어낸 재현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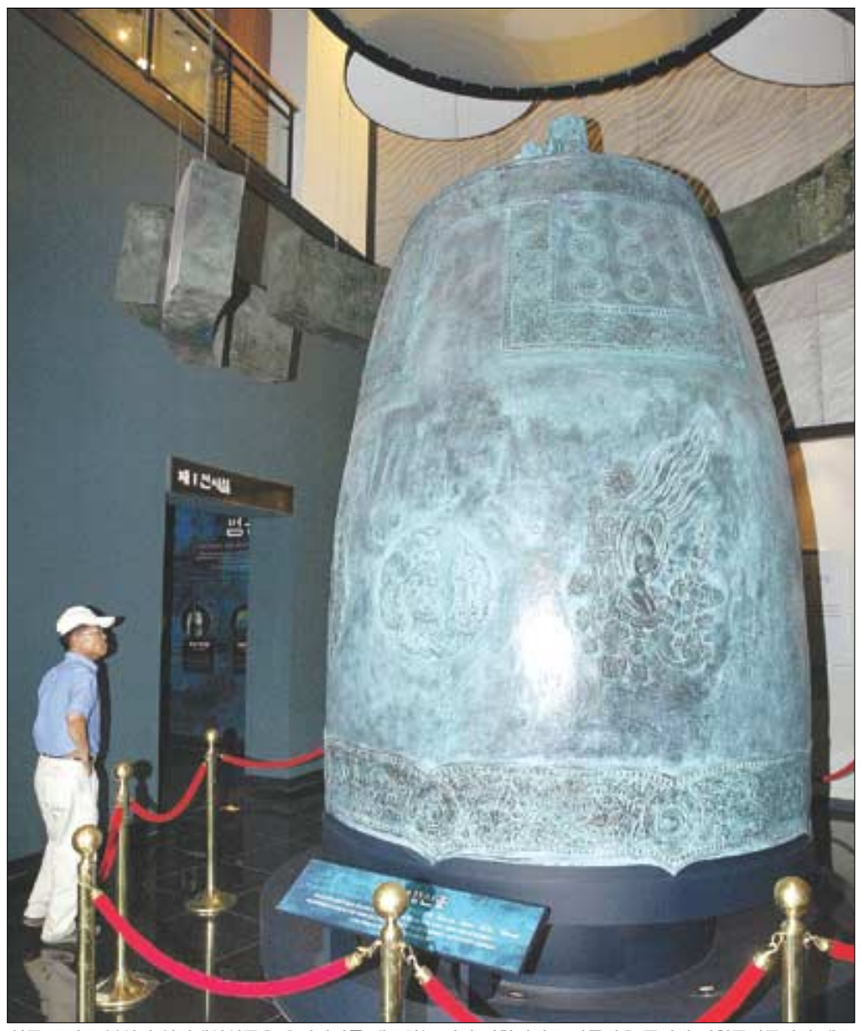
'관람' 중심의 1층에 들어서면 성덕대왕신종이 실물 크기로 재현돼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성덕대왕신종의 유려한 아름다움으로 받은 감동은 시대별 종이 전시된 제1전시실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실물크기로 재현한 종 10여구가 전시된 제1전시실은 우리 종의 시대별 변천사를 담았다. 신라를 대표하는 선림원지 출토 종, 청주 운천동 출토 종, 일본 고묘지(光明寺)와 운주지(雲樹寺) 소장 종 등이 자리했다. 고려시대에는 일본의 덴린지(天倫寺), 엔세이지(圓淸寺) 소장 종이, 조선시대에는 홍천 수타사 종, 태안사 종, 해인사 홍치4년 명종, 김룡사 종 등이 재현돼 맑고 청아한 소리와 함께 만날 수 있다.

진천종박물관의 '체험'은 2층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끄는 2층은 범종의 주조방법을 밀랍인형으로 재현해 놓아 보기만 해도 이해하기 쉽다. 직접 비천상을 탁본할 수 있는 탁본체험의 장, 종에 그려진 문양의 의미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문양에 담긴 불교정신', 나라별 종소리를 비교체험할 수 있는 '세계의 종소리', 같은 종이라도 음통(音筒)의 유무에 따른 소리변화를 들어볼 수 있는 코너, 범종관련 정보검색이 가능한 '범종백과사전' 등이 다채롭게 펼쳐져 있다.

소품 위주로 내부 전시실이 꾸며졌다면 외부는 대종 중심의 타종 체험 코너와 야외전시공간을 마련했다. 진천군은 야외 조각공원 등도 조성해 종박물관 인근을 거대한 문화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11월 초 정상 운영을 앞두고 시범 운영 중인 종박물관은 정식 오픈까지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043)539-3847~8

진천=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실물 크기로 복원된 성덕대왕신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종이자 진천종박물관의 대표 얼굴이다.



원광식
진천종박물관 명예관장

전통 밀랍주조법 연구에 한평생
낙산사, 신륵사 종 등 재현할 계획

성덕대왕신종, 상원사종 등 진천종박물관의 대표 종들을 재현 기증한 원광식 진천종박물관 명예관장(64)은 박물관 보유 종 150여점을 모두 기증하는 등 종박물관 탄생의 일등공신이다.

원 관장은 2000년 충북천년대종 작업을 하면서 충북과 인연을 맺었다. 2002년 본격적으로 종박물관 건립이 추진되면서 경기도 광주에 있던 자신의 작업장도 진천으로 옮겨왔다.

"내가 몇 년이나 더 종을 만들 수 있겠어요. 앞으로 3~5년 안에 종박물관을 채울 종 재현 작업에 더 박차를 가해야죠."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주철장인 원 관장은 전통 밀랍주조법 연구에 한평생을 바쳤다. 그 결과 세계에서도 그 소리가 아름답기로 으뜸가는 성덕대왕신종을 밀랍주조법으로 재현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상원사 종을 재현할 때는 원본에서 흐릿해진 문양까지 꼼꼼하게 재현해 냈다. 고증만 3년이 걸린 작업이었다. 자식 같은 종들을 아낌없이 진천종박물관에 기증했다.

"진품 국보 보물은 없지만 똑같이 재현된 종들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도록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진천종박물관만의 장점"이라는 원광식 명예관장은 앞으로 낙산사 종을 비롯해 신륵사 종 등도 재현할 계획이다.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이 티베트 탕카 100여점을 전시하는 '삶과 죽음을 넘어서' 전을 8월 19일부터 2006년 2월 5일까지 열고 있다. 티베트의 불화를 말하는 탕카는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분야이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김남윤 학예과장(한국불교미술박물관)의 안내로 탕카 즐겁게 보는 법을 배워보자.

'탕카' 아는 만큼 보인다

티베트 불화 백배 즐기기

불화 100여점 한국불교미술관서 2006년 2월 5일까지 전시

▲탕카의 구성

○ 덮개천-티베트의 식생활이 버터기름 위주이기 때문에 탕카에 기름때가 끼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평소에는 덮개천을 덮어 탕카를 보호하고 의식 때에는 덮개를 뒤로 넘겨 사용한다.

○ 그림의 테두리-탕카를 매달기 위한 바탕천은 보통 푸른색 면포를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탕카 주변에 붉고 노란 천띠를 두른다. 이는 무지개를 묘사하는 것으로 '빛의 영역'을 의미한다.

○ 문-탕카 만의 특별한 점은 바로 탕카 아래쪽에 위치한 '문'이다. 네모난 천으로 구성된 문은 탕카를 평면적인 그림으로서의 감상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한다. 문을 통해 존상과 합일하고 이입할 수 있는 창구로서 존재한다.

○ 뒷면-탕카의 뒷면에는 '옴 아 훔(Om Ah Hum)' 등 티베트어로 만트라(mantra)나 명문을 적거나 의식의 흔적을 남겼다. 라마의 손자국이나 발자국이 '피' 또는 붉은색 염료를 사용해 찍혀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탕카에 종교적 신성성을 부여했다.

▲아미타여래 정토도 VS 아촉여래 정토도

탕카는 중앙에 누가 모셔졌나에 따라 관장하는 세계가 달라진다. 서방의 아미타불이 주존인 아미타 정토도, 동방의 아촉여래가 주존인 아촉여래 정토도가 바로 그것이다.

아미타 정토도는 아미타부처님을 붉은색이나 황금색으로 표현한다. 붉은색 피부의 아미타불이 선정인을 하고 손에는 발우를 들고 있다. 부처님이 앉아있는 대좌에는 공작이 그려져 있다.

동방의 아촉여래는 어떨까.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있는 아촉여래는 푸른색 피부로 표현된다. 발우를 손에 든 아미타불과는 달리 금강저를 들고 있고 대좌에는 코끼리 그림이 있다.

▲티베트 불교의 수호존과 호법존

이담(yidam)이라고 불리는 수호존은 개인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무섭게 생긴 분노존, 자비롭게 생긴 자비존 등으로 표현된다. 분노존으로 표현되는 이유는 공포에 젖었을 때 집중력이 높아져 깨닫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비존을 보면 '나'와 합일해야만 깨달음을 얻는다고 티베트인들은 생각했다. 자비존을 못 알아보고 머뭇거리면 분노존으로 화한 수호존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수호존은 관음보살과 문수보살이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마두관음은 관음보살의 분노존이다.

수호존과 달리 호법존은 불교 전체를 지킨다. 그러나 형태상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호법존은 인도 중국의 토착신들이 불법과 연결돼 토착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호법존은 힌두신화의 시바가 호법존으로 변한 '마하칼라'이다.

강지연 기자



아미타여래정토도.



아촉여래정토도.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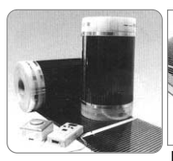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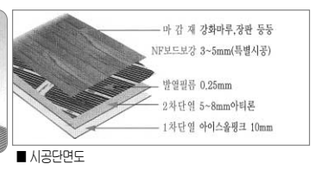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8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4.9원/kw	34원/kw	494원/㎥	64.9원/kw	1100원/㎥	900원/ℓ
월간 난방비	38,200원	56,100원	70,150원	101,800원	136,400원	163,800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본사 : 유성바이오텍(주)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시공전문업체)

041)545-5593, 010-8120-3592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정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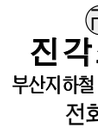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제4기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본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불교의식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뜻 있으신 분은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과 정

기초과정(6개월)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상용영반, 요령, 목탁타법
전문과정 (1년)	삼신이운, 각단권공, 사다라니, 대령관욕, 49재, 천도재, 시식, 사물타법, 요잡, 제반의식

2. 모집대상 : 스님 및 불교의식에 뜻이 있는 재가불자
3. 강의일시 : 매주 월-토요일 중 택일 오후 2시부터 (주1회 4시간 교육)
4. 제출서류 : 본원 소정양식 수강원서 / 사진 2매
5. 교 수 : 대원스님 (부산 무형문화재 제9호, 사단법인 부산 영산재 보존회 범음 범패 부문 조교)

부산 동래구 명장동 산 54-1 (금불사 부설)
051)522-1948, 051)523-1948, 011-597-8077
영남 범음 범패 교육대학

진각스님 철학교실 수강생 모집



어려울때는 철학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문을 모르셔도 괜찮고 기초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쉽게 속성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1. 과목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2. 교육과정 : 기초부터 5개월
3. 모집요강 : 스님, 일반 男 · 女
4. 교육기간 : 주4회, 1일 1시간씩

卍大韓佛敎 부산 송광정사 부설
진각스님 명리 철학 교육대학
부산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안쪽 50m에 있습니다.
전화 051-867-8438 / 팩스 867-7438

기치유사 수련생 모집

- 개강일자 : 2개월과정(8일완성)
  10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4:30
- 수 련 비 : 80만원(2회분납가능)

참고 서적 기치유와 기공수련/기치유학(윤한흥 지음)

수련지도 : 윤한흥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주)명상신문 논설위원

윤·기치유 명상 수련원

기치유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상기병, 삼차신경통, 간경화, 통풍, 암, 류마티스, 당뇨등 난치, 불치병 외에도 수술 직후의 빠른 회복이나 유아, 애완 동물에도 광범위하게 활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특강

- 개강일자 : 11일(화요일)
  주 2회씩 4주 과정(총8회)
  낮 반 : 월,수요일 오후 3시~5시
  저녁반 : 화,목요일 오후 7시~9시
- 수 련 비 : 30만원
- 강 사 : 윤파로 마인드 컨트롤 32년 경력

문의 www.gichiu.com 02-3482-5032
후원 한국기치유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 (주)명상신문

행복한 삶의 핵심 '보시와 지계'

동화사 - 현대불교 공동 주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수행 대법회 ⑦

주제 :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율장정신 (9월 24일)
법주 : 각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은 1979년 화엄사 도광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82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제방선원에서 8년간 안거한 뒤 인도로 유학, 10여년간 산스끄리뜨어와 빠알리어를 배우면서 베다 문헌과 초기불전을 공부했으며, 인도 뿌나 대학교(Pune University)에서 산스끄리뜨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실상사 화엄학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소임을 맡고 있다. 역·저서로 <금강경 역해> <아비담마 길라잡이(상·하)> <네 가지 마음챙기기 공부> <디가 니까야(장부, 3권)> 등이 있다.

자원 희소성·과소비, 소욕지족 가르침으로 풀어야
포살 자자 하지 않고는 참된 승가공동체라 할수 없어
출가자가 믿고 의지할 소의율장부터 만들자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은 재가 불자들에게 '시계생천(施戒生天)'을 무수히 강조했습니다. 시(施)는 보시 정신, 계(戒)는 지계정신입니다. 출·재가를 막론하고 갖춰야 할 기본정신이지요.

보시는 봉사와 베푸는 삶, 지계는 도덕적·건전한 삶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취할 때 우리는 금생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내생에서는 천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즉 보시와 지계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핵심 방법론인 거지요. 또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사성제와 팔정도를 이해하는 튼튼한 토양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율장정신'입니다. 도대체 율장정신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율장은 딱딱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이 반드시 짚어보고, 자신의 생활이 과연 율장의 기본정신과 위배되지 않는가를 반성해야 합니다.

승가공동체란 무엇일까요? 승가공동체는 해탈과 열반이란 부처님이 인류에게 보여준 거룩한 이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속을 버리고 구성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승가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이상,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규칙과 규범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행동규범을 모은 것이 율장(律藏)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율장의 기본정신일까요? 승가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정신을 크게 열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건전한 삶으로서의 도덕성, 소욕지족과 무소유의 청빈한 삶, 더불어 나누는 삶, 존중, 화합, 평등, 자발성, 믿음, 절차중시, 징계를 통한 청정성 회복 등입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는 율장정신이 도덕성입니다. 요즘 말로, '건전한 삶'이라 할 수 있지요. 불교의 계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은 단속과 절제와 자기제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단속이 바로 계"라고 말합니다. 단속(saṃvara)은 문단속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의식 등 육근(六根)의 문을 단속하는 것이 계입니다. 여기서 바로 도덕성이 출발합니다. 자기를 단속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단속은 간섭과 다릅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단속하지 않으면, 아내로서 부모로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단속해야 할까요? 단속은 마음을 챙긴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챙기는 것을 불교에서는 '마음챙김'이라 했습니다. 단속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초기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챙김(사띠:sati)'이지요. 이것이 율장정신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두 번째가 청빈한 삶입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소욕지족과 무소유의 삶이 율장정신입니다.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음식 의복 거주처 약품을 바탕으로 해 영위돼 갑니다. 출가 공동체의 구성원도 예외일 수 없지요. 비구계목과 비구니계목은 의·식·주·약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외 성(性)에 관련된 것들이 있지요. 이 다섯 가지에 대해 율장은 소욕지족, 무소유, 즉 청빈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나누는 삶, 즉 더불어 함께하는 삶입니다. 공동체는 나누어 가짐을 기본으로 합니다. 나눠 갖지 않는 삶은 함께 모여 산다 해도 진정한 공동체라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남을 존중하는 비폭력정신입니다. 율장에서는 인간, 동물, 식물에 대한 폭력까지 다룹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율장정신을 비폭력이란 단어로 압축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화합입니다. 출가자의 생활, 특히 90일간 집단적으로 머무는 우안거의 생활에 화합을 강조하는 데에서 율장정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평등정신입니다. 인도사회에서 불교가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이 정신이죠. 지금도 인도에는 카스트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이 출가하면, 이 제도와 관계없이 평등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일곱 번째가 자발성입니다. 이는 출가자에게 해당되는 정신입니다. 어떤 출가자가 계를 범해 대중공사할 때, 만약 당사자가 파계를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 그 출가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불교가 고도의 도덕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참회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자기 잘못을 드러내고 토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덕성과 인격을 가진 사람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율장은 자발성이란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율장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구체적인 드러냄을 계로써 구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에서도 불(佛)·법(法)·승(僧)·계(戒)를 믿는다 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마음을 챙겨 믿는다는 겁니다. 계율대로 산다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의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절차의 중시입니다. 자발성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떠한 승가구성원도 적법한 절차 없이는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징계를 통한 청정성 회복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징계를 받은 승가 구성원이 징계를 통해 청정성이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초기율장이나 경장을 통해 바라제목차(婆羅提木叉)의 의미를 살펴보면, 요즘 말로 '설사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계목이 설사약일까요?

율장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승가 구성원 하나하나가 잘못한 것을 거북하게 끌어안고 있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참회하게 하는데 기본정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 참회하기 힘들어도 대중이 주는 설사약을 먹으면 몸과 마음이 가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장은 마치 통변을 유도하는 설사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현대사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현대사회는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대변혁의 시대, 민주 시민사회 등으로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류는 농업산업 정보 등에 혁명이 일면서, 여러 가지 적응의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변화는 과거의 어떤 변화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거대합니다. 이런 급격한 현대사회의 변화를 올바로 대응하는 길은 자기 스스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란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같은 특징을 지닌 현대사회의 근본이념은 프랑스 혁명의 3대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율장정신이 바로 3대 정신과 대동소이합니다.

율장정신에서 자유는 자율입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진정한 자유는 건전한 도덕성을 지닌 사람만이 향유할 수 있는 이념입니다. 평등의 이념은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노예제도를 없애고자 한 부처님의 사상과 같습니다. 박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성평등과 생명체의 평등을 부처님은 역설했습니다.

현대사회의 문제점과 율장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관능적 사회풍조에 율장은 어떤 정신을 제시할까요? 사실 관능적이란 말은 성(性)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성은 출·재가를 막론하고 불제자로서 냉철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인간의 수명도 짧아지고 전쟁도 일어납니다.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 자원의 희소성과 과소비 문제에 율장정신은 어떨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삼독심에 의해 사바세계에 태어났지요. 때문에 인간의 욕구는 무한합니다. 그런데 자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장정신은 소욕지족의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특히 율장정신은 양성평등과 생명윤리 문제에 해결점을 던져준다고 봅니다. 양성평등의 경우, 일부 비구니스님들이 율장의 팔경법 때문에 양성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팔경법의 출처를 살펴봤습니다. 율장에는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는데, 비구계목과 비구니계목은 상위법에, 그와 관련 <율장 소품> <율장 대품> 등은 일종의 하위법입니다. 이 팔경법은 상위법인 비구니계목에 나타나지 않고 <율장 소품>의 '비구니건도'에서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하위법인 소품에 나타났기에 강제력이 없는 규정인 것입니다. 비구니스님들이 팔경법으로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 생명공학과 생명윤리의 문제에 대한 율장정신은 어떨까요? 생명공학의 입장에서 생명윤리의 문제들은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 생명의 마지막과 연관된 윤리적 문제, 삶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생명윤리입니다.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율장에서는 "인간을 죽이면 당연히 교단에서 추방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생명공학에서 인간의 문제는 수정란과 배아를 연

법회 동영상 중계 hompy.buddhapia.com/homepy/morals

도서출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이메일 minjoksa@chol.net

한국 고대사의 빼 놓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고전! 삼국유사!!!
그 고전 읽기가 시작 된다

全文의 충실한 해석 · 체계적 분석과 일목요연한 시각적 구성 · 2,000여 편의 논문결집, 330여 장의 사진 수록
책의 왼쪽에는 원문 해석을, 오른쪽에는 원문과 어려운 한자풀이를 배치하여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05年 추천도서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전2권)은 선학들의 연구성과가 잘 조화된 역주본이다. – 경향신문
상징성이 있는 고전을 읽으면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고,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 – 중앙일보

上 下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이범교 역해 | 고급양장 | 각 권 25,000원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1회 특별 법회는 2003년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자리하고 있는 다람살라 남갈 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특별 법회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한국 불자에게 하신 최초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 불자와 달라이라마의 만남은 많았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회는 달랐습니다. <입보리행론>을 교재로 삼아, 제1장 보리심 공덕 찬탄품부터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달라이라마께서 그 의미를 짚어가며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경전 속 활자에 불과했던 샨티데바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샨티데바의 가르침에 달라이 라마의 숨결이 더해지면서 <입보리행론>은 수행지침으로 되살아 난 것입니다. 2004년 10월 텔리에서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2회 특별 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이 법회에서는 <입보리행론> 제5장 호계정지품부터 제8장 선정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 2회 특별 법회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제안으로 제2장 죄업 참회품을 독송을 하던 순간, 강당을 가득 메웠던 낭낭한 독송 소리는 조용한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티베트 학승과 티베트 불자까지 젖어들은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가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매번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음을 열어갑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신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평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법회에 동참하여 좋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입보리행론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꽃인 '보살의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보리행론>은 총 10장 – 제1장 보리심 공덕품, 제2장 죄업 참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 제 5장 호계정지품 제 6장 인욕품,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 제10장 회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샨티데바의 <입보리행론>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여러 종의 번역본과 종파 별로 수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1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행사일정
A팀 : 12월10일 – 19일(10일간) –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20만원)
인천-델리-다람살라-델리-인천
B팀 : 12월 3일 -18일(16일간) – 불교성지순례와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6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법회)-델리-인천
• 장 소 : 인도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
• 주 관 : 여수 석천사 (진옥스님 061-662-1607)
※ 참가신청 및 문의 : 본 행사는 법회진행비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토굴 개인소유 무소유 정신에 어긋나
소유·관리 승가공동체 차원서 해야

율장 기본정신 10가지

①도덕성 ②청빈 ③나눔 ④존중 ⑤화합 ⑥평등 ⑦자발성 ⑧믿음 ⑨절차 중시 ⑩징계 통한 청정성 회복

구용으로 쓰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 생명은 수정하는 순간이 아니고 수정된 지 14일이 후로 연기하려는 움직임과 생명의 마지막을 심장이 멈추기 14일 이전의 뇌사상태로 앞당기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불교 아비담마를 전공한 입장에서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14일 논쟁'은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과학자의 의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류와 사회를 위한 연구라면 불가피한 살생도 좋은 뜻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율장정신으로 본 현대 한국 승가공동체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엄격한 지계정신이 있습니까? 오늘의 승가에 무소유 정신이 있습니까? 특히 '육식과 오후불식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대만의 일부 스님들은 '말세의 타락한 비구의 모습을 보려면 한국에 가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엄격한 채식주의를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엄격한 오후불식을 하고 육식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엄격하게 채식주의를 고수하는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채식주의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국 승가공동체는 무소유의 정신이 있습니까? 토굴문제가 심각합니다. 출가자들은 무소유가 기본입니다. 적어도 정부 관청에 '내 소유물'이라고 등록된 개인 소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소유는 승가공동체로, 사용은 출가수행자가 하는 방식이 돼야 합니다. 다음으로 '승가공동체는 포살과 자자를 하고 있는가' 입니다. 포살과 자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율장정신으로 볼 때, 승가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살과 자자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교구본사 중심으로 결제·해제철이나 적어도 1년에 3~4번은 포살과 자자를 해야 합니다. 만약 포살과 자자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승가공동체를, 출가자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사 스님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입니다. 사실상 지금의 율사스님들은 습의사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율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출가자가 믿고 의지할 '소의율장(所依律藏)'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점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다섯 가지 율장이 한역됐지만, 한국 승가공동체에서는 소의율장이 없습니다. 한국 승가공동체의 소의율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율사스님들이 먼저 소의율장부터 정해야 합니다. 가령 '소의율장을 <사분계율> <오분계율> <광율> <십송율> 등으로 할 것인지'를 정한 뒤, 한글로 정확히 번역해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불교가 가지는 출가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의율장에 대한 제 생각은 한국 현대불교의 대표적 율사인 자운 스님이 번역한 <사분비구계목>을 소의율장으로 제안합니다. 이를 율사스님이 연구하고 한글로 잘 다듬어 교육하기를 바랍니다.

정리=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이 율장정신이 현대사회에 있어 어떤 가르침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 법문하고 있다.

각묵 스님이 제안하는 '토굴문화'

"승랍 10년 이하 사용금지 사유화 막고 규모 제한을"

토굴은 출가자가 치열한 자기 수행을 위한 수행처입니다. 그런데 요즘 토굴이 편안하고 해이한 생활을 즐기는 굴택(窟宅)이 돼 버렸습니다. 개인의 재산으로 치부되고 심지어 들려서 피로를 푸는 호화별장의 개념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바른 토굴문화 정착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건물이나 땅 등 개인 소유물을 쉽게 종단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정비해서 반드시 종단에 등록하게 해 사유화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종단은 토굴의 크기나 시설물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검박한 토굴생활이 되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셋째, 승랍 10년 이하인 스님들은 토굴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가자의 노후보장 차원에서 전국 교구본사별로 실버타운 형태로 토굴을 지어 종단에 적을 둔 출가자들에게 분양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논 찬



현대사회 문제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우경 스님
(동화사 강원 강사)

질문1 : 법주스님은 율사스님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 같은 제안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가령 종단에서 사미의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율원은 율장에 위배되기에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힘 있는 기관에 의해 무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치 사회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듯이 종헌 종법이나 종단의 행정이 율법에 어긋나는지를 가리는 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각묵 스님 : 근원적인 문제는 승가공동체에 대한 불신에 있습니다. 승가공동체가 종앙종회, 종무행정을 보는 스님들에 대한 불신이 해소돼야 해요. 또 율사스님들이 율장에 기초한 소신 있는 지적을 할 수 있게 종단은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만약 율장정신에 벗어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하고 필요하다면 종헌재판소 같은 것도 만들어서 고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질문2 : 부처님 법에서는 폭력뿐만 아니라 성내는 것까지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을 낸다는 것조차 폭력의 길을 열어 놓은 짓이 되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마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의의 분노'란 단지 증오에 씌워 놓은 가면에 불과하다고 했지요. 그런데 만약 의로운 분노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부처님 법이 너무 무기력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각묵 스님 : '의로운 분노'란 표현은 불교적이 아닙니다. 불자들은 연민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량심이 바로 불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입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의 마음을 갖고, 내 문제로 받아들여 승화시켜야 합니다.

질문 3 : '스님이 승용차를 차고 타고 다니면 되는가'란 질문을 받으면, 답변하기 막막합니다. 각묵 스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무소유의 정신이 있는가?'에서 한국 승가공동체의 재물의 사유화의 심각성을 지적했는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또 삼보정재가 힘 있는 몇몇 일부 스님에게 집중돼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스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각묵 스님 : 율장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초기율장이 복잡한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맞는 청규를 제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지요. 그 구체적인 모델로 남방불교권 국가마다 제정된 청규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태국 승가는 원로스님들이 정한 청규를 받아들입니다. 출가자가 담배 피는 것과 커피마시는 것 등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출가자가 경험하는 지계실천상의 갈등을 풀어줬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포교를 위해서 스님들도 승용차를 써야합니다. 다만 개인 소유가 아니라 '소유는 종단에서 하고, 사용만 출가자가'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가자가 생활하면서 계율에서 일어나는 찜찜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자기 삶, 율장정신 비춰 반성해야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질문 1 : 법주스님께서는 현대사회의 근본이념을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로 압축하고 이를 불교의 율장정신과 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서양철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자유의 경우 서양적 의미에서는 '~으로부터의 자유'인 소극적 자유와 '~에로의 자유'인 적극적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깨달음의 경지에서나 향유 가능한 불교적 차원의 자유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논리전개 방식은 자칫하면 모든 것을 불교적 사유방식으로 대체, 설명할 수 있다는 '지적 우월감'에 빠질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는데요,

각묵 스님 : 출가자로서, 초기불교 원리주의자로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교가 한국사회에서 워낙 폐쇄적이고 현대사회와 격리된 고리타분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것은 틀렸다'는 점과 불교정신이야말로 현대를 대표하는 자유 평등 박애 등을 대변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질문 2 : 법주 스님께서는 율장의 기본 정신에 비춰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과 해결책을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윤리적 차원의 접근이란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개인의 도덕성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조직이나 제도 단위의 논리와 힘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묵 스님 : 집단적 도덕성이란 표현을 사용했는데, 결국 승가 국가 가정 기업 등 어떤 단체나 모임이든 집단적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권위에 승복하고 감복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율장은 권위에 대한 승복을 정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인격성과 고귀한 권위 등에 감복된 것이 바로 율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 없이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전제국가형태로 가는 유혹의 길이 열리는 것으로 봅니다. 불자 스스로 자기 삶을 율장정신에 비춰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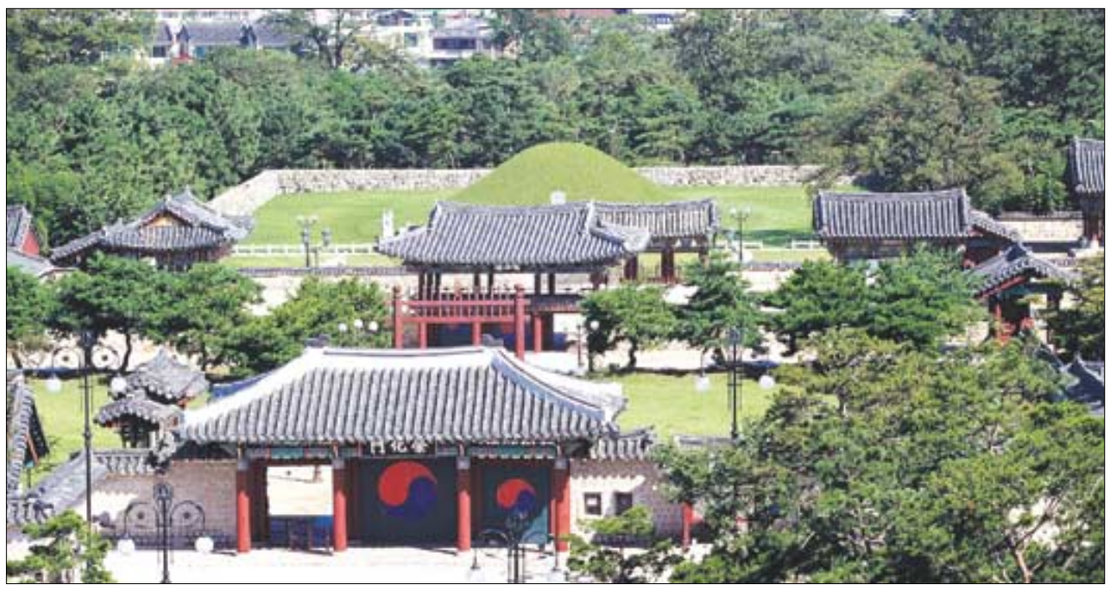
질문 3 : 생명윤리문제는 요즘 관심이 큰 주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고 있는 생명공학의 이상열기 분위기에 적지 않은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는 불교계의 시각이 지나치게 순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적 의미의 생명은 수정란 단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스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각묵 스님 : 사실 이 문제는 내 능력 밖에 일입니다. 초기불교를 전공한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 어머니의 뱃속에 입태(入胎)하는 순간부터 생명으로 봐야 합니다. 또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상좌부의 아비담마에서는 심장사(心腸死)를 사망으로 봅니다. 그래서 뇌가 죽어도 심장이 뛰고 있다면 아직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제 상식으로 본다면, 수정된 지 14일, 죽기 전의 14일을 따로 떼어내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연 속에 천둥, 번개칠 때의 대기정화 방식
새로운 기술방식의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연의 원리를 재현한 'Living Air'의 특성"
無병균 천둥,번개가 일어날 때 지구를 정화해 주는 원리를 도입하여 실현된 100%살균능력으로 신선한 공기 생성.
無필터 신소재 리트스크린 방식으로 필터 교환의 번거로움이 없어 비용이 절감되고 성능의 저하를 막아 줍니다.
無소음 Thunderstorm Theory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작되어 작동의 소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반영구 추면 신소재 스크린과 카드플레이트의 세척만으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 높이 30cm, 폭20cm, 무게8kg 으로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이동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뢰성 미국과 캐나다환경 보호청 및 국내 산업공해연구소의 시험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미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격찬을 받고 있습니다.
조절가능 5평에서 84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가능합니다
model:XL-15
model:Fresh Air
자연의 신선한공기 우리가 꿈꾸는 내일
자연에서는 공기가 천둥번개와 비로 인하여 깨끗해진다. 천둥번개는 오존을 생산하고 또한 양이온과 음이온을 발생하여 자연적으로 공기를 정화 한다. 비는 오존과 이온을 지구표면에 가까이 내려오게 한다. 오존과 이온은 대기의 오염물질에 부착하여 공기중의 오염물질을 제거 하고 지상에 떨어지거나 산화 시킨다. 리빙에어는 야외의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 기기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 공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공기를 여과하거나 나쁜 증세를 가리거나 희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청정한 상태로 정화하는 것이다. 이온화는 공기 중에서 먼지입자와 오염물질을 충전시켜 더 끌어당기게 함으로서 제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한다. 입자는 계속적으로 더 큰 입자로 커지다가 결국 그 무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공기 중에서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 오존은 먼지에 남아있는 세균을 살균해 준다. 이 모든 순수한 오존이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은 Living Air의 생성 및 Fan에 의한 송출방식으로만 유지된다.
미국 Ecoquest사 제작 수입완제품이며 탁월한 기술력으로 스피커만한 크기로 84평까지 청정지대로 유지하며, 필터가 없으므로 교환의 수고가 없고 구입 후 별도의 유지비가 전혀 없음
인증서
▶ 산업공해시험성적서 : 오존수치(세계안전 오존(O_3) 안전수치 0.05ppm이하)
▶ CSA : 캐나다 표준협회 발행 산업안전규격 승인청
▶ EPA : 미국 환경보호청(검사인증서) ▶ 미국방성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음
EPA Est. Reg. No. 065975-TN-001
◀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발행 분진, 수은 검사 측정결과서
다중 시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사찰 및 복지기관에 꼭 필요합니다.
TEL : (02)2055-0202
FAX : (02)2055-027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3-7 이오빌딩 518호
www.o2air.net

불교지도자와 재가불자를 위한 불교강좌
경기북부 교양대학 제4기생 모집
1. 대학설립 취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여법하게 전통의식을 생활불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스님, 교임, 포교사)를 양성하며, 기초불교교리 강좌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화합 불교사상을 널리 펴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는데 있음.
2. 교 과 목
●전통의식반 (제공의식 포함) 주 1회 (금요일) / 시간 : 15:00 ~ 19:00
▸기초 (사물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제공의식) ▸연구 (제공의식, 현장실습)
●생활역학 주 1회 (월요일) / 시간 : 15:00 ~ 19:00
●서 예 반 주 1회 (화요일) / 시간 : 15:00 ~ 19:00
3. 교육기간(6개월)
●원서접수 : 2005년 9월 20일 ~ 10월 20일 ●개강일시 : 2005년 10월 25일 (금요일)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4. 특 전
본대학은 조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 수여와 사찰 및 포교당 창건시 지원 및 편의제공
본대학 전통의식과정 졸업자가 지도자과정으로 입학 할 경우 입학전형에 특전부여
5. 문 의
경기북부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교무처
전화 : 031)864-0033
팩스 : 031)864-0103
경기도 양주군 남면 매곡리 380번지 기원정사
신간안내
•제 목 : 불교범음의식집 •저 자 : 백설운 스님
•출판사 : 이화문화출판사
•금 액 : 35,000원
•구입문의 : 031)864-0033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북부 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김해를 대표하는 수로왕릉. 가야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까닭에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수로왕릉은 '가야세계문화축전 2005, 김해'의 얼굴이기도 하다.
사진제공=김해시청 가야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

가야문화 매력에 푹 빠져 봅시다

각종 공연 · 전시 · 가야생활 체험프로그램 풍성



가야 고분군에서 출토된 가야토기들.



화로모양의 가야토기.



중국 소주 공연단의 공연 모습.

가야세계문화축전2005, 김해
Gaya International Festival of Culture 2005, Gimhae

고구려 신라 백제가 존재하던 시기를 가리켜 '3국 시대'라 한다. 그러나 3국의 틈바구니에서 6세기까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국가가 하나 더 있었다. 바로 '가야'다.

최근 역사적으로 의미 있었던 가야를 조명하는 전시 기획, 출판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야세계문화축전 2005, 김해'가 10월 1~16일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김해'하면 떠오르는 것은 수로왕릉과 최근 학계에서 불교 남방 전래설의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파사탑'이다. 이번 가야세계문화축전에서는 이런 가야 문화재나 왕릉 등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은 물론 가야의 색다른 매력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들도 마련됐다. '가야생활 체험마당' 등을 통해 실제 가야인이 된 것처럼 그 시대 토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풍성한 공연이 준비돼 있다. 각종 퍼포먼스와 콘서트, 마당극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들이 즐비한 것. 여기에 세계전통문화의 장도 함께 열려 중국, 몽골, 일본 등 가까운 나라에서부터 멕시코 등 안데스 산맥의 전통 음악 · 공연까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가야문화재 '파사석탑'.

또 눈여겨봐야 할 행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전'. 세계 문화유산과 우리 가야 고분군들을 함께 비교함으로서 관람객들에게 가야 문화재 보존 필요성을 널리 알린다는 취지다.

행사에 화려한 볼거리는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다. 행사 기간 내내 '불과 빛의 설치전'을 통해 김해의 밤은 아름답게 물든다. 이로써 관람객들은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김해와 가야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www.gayafestival.com (055)330-3955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가야세계문화축전 2005, 김해' 주요행사 일정

행사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공연	세계 민속 공연 (인도, 캄보디아, 몽골, 러시아 등)	10월1일~16일	대성동 고분군 야외마당, 수릉원 특설무대
	김해예술제	10월 7일~9일	대성동 고분군 야외마당
	판소리, 마당극	10월 1일~16일	대성동 고분군 야외마당
	각종 콘서트	10월 1일~14일	수릉원 특설무대
전시	가야철기공방	10월 1일~16일	구봉초등학교 앞 공터
	환경사진전	10월 1일~16일	가야의 거리(국립김해박물관 앞)
	김해시립 민속박물관 상설전시	10월 1일~16일	수릉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전	10월1일~16일	수릉원
체험행사	토기공방	10월 1일~16일	대성동 고분박물관 앞
	고분체험 프로그램	10월 1일~16일	대성동 고분박물관 앞
	가야문화체험	10월 1일~16일	대성동 고분박물관 앞
부대행사	생활문화, 공예 웰빙 특산물 및 먹거리 장터	10월 1일~16일	대성동 고분군 가야의 거리 및 대성동 고분박물관 주차장

공연

불교 '바라 오페라단' 창작극 무대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 10월 14 · 15일 세종문화회관

불교 최초의 오페라단인 '바라 오페라단'은 10월 14 · 15일 양일간 오후 7시30분에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창작 오페라 '야수다라와 아난다의 고백'을 무대에 올린다.

사단법인 삼보불교음악협회와 전국불교연합합창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불교음악역사관 건립을 위한 공연이다. 정부기 중앙대 음대 교수가 대본과 작곡을 맡은 이 작품은 부처님의 출가전 부인과 제자의 고백 형식을 빌려 부처님의 일생을 국악곡 형식으로 전하는 총 3막 6장짜리 오페라. 바리톤 박성규, 소프라노 오승희 연정숙 박정희씨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정부기 교수는 "국악 형식이지만 피아노와 파이프오르간 등 서양 악기도 함께 편성해 다양한 변화를 주려고 노력했다"며 "부처님의 생애를 음악극을 통해 되새긴다면 훨씬 더 쉽고 의미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02)723-0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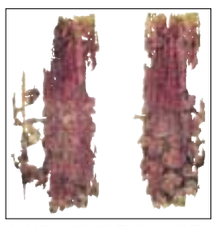
한편 삼보불교음악협회와 불국사는 10월 8일 오후 6시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앞 특설무대에서 '제5회 전국 불교음악제'를 개최한다.(054)746-2211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시

리움 개관 1주년 상설작품 교체

'신라 백지묵서 화엄경 변상도' 등 눈길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 변상도'. 본래 1장이었던 변상도는 훼손돼 두 조각으로 떨어졌다.

국보 제196호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 변상도,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국보 제217호)', 단원 김홍도의 '군선도(국보 제139호)'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삼성미술관 리움이 10월 13일로 개관 1주년을 맞아 상설작품을 교체 전시한다. 이번에 새롭게 전시되는 작품은 '청화백자 운룡문 병(보물 제785호)'을 비롯한 고미술품 60여점과 김기창 화백의 '산사' 등 현대미술품 17점이다.

고미술 상설전시실인 MUSEUM1은 고서화 청자 백자와 분청 금속 불교미술까지 전 분야에 걸쳐 전체 전시품의 절반을 교체 전시한다. 1층 불교미술 · 금속공예실에서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이자 대표적인 변상도인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 변상도'가 전시된다. 지금까지 보존문제로 거의 전시되지 않았던 작품이어서 더욱 주목받는 전시물이다. 2층 고서화실에서는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 등 조선 초기부터 말기까지 우리나라 회화의 대표작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현대미술 상설전시실인 MUSEUM2는 김기창 화백의 '산사' 장욱진 화백의 '가로수' '가족', 이응노 화백의 대표작들을 선보인다. (02)2014-6901 강지연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3일 07:05 아침저널
4일 09:05 행복한 미소
5일 21:05 영화음악실
6일 10:05 BBS 신행상담실
7일 06:25 오늘은 좋은 날
8일 17:10 무명을 밝히고
9일 10:00 라디오 법회

Btn 불교TV —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3일 21:10 한국의 명찰
4일 02:40 불교TV스페셜
5일 15:50 열린마당
6일 20:30 능엄경 강좌
7일 20:30 명상음악산책
8일 07:30 조선불교탄압사
9일 20:00 또 다른 수행 '사경'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낭만라디오(10월 7일 14:05~15:00) 3040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추억의 노래,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다시 들어 볼 수 있는 시간.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텔레비전**: 엄앵란 장미화의 행복충전(10월 9일 21:45~22:45) 연예계의 입담꾼으로 통하는 엄앵란 장미화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자 연예인 등 각계 인사를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 속 재밌는 해프닝도 소개한다.

게시판



어르신 운동회 한솔복지관(관장 성화)은 10월 17일 분당 능골공원에서 어르신 운동회를 개최한다(사진). (031)716-4215

독감 예방접종 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10월 5일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을 잃기 쉬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02)365-3677

인터넷 PC교육 시흥장애인복지관(관장 이상호)은 10월~12월에 걸쳐 컴퓨터 교실을 연다. 지역사회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초 인터넷 활용 및 문서작성법 등을 지도한다. (031)431-9114

발마사지 강의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성)은 10월 7일 발달장애아동 부모에게 '발 건강을 위한 발마사지법'을 강의한다. (02)806-1377

미용 봉사자 모집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욱)은 어르신 이발 미용 봉사자들을 찾고 있다. 오전 10시~오후 3시, 주 1~2회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면 가능하다. 모집 완료 시까지. (02)929-7950

어르신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공상길)은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및 신규일자리 개발을 목적으로 "2005 노인적합형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신청을 받고 있다. 10월 30일까지. (02)831-2755

20면 상식 퍼즐 정답

카	트	리	나			
오			막	둥	이	
스	님		신		무	
	그				기	적
	림					벽
	자	가	당	착		대
				각	황	전

이영화 어때요?

36살 시골총각, 다방 처녀와 사랑에 빠지다

너는 내 운명 감독: 박진표 출연: 전도연, 황정민 상영시간: 123분 등급: 18세 이상

짠돌이 시골 노총각이 다방 여종업원을 만나 세상에 다시없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 '너는 내운명'. 이들에겐 흔히 말하는 돈도 명예도 없지만 그 때문에 더욱 사랑 하나만 보고 사랑한다. 주연인 전도연, 황정민 외에도 재능 있는 배우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영화의 또 다른 매력. 석중의 어머니 역을 맡은 나문희, 농촌총각 연기를 멋들어지게 소화해낸 류승수가 그 주인공들이다.

시골 다방에서 일하는 은하에게 첫눈에 반한 36살 노총각 석중은 그녀에게 구애를 시작한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골인한 두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는 잉꼬부부. 하지만 행복도 잠시. 은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일념 아래, 석중은 은하 몰래 젖소와 전 재산을 처분해 그녀의 빚을 갚으려 한다. 자신의 과거 문제로 인해 석중이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안 은하는 자신이 떠나면 그가 행복해 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떠난다. 그 가운데 석중은 은하가 에이즈(AIDS)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도 모른 채 떠난 은하를 찾아 헤매는데….



왜 이렇게 이들의 사랑은 힘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편견이 휘두르는 폭력 때문이 아닐까. 연애는 밀고 당기는 게임이 되어버리고 결혼도 사랑보다 조건이 중요시 되는 현대의 사회풍조는 여전히 우리들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정의를 희석시키고 있진 않을까 싶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밀랍양초 세트

불단에 올릴 고급 양초를 찾고 있는 불자들을 위해 마하몰에서 밀랍 양초 세트를 추천한다. 마하몰 밀랍양초는 토종 벌집에서 추출한 밀랍으로 만들어 태우면 고급스러운 벌꿀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그을음이 없고 일반 양초보다 수명이 길다. 1호(지름59mmX높이180mm)~4호(지름47mmX높이100mm)까지 다양한 크기의 초들을 각각 2개씩 세트로 구비할 수 있다. 가격 3만원.

둘이 아닌 하나의 자리 (하)

조성란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남편을 그렇게 떠나보낸 후 다시 기도하러 나갔다. 하루 종일 사찰에 머물며 기도하고 저녁에야 집에 돌아오곤 했다. 그런 와중에 공부의 즐거움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다. 내게 힘든 일이 닥치니 오히려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씩 알아가고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일찍 결혼한 탓에 사회경험이 전혀 없었다.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떠나버리고 나자 살길이 막막했다. 그렇게 1년가량을 그냥 흘려보내고 나니 마음만 너무 조급했다. '뭘 하고 살아야 하나? 이렇게 놀고먹으면서 돈만 축내는 것은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하다 아파트 상가를 하나 분양 받았다. 주위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고, 또 당시는 경기가 좋을 때라 장사도 잘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은 돈을 긁어모으고 모자란 것은 대출 받아 가게를 시작했는데, 기대만큼 가게 매출은 오르지 않았다.

남편이 있을 때는 매달 안정적인 수입으로 규모 있는 생활을 했었는데 전혀 어떤 계획도 할 수가 없는, 일정치 않은 수입에 의존해서 살려니 너무 불안했다. 힘들 때마다 올라오는 불안한 마음을 닦는 데만도 3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그렇게 3년 정도 지내니 수중에 단돈 5만원만 있어도 걱정이 안 되고 살만해졌다. 전에는 이런 상황이면 스트레스와 내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주 예민해지고 일찍 세상을 뜬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화도 나고, 불투명한 미래가 두렵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위기를 넘겨보니 '아! 삶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고통도 내가 겪을 수 있는 만큼만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이 되겠구나' 하는 강한 믿음이 생겼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자광사 국제선원엘 가게 됐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 그동안 나를 묶어놓고 어떤 틀 속에 가두려고 했던 것으로부터 너무나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큰스님이 쓰신 책들을 읽을 때는 밤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밝고 기쁜 환희심 속에서 아침을 맞기도 했다.

남편 임종후 병 앓고 생활苦에 시달려
절 다니며 '모든일 내안에서' 깨달아
마음 관하는 법 배우고 심신안정 되찾아

이 모든 것이 도반인 항복심 보살 덕분인데, 내게 마음공부를 권유해주기도 하고 수요 공부팀을 만들어 함께 공부하기도 했다. 항복심 보살과의 인연으로 자광사에서 공부도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도 하게 됐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전까지만 해도 나는 새벽공부를 하고 경전을 읽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고 결과물인 듯이 살았던 것 같다. 그런 공부들이 내가 수행해 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고 방편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 들여다보는 원리를 터득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도와 독경에 매달려 그걸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안달한 것이다.

밖에서 부처님을 구하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며 부처님을 상대로 무언가 흥정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또한 늘 공경하는 마음을 갖자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이런 공부를 합니다' '나는 수행자 입니다'라는 아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선원에 나가게 되면서 마음깊이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게 됐고, '아! 이게 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로구나'하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마음을 관하면서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 줄 알고, 남의 마음을 가지고 탓하거나 시비하지 않고, 또 그런 이치들을 알게 되니까 남에게도 별로 화낼 일이 없어지고 마음이 안으로 많이 향하게 되는 것 같다.

나는 지금 큰 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늘 '빨리 나아야 될텐데'하면서 건강해지는 원을 세웠다. 그런데 어떤 공부 모임에 갔더니 스님께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의도도 붙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였다. 그래서 손을 번쩍 들고 "그러면 내가 낫겠다고 원을 세우는 것도 안되나"고 여쭈었더니 그러지 말라고 하셨다. 이 몸 자체를 '나의 몸'이라는 실체로 인정하고 있으니 병이 붙는 것이라 했다.

사실 지금의 '나'라는 이 모습도 고정됨이 없이 변해가고 있는데, 그 변화가 너무 미세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어떤 것을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나는 그동안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왜 아플까' 하면서 이미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내가 계속 병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내 몸이랄 것도 없는 몸뚱어리에 병이라는 것을 붙여놓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그 뒤로는 아픈 것에 대해 연연하지 않게 됐다.

작년부터 갱년기가 시작되는지 무릎이 너무 아파 자면서도 몸을 뒤척이기 힘들어 신음소리가 절로 나고, 어깨도 너무 아파 파스를 붙이고 침도 맞았다.

하지만 몸을 관하면서 아픈 곳을 찾아 아무리 봐도 아픈 곳이 없었다. 무릎에 대고 '아픈 곳을 내놔봐라'고 물어도 어디도 아픈 곳이 없었다. 아픔의 실체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내가 계속 내 몸이 진정한 나인 양 주장하고 있으면서 아픔을 붙여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부터는 아픔이 사라졌다. 몸이 아주 가벼워짐을 느꼈다.

지금도 신장 때문에 약을 먹고 있기는 하지만 전처럼 빨리 나아야 하는데 왜 안 낫나 하는 마음은 없어졌고 몸의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다. 내 병은 만성신부전증이라 특별히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런 변화를 보고 의사 선생님도 놀라 "집에서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있느냐"고 물었다. 그럴 땐 난 "마음이 해결했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얘기를 한다 해도 이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 그저 웃기만 한다.

요즘에는 감사하게도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별로 걸릴 것도 없어져 아주 편안하고 밝다. 이 모든 일에 부처님 가르침 덕분이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끝)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해인정사 대작불사 회향식





가을이 아름답습니다.
풀벌레는 스리게 노래하고 서산의 노을은
아스라히 사라져 갑니다.
모든 것이 평온합니다.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우납이 해인정사를 창건하여 불사를 시작한지 어언 오년.
그 오년의 불사를 마무리하는 회향식을 노을 어린 이 가을에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하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수진 합장

■ 축하공연:불교계 최초의 해인정사 그룹사운드 「해조음」 공연
■ 동참문의:(051)291-1176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1동 자유2·3차 APT 뒷산 해인정사
■ 당일 오시는 분께는 회향식 기념선물을 드립니다.
※초대장은 이 지면으로 대신합니다.

▲ 해인정사 전경

● 일시:2005년 10월 7일(음력 9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부산 해인정사


기계로 수확한 찻잎은 자동화 기계를 통해 티백제품으로 만들어진다.

쉽게 마신 티백차 복잡하게 만드네

저급 취급에도 국내녹차 소비량 70~80% 차지
보성제다 10주년 맞아 떫은 맛 줄인 고급차 생산

티백 녹차 제조과정


효소 작용을 억제시키는 살청과정.


컨베이어 벨트로 다음 단계로 옮겨진다.


찻잎의 모양을 만드는 유념.


건조된 찻잎을 크기별로 선별한다.



티백에 담겨 제품으로 포장된다.

티백 녹차, 이렇게 만들어요

사무실이나 야외에서 간편하게 차를 마실 수 있게 해주는 티백녹차.

언제 어디서나 차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티백녹차는 '저급 녹차' 취급을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차인구가 수백만을 헤아린다는 요즘에도 티백녹차는 우리나라 녹차 소비량의 70~8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떫은맛을 줄이거나 어린 찻잎을 사용한 고급 티백녹차가 등장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올해로 창사 10주년을 맞은 보성제다(대표 서찬식)의 티백녹차 생산 공장을 찾아 녹차 티백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다. 녹차공장 견학 안내는 보성제다 서상권 과장이 맡았다.

티백으로 사용되는 찻잎은 손으로 수확하는 고급 차와 달리 거의 대부분 기계로 수확한다. 주로 여름에서 가을에 이르는 기간에 채취한 찻잎을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고급 티백녹차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봄에 싹을 틔운 첫물차로 티백녹차를 만들기도 한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찻잎 수확량이 증가해 주말에도 찻잎을 채취하고 공장을 가동할 정도라고 한다.

수확된 찻잎은 공장으로 운반돼 자동화 기계에 들어가게 된다. 찻잎이 투입되어 티백에 넣기 전 단계까지 모두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티백녹차 제조기기는 거의 대부분이 일본제품. 게다가 각 단계별 기기만도 몇 억을 호가한다니, 하루빨리 우리나라 고유의 녹차 제조기기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일정 분량씩 기계에 투입되는 찻잎은 제일 먼저 ▲**살청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살청이란 증기나 열을 가해 찻잎의 효소 작용을 억제시켜 폴리페놀의 산화를 막는 과정이다. 보통의 살청기는 1시간에 200㎏ 정도의 생엽(生葉)을 처리할 수 있으며, 뜨거운 증기로 찻잎을 찌거나 열기를 가한다.

살청 과정을 통해 습기와 열기를 머금은 찻잎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옮겨져 수분을 건조**시키게 된다. 열과 바람을 가해 살청 시 찻잎의 겉면에 생성된 수분을 날려 보냄으로써 찻잎이 발효되는 것을 막는다.

적당히 건조된 찻잎은 역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유념기로 옮겨진다.

▲**유념은** 찻잎의 표면을 마찰시켜 상처를 만듦으로써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차의 성분이 빨리 우러나게 하는 것이다. 찻잎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한데, 찻잎을 따는 시기와 찻잎의 상태에 따라 유념 시간이 달라진다. 보통 봄에 수확한 찻잎은 2~3분 정도, 가을에 수확한 찻잎은 7분 정도 유념하게 된다.

유념기에서 모양이 만들어진 찻잎은 건조기에서 수분을 말려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진다. 찻잎의 수분이 3~4%정도일 때 부패나 산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의 마지막 단계인 건조기를 거치고 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찻잎의 상태가 된다. 이 ▲**찻잎들은 선별기에서 미세한 가루나 엽차용, 티백용 등으로 나눠진다.**

티백용으로 분류된 찻잎은 ▲**마지막으로 포장실로 옮겨진다.** 포장 역시 자동화로 이뤄지는데, 적당 분량씩 여과지에 담긴 후 종이 재질의 개별 포장지로 포장한 후 상품 상자에 담겨야만 비로소 제품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녹차는 전국의 슈퍼마켓과 할인마트 등을 통해 소비자의 찻상에 오르게 된다.

보성제다(061-853-411)를 비롯해 화개농협(055-883-4235), 한밭제다(055-884-7760) 등의 티백공장은 사전에 예약하면 일반인들도 무료로 견학이 가능하다. 녹차공장 견학을 통해 무심코 마시는 티백 하나를 만드는데도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는 것임을 알고 나면 한 잔의 차도 소중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글 · 사진=여수령 기자

조선 '웅천 찻사발'展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 23일까지

500여년전 조선시대 경남 남해 웅천에서 빚어진 '웅천 찻사발' 50여 점이 한자리에 모인다.

조선웅천찻사발특별전 추진위원회(위원장 지원, 청주불교방송사장)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기간인 10월 1~23일까지 청주한국공예관엔서 '조선 웅천 찻사발 특별전'을 개최한다.

'땅으로 빚은 하늘'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는 국내 차인 6명이 소장하고 있는 웅천 찻사발 52점이 선보인다. 흔히 '이도다완'으로 불리는 웅천찻사발은 웅천지역에서 생산돼 일본으로 건너가 국보로 여겨질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원 스님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웅천찻사발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한편 관련 도록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관 '수레질 찻그릇'展
10월 5~12일 예송갤러리



도예가 박수관씨의 '수레질 찻그릇전'이 10월 5~12일 대구 예송갤러리에서 열린다. 유약을 입히지 않고 불꽃과 불티(나뭇재)가 자유롭게 기물에 닿도록 구워지는 박씨 특유의 기법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불꽃이 흐르는 속도와 온도, 크기에 따라 도자기 표면에 다양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특징이다. 문예비평가 조명제씨는 "박씨의 작품은 토기 제작기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한 도전의 한 산물이다"고 평했다. (053)426-1515

조선시대 ㉑



다산, 아암혜장 등이 19세기 차문화 꽃피워
'십노도상계도권'서 고려, 조선 행다법 표현

18세기 말의 우리 차 중흥의 주역들이 속속 등장하는 시기다. 천주교의 박해운동은 어쩌면 우리 차의 발전에 원인제공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이 유배되어 강진으로 가지 않았다면 찬란했던 19세기 초의 우리 차문화는 양상을 달리했을 수도 있다. 다산이 강진으로 유배되어 아암혜장을 만나고 그로 인해 초의를 가르치게 되고, 이어서 유산 · 추사 · 해거도인들과 초의가 연을 가지게 된 것이다.

15세기 말에 그렸던 '십노도상계도권'이 이때 단원에 의해 이모본(移模本)으로 남아 있어 고려 말과 조선의 선비차 생활과 다모들의 행다 예법이나 동작을 그림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차가 무역의 중요 품목으로 전대(前代) 같은 깊은 정신적 면을 소홀해지는 듯한 감을 준다. 일본도 차가 상품의 의미가 강해져서 행사 위주로 기울어진다.

① 김정희(1786~1856): 호를 완당, 추사, 노과 등 으로 썼다. 중국을 다니며 문인들의 다풍을 섭렵했고 초의와 만나면서 우리 차도 즐겼다.

② 초의의순(1786~1866): 대둔사 13대 대종사. 다산을 인연으로 중앙무대와 교류하면서 우리 차를 중흥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다신전〉 〈동다송〉을 썼고 다성(茶聖)으로 추앙받고 있다.

③ 이규경(1788~?): 이덕무의 손자로 〈도다변증설(茶 茶辯證說)〉을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실었다.

④ 김명희(1788~?): 추사의 동생으로 서예가다. 차를 즐겼다.

⑤ 1499년 그려진 '십노도상첩(十老圖像帖)'을 단원이 이모본으로 만든 그림이다. 그 속에 문인들의 차생활과 다모(茶母)가 등장한다.

⑥ 홍원주(1791~?): 어머니 영수합 서씨의 영향으로 일가가 모두 차인이었다.

⑦ 철선혜집(1791~1858): 교와 선에 밝고 문집에 〈우증초의화상〉 등 다시가 전한다.

⑧ 홍현주(1793~1865): 정조의 사위로 해거도인(海居道人)이라 호를 했다. 초의에게 청해 〈동다송〉을 짓게 하고 자신도 다시 여러 편을 남겼다.

⑨ 숙선옹주(1793~1836): 정조와 수빈 박씨 사이에서 태어나 해거에게 하가한 차인으로 그때 다모를 데리고 왔다. 다시를 남겼다.

⑩ 조소관은 사신을 맞는 영접도감으로 인삼차를 잘 안마시니 다른 좋은 차를 쓰겠다고 계(啓)를 올렸다.

⑪ 오건(吳騫)이 쓴 책으로 형남차(荊南茶)와 나개차(羅犮茶) 등 다사를 기록했다.

⑫ 성승조가 쓴 책으로 남쪽지방 사람들의 차 마시는 일에 관해 썼다.

⑬ 오건의 책으로 화차(花茶)에 관해 기록했다.

⑭ 상전추성(1734~1809): 일본의 국학자이며 문인으로 〈청풍쇄언(淸風瑣言)〉을 펴냈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785 천주교 박해 1786 김정희(金正喜) 출생 ① 초의의순(艸衣意恂) 출생 ② 1788 이규경(李圭景) 출생 ③ 김명희(金命喜) 출생 ④ 1790 십노도상계축 이모본 ⑤ 1791 홍원주(洪原周) 출생 ⑥ 다시(茶時) 송사행다례(送使行茶禮) 〈경도잡지(京都雜誌)〉 철선혜집(鐵船惠楫) 출생 ⑦ 1793 홍현주 출생 ⑧ 숙선옹주(淑善翁主) 출생 ⑨ 1799 조소관(趙銷寬)의 계(啓) ⑩	청대 1785 '중국황후' 호가 차 운반(뉴욕) 1787 〈도계객어(桃溪客語)〉 ⑪ 1788 〈위세식략(衛歲識略)〉 ⑫ @ 〈첨양총필(尖陽叢筆)〉 ⑬	강호시대 @ 상전추성(上田秋成) ⑭





자기 앉은 자리에서 자기 주처를 똑바로 보라

구속된 삶 속에서 벗어나려면

문 우리는 가족이나 직장, 학교나 종교 같은 관계 속에서 그 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울고 웃고 속고 속이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스님, 꼭 그와 같은 구속되고 구차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만 하는지요?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스님 말씀이 이러한 구속되어진 틀을 벗어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 예전에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하도 배가 고프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어느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구원을 청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이 어떤 미친놈이 와서 이러느냐!" 고 그러면서 발길로 차고는 문을 탁 잠그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발길에 차여서 그 사람이 나동그라졌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랬을 때 자기를 발길로 찬 사람을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와서 문을 두들기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이 나와서 나를 발길로 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하고요. 그럼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죠. 바로 자기가 원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부부지간으로 살아도 그런 건데 어떻게 해서 구속이 되나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를 태어나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는 얘기죠. 그 장본인이 다 하는 거죠. 그 장본인으로 하여금 내가 형성이 됐으니까 바로 나의 탓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원망할 것도 없고, 왜 내가 발목이 잡혀서 이러나 하는 생각 할 것도 없다 이겁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모든 게 허공과 같은데 말입니다. 이 우주천하가 다, 이 생명체가, 일체 유생 무생이 다 한꺼번에 돌아가는데, 거기에 나도 껴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째서 내가 구속이냐 이거예요. 그건 생각으로서 구속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구속되게 공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몸뚱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볼 때도 몸뚱이로만 보거든요. 색으로만 본다 이 소립니다. 색으로만 보니까 그렇죠.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은 항상 어디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지 그렇게 안 살아요. 뭐 편견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왜 그러냐. 모두가 나 아님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아픔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자리 아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평탄하게 살고 있어요. 항상 얘기하듯이, 물도 나요, 나의 생명이요, 흙도 나의 생명이요, 바람도 나의 생명이요, 공기도 나의 생명이요, 모든 일체 유생 무생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니 어찌 나 아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생각할 때 생각 내는 것도 그 근원지에서 나오는데, 하나의 근원지에서 나오는데 어찌 잘못됐다 잘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당신은 잘 알면서 남한테 속임을 당합니까?' 이러시겠죠. 그건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속임을 자기가 당하는 거지, 나를 속이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왜? 나는 속임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나를 속였지. 속일 거지.' 벌써 앞의 생각에 척 봐서 '속일 거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는 여직까지 공부한 게 헛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속임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다 때림을 받았어도 손은 각각이지만 그 손도 바로 내 손이에요. 내가 나를 때린 거란 말입니다. 딴 사람이 나를 때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픔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한번 때려 준 것이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에 너무 치우치지도 말고, 색에 치우치지도 말고 모든 것을 나로만 생각해라 이겁니다, 각자. 자기 주처를 똑바로 알고 주처에 다 모든 거를, 무거운 짐을, 망상을 다 몰락 놔 버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없이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원인이요, 자기가 화두요, 자기가 근본이기 때문에 그 근본은 둘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알면 그 근본 자체도 없는 거다 이거예요. 왜? 나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선 창조라고 그러지만 부처님 법에는 나툼이라고 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변해 가고 화하고 있고, 육신은 변모돼 가고 있고 그러니 어떤 거를 잡을 게 있나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내세울 게 있나 이겁니다. 일체가 다 공해서 나툼이라 이거죠.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육신도 생리적인 작용의 그림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껍데기거늘 거기다가 의지를 하고 그냥, 거기서 나을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찔찔매고 10년 20년 썩느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치우쳐서 자리를 다투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껍데기들이 많은데, 자기 앉은 자리에서 자기 근본 주처를 똑바로 봐라, 지켜봐라 이겁니다. 좌선한다고 해서 앉아 있기만 해서 좌선이 아닙니다. 서나 앉으나, 자나 깨나, 똥을 누나, 먹으나 입으나 일거일동에 참선이란 말입니다.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진리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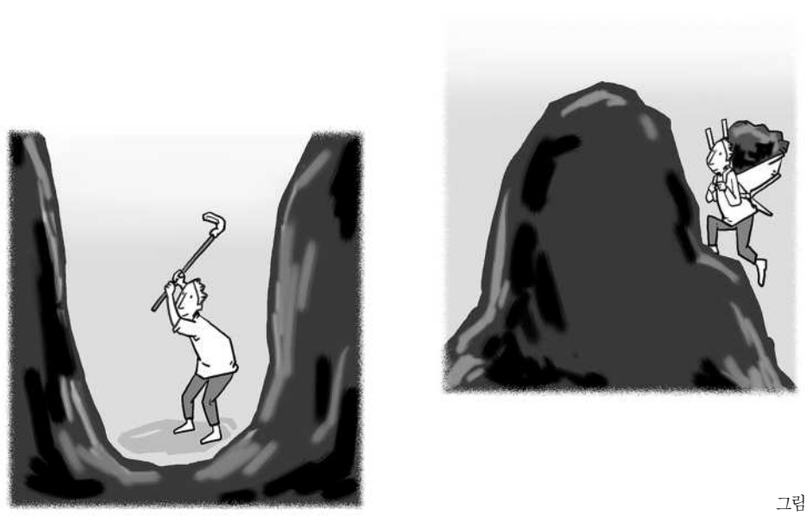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든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다시 놓자! 그리고 물러서지 말자!

그러니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에서도 '무거운 짐을 지고 애 쓰는 자 내게로 오라. 모든 짐을 놔 버리고 편히 쉬어라. 또 편히 쉬게 해 주리라.' 이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몽땅 놔 버려라. 놔 버리면 네가 만들어 놓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허덕이지 않으리라. 네 마음으로 짓고 네 마음으로 받는 것이니 그 마음조차 질 게 없는 것이니라. 바로 나툼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났을 때가 태초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고 태초라는 게 어디 있어요? 삼천 년이고 사천 년이고 오천 년이고 거슬리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오늘이라는 걸, 영원한 오늘이라는 걸 알라 이거예요. '영원한 나의 생명 주처는 항상 이렇게 여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감도 아니고 흘러옴도 아니니라.' 이겁니다. 시발점도 종점도 없이 여여하게 그냥 돌아갈 뿐이죠. 나투고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안다고 내세울 게 뭐 있으며, 말꼬리에 말꼬리가 붙어서 돌아가니 스스로 알고 공부해서 그 도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문 성불하지 않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인간이든 동물이든 우주인이든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허무하고 지겨운 윤회 놀음을 애초에 왜 만들어 놓고 돌리고 돌려 결국은 다시 자신에 귀의하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답 뭐 열 마디 말, 백 마디 말 다 밀쳐 놓고 우리 생활하는 자체가 그대로 진리고 그 진리가 부처님 법이고 우리들의 법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 온 거를 알아야 어디로 가는 것도 알 거 아니오? 죽어서 내가 어디로 갈 거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죽으면 회향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데나 끌려가서, 아무 영혼들이 그냥 끌고 가는 데로 끌려가서 아무 모습으로나 태어날 테니 그거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그러니 이 마음공부 하는 분들은 이다음에 또 다시 태어나면 '이런 걸 하겠다' 하는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마음의 자각을 하는 데는, 자각을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약조입니다, 그게. 그래 생사를 타파하고 모든 것을 타파하고 자유권을 얻어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도 수만 수천이 자기가 될 수 있는, 색색가지로 될 수 있는, 지장으로도 화하고 관세음으로도 화하고 칠성으로도 화하고 산신으로도 화하고 해신으로도 화하고, 들신으로도 화하고 조왕신으로도 화하고 어느 거 아니 되는 거 없이 다 될 줄 알아야, 부처님 하나의 마음이 전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부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자신의 근본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뭘 믿느냐. 자기 자불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조건 믿으면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감사히 생각하고, 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둘이 아니게 생각하고 모두 측은하게 보고 불쌍하게 보고 자기 생명으로 보고 자기 모습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가 해 나갈 줄 알아야 우리가 요다음에 태어날 때도 그렇게 태어나죠. 이 세상에 다시 모르고 태어나지 않고 알게 태어나서 모르는 사람을 건져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고 그런 능력이 생겨서 한생각이면 다 건질 수 있게끔 되죠.

또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고 산다고 하는 것도 보살의 한 등 이차적인 문제죠. 또 삼차 중생으로서 아주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사느냐, 남한테 악한 짓 안 하고 사느냐. 중생으로서의 그냥 삶을 산다는 것 이런 것이 삼차적으로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삼차적으로 사는 거는 좋은데 삼차적으로 살다가 보면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다시 선하게 살아도 악한 것이 거기에 또 끼어들어서 선한 것도 악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다면 우리의 몸과 같이 이렇게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니다가도, 얼른 쉽게 말해서 구제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보기 좋게 그냥 화해서 건져 주고, 그리고 가다가 없어지면 또 고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혹성이고 저 혹성이고 따로 없죠. 그러니 만법을 공법으로서 그냥 이룩하느냐, 그냥 요것조것 따져서 놓느냐. 그러면 이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럼으로써 정말 보살의 행적이란 여러분이 볼 수도 없거니와 몸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서 본다 하더라도 그게 뭘 하는지 그것도 모를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니깐 여러분은 한 찰나에, 24시간 일했다고 그러는데 찰나에 돌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문 제가 이 몸을 벗어 버리고 인간의 몸을 받지 못한다거나 인간의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올라옵니다. 스님, 사후의 세계와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대비를 하고 알아야 하는지요.

답 지금 현재 살아서도 영적 관계라는 것은 살아나가면서 습을 가지고 우리가 고정되게 나가기만 하면 그것은 걸려요. 그냥 거기서 차원이 멈춰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멈춰 버리지 않고 찰나찰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면 그것을 거기에다가, 거기서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생각나고 행하고 말하고 했던 것을 다시 놓을 때는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의 문제라는 건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에 알면 사후에도 그렇게, 즉 말하자면 눈멀고 귀머거리고 그렇지를 않으니까요. 현재에 알면 바로 미래에도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어저께 모른 것이라면 오늘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후 일이라는 것은 오늘을 겸했다는 얘깁니다. 과거 일이 현재로 겸했기 때문에 미래도 그러하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억겁을 거쳐 오면서 억겁을 거쳐 온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억겁이 그렇게 쌓여 있는 게 아니고 많이 거쳐 오면서 축소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콩나무 얘기를 자주 하지만, 콩나무는 콩나무대로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콩나무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 '콩나무로 되기 싫다. 콩나무에서 좀더 화해서 다른 모습으로 돼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콩나무라는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난 겁니다. 콩씨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도 인간에서 벗어난다면, 바로 '자신' 으로서 벗어난다면 중생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나 또는 과거의 업보나 그런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없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지어서 그렇게 자꾸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스럽기 때문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문제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도리를 모른다면 반드시 엊그저께 과거에 나를, 만약에 우리 부모들을 죽였다든가 또는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해 갔다든가 또는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전부 죽는 게 됐다 이랬을 때 그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누적돼서 사후의 일로 벌어져요.

현실에도 너로 인해서 내가 망했다든가 너로 인해서 내 가족의 밥줄이 끊어졌다든가, 누가 내 돈을 떼어먹고 어디 가서 사는데 그 식구가 십 년이 되든 몇 년이 되든 고초를 받고 지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얼크러진 이 문제를, 즉 말하자면 고정되게 내가 증오하고 있거나 그런다면 그것이 인제 사후 일로 벌어집니다. 현재에 내가 또 갚을 수도 있고요. 그놈을 징역을 시키지 않는다면 내가 그냥 물씬 아주 반쯤 죽여 놓고 저 죽고 나 죽는다 이렇게 또 벌어지는 수도 있고요. 그래 그렇게 벌어져서 만약에 물씬 두들겨 주고 맞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거기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고통스럽고 그 사람도 고통스럽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네가 앙갚음했으니까 나도 앙갚음하겠다는 생각으로서 상심을 품게 된다면, 그네대의 가정, 즉 말하자면 자식들이나 거기에 딸린 모든 식구들이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몇 사람이 업보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받고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받고 얼크러지고 설크러지고 이런 것이 사후에 돌아오는 거죠. 현재에도 돌아올 뿐 아니라 사후에도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의 국록을 먹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임금 앞에서 잘못 해 가지고는 밥줄이 끊어졌다는 얘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밥줄이 끊어진 거보다도 양반으로서의, 옛날에는 그런 것을 중시했죠. 무슨 낯으로 조상을 만나 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아주 그 집을 증오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그 아들이 말입니다, 원수를 갚는다고 그러

☞30면으로 계속

내가 직접 실험하고 체험하고 경험해 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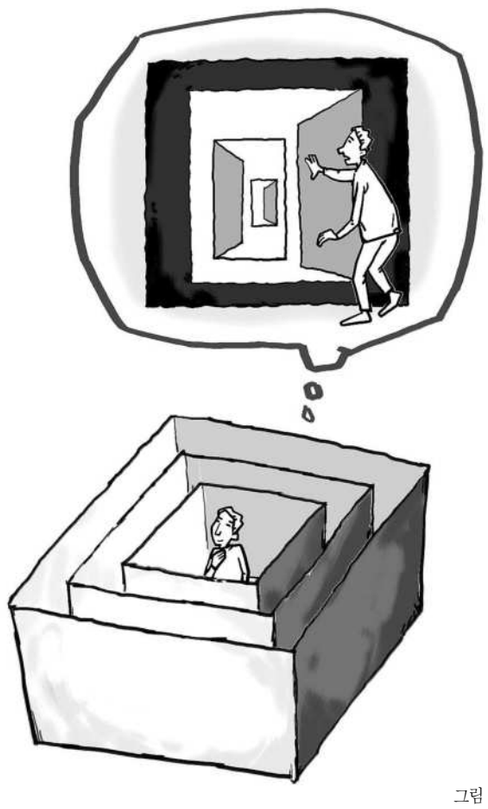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면서, 하도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시지를 않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니깐 그냥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그 집에 들어가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또 그 집에서 원수를 갚는다고 하다가 그만 미수에 그치고 말았는데, 그 뒤에 방에만 계시던 아버지가 마음으로 무척 닦으셨던 모양입니다. 그 후에 머리가 허옇게 다 돼 가지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네가 그렇게 한 까닭에 원수는 원수대로 갚지도 못하고, 그게 갚아서 갚아지는 일이 아니니라. 그렇게 네가 했기 때문에, 요다음에 삼대를 내려가서 손자로 태어나는 내 손자가 그렇게 또 죽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면하겠습니까." 하니까 그걸 풀려면 이제 앞으로 그러한 일은 말고 그 집에 가서 매일같이 아침 문안을 드리면서 전자에 그런 모든 것을 그저 잘못했노라고, 항상 하루 한 번씩 가서 사과를 하되 백 일을 하라고 그러더랍니다. 백 일을 해야 그것이 녹는다고 하더랍니다. 그 사람 마음이 녹아야 그게 업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9대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9대조에서 손자가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죽을 테니까 이 함을 끄르지 말고 9대조 며느리한테 전달해 달라고요. 거기 다 써 있을 테니까 그것을 꼭, 만약에 살인으로 몰려서 죽게 되걸랑 이 함을 그 고을 원한테 갖다가 주되 이 봉한 것을 끄르지 말고 갖다 바쳐라. 그러면 살 길이 생긴다." 했더랍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돌고 도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지금 살아나가는 것도 고정된 관념으로서의 생각도 고정된 행도 고정되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촐나촐나 우리는 사는 거지 고정되게 그냥 뭐, 백 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백 년 산 게 없습니다. 여직껏 걸어다니셨다 할지라도 걸어다닌 그 자취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 살림살이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짓는 것, 그것은 자기를 리드해 가지고 가는 자연 컴퓨터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이죠. 그 잠재해 있던 자체가 바로, 자기 한 것을 일기장에 써 놓듯이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받게 돼 있거든요.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요. 그러니 사후를 우리가 지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숨 쉬게 하는 놈에 대해서

문 스님께서는 보고 듣고 말하고 살아가게 하는 자가 바로 주인공이니 그 놈을 항상 지켜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본다 듣는다 말한다 살아간다 하는 것은 나의 의식적인 작용이 동반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잠을 자거나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순간에도 끊임없이 숨 쉬게 하고 맥박을 뛰게 하는 이놈의 의미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답 우리 지금 한 몸뚱이가 살아나가는 것도 생명과 마음내는 거와 육신의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움죽거리고 살고 있는 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돌아가는 것이 숨 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숨 쉬는 것이 자도 숨을 쉬고 깨서 다닐 때도 숨을 쉬지 않습니까.

몽땅 놔 버려라!
놔버리면 네가 만들어 놓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허덕이지 않으리라!

숨 쉬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이렇게 살면서 자면서도 깨서도 언제나 숨 안 쉬어 본 일이 없는데 그게 참선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리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잠시잠깐 자고 깨는 것뿐이에요. 항상 숨은 쉬고 있습니다. 우주의 그 모든 일체 만물과 더불어 만생이 그냥 호흡을 같이 하면서 돌아갑니다. 잠잔다고 해서 숨 안 쉬고 자는 분 보셨습니까. 그렇게 끊어트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숨 쉼과 마찬가지로 진리가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거든요. 항시도 끊어지지 않는 그 숨 쉬게 하는 그놈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원으로 하여금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쉬지 않고 돌아가니까, 우리 생활이 바로 이렇게 움죽거리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모두가 포함해서 원형을 이룬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거도 원형 속에 있는 거고, 미래도 바로 원형 속에 있는 겁니다. 공 속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과거 미래 현재가 바로 이 공 속에,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생각을 크게 넓게 걸리지 않게 한다면, 모든 것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다시 놓자. 믿고 놓자. 그리고 물러서지 말자. 마음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공한 진리에 모든 탐욕과 창살 없는 감옥과 모든 애착이 몽땅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끄달리지 않게 되자 나는 훨훨 마음의 창살을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우주의 섭리와 인간의 살림살이에 적합하게, 모든 게 공해서 돌아가는 거를 진실로 알게 되고 내 한생각이라면 그냥 '저 사람을 구해 줘야지.' 하는 생각이 문득 납니다. 그것 생각난 것도 거기서 생각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몽땅 들리는 겁니다, 몽땅. 그 힘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내가 아픈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을 했다면 그대로 보이지 않는 약이 그리로 갈 것이고, 또 가난해서 불쌍해서 생각을 해 줬다면 바로 보이지 않는 데서 바로 그 가난을, 그 업보를 면해 주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바로 가난함을 없애죠.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데서 마음으로 하는 무주상 보시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한생각 냈기 때문에 한생각이 거기에 융합이 되고 통틀어 그 힘이 한데 가하게 되자 그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실험을 통해서 지켜보세요. 실험해 보시고 체험하고 지켜보고 또 한번 바퀴에, 차 운전을 배웠는데 만약에 양면에 심봉이 끼어 있지 않았으면 차를 끌고 갈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차 운전을 배웠어도 한번 해 보고, 내가 실천을 해 보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크게 만들고 자꾸 해 봐야, 경험이 돼야 자기가 늠름해지고 그것을 잡아도 떨리지 않지, 그걸 안 해 보면 떨리고 안 해 보면 영 안 해집니다. 겁나서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숙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숨 쉬는 게 바로 그냥 그대로 내가 항상 참선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숨이 끊어진 사이는 없으니까 숨 쉬고 있는 것이 진리요, 길이요, 바로 부처님 법인 것이죠. 이 몸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숨은 쉬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걸 비유한 건데 숨 쉬는 건 하나도 끊어지지 않는데 잠을 자도 그냥 몸만 자고 잠깐 자고 일어나는 거 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그대로 영원히 살아 있는데 몸만 없어졌다가 다시 모습을 갈아 가지고 다시 나올 뿐이지 죽고 사는 것은 없다. 본래 살아났다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본래 죽을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때에 따라서는 생활하는 데서 자기가 차를 타고 오고 가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장사를 하든지 어쩌든지 자기가 한번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 돼 줬으면 좋겠어요. 자기 분야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런다면 상대도 좋고 나도 좋고, 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나쁘게 체험을 하려도 나쁘게 되지 않고, 좋게 체험을 하려도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법이라는 게 그렇게 묘한 것입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고급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5. 10. 4 월 · 화반, 수 · 목반, 금 · 토반(주 · 야간 : 3개월 완성)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 (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 부 산 : 부산 진구 전포동 레그늄오피스텔 604호 (구전지하철철역 8번 출구)
문의 : 051)804-8571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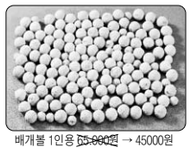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배개볼 1인용 ~~65,000원~~ → 45000원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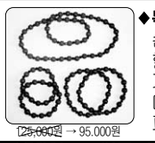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은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125,000원 → 95.000원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쟁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님의 격려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을유년은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신 기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辛, 丑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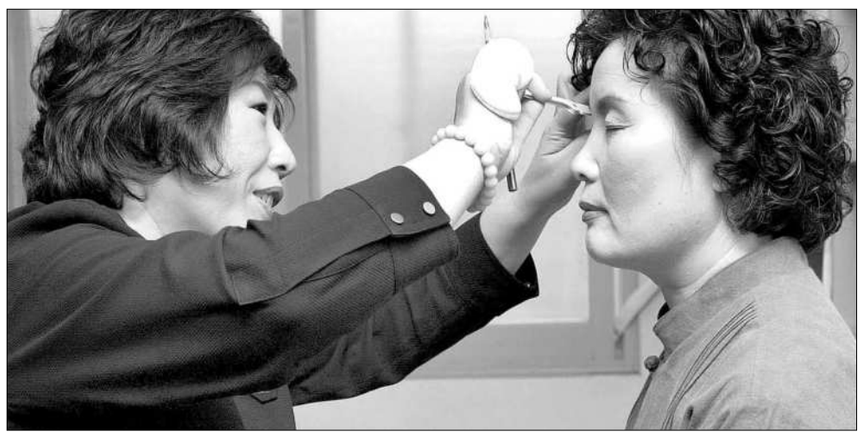
현 대 결 혼 연 구 원

가을철 센스있는 화장법 , 옷차림

가을 색깔나는 이야기

법회에 가는 날이면 진성화 보살(조계사 합창단 재무)은 고민에 빠진다. 평소처럼 화장해도 될지, 향수는 뿌려도 될지, 옷은 어떻게 입을지 등 의문은 끝이 없다.

불자 스타일리스트 김경숙씨에게 절에 갈 때의 기본 옷차림과 화장법을 배워보자.


스타일리스트 김경숙씨(왼쪽)가 진성화 보살에게 절에 갈 때 어울리는 화장을 해 주고 있다.

■ 절에 갈 때의 메이크업과 코디는

절에 갈 때는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상은 가능하면 법복이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따로 챙겨가서 갈아입는다.

피부색 화장에 머리는 단정하게

메이크업



△**파운데이션**-메이크업베이스를 바른 후 피부색과 비슷한 리퀴드파운데이션이나 크림파운데이션을 펴 바른다. △**파우더**-피부색과 비슷한 색을 선택해 얼굴에 전체적으로 곱게 살짝 누른다. △**눈 화장**-의상색상에 맞춰 하되 아이섀도 색상은 파스텔 색상으로 연한 브라운색이나 옅은 보라색으로 선택하면 좋다. △**눈썹**-머리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옅은 회색이나 갈색 연필로 그린 후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섀도로 다시 한번 그려 마무리한다. △**입술**-입술 색과 비슷한 색상의 립 라이너로 윤곽을 그려준 후 살구색이나 옅은 핑크색 립스틱을 바른다. 립 그로스를 덧발라 입술의 촉촉함을 살린다. △**볼**-브라운색+옅은 핑크색으로 볼의 가장자리 부분에 가볍게 펴 바른다.

머리와 의상

△머리는 단정하게 핀으로 고정하거나 묶는다. △짧은 치마, 반바지 차림은 꼭 피한다. △염주, 다포, 손수건 등은 꼭 챙긴다.

피부 관리

■ 가을 피부 관리법

팩 등으로 각질 제거, 탄력 유지

피부 표피세포의 생사 주기는 28일~30일. 피부를 꾸준히 관리하면 희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다. 두터워진 각질층을 그대로 놔두면 피부가 거칠고 탁해진다. 주2회 정도 팩으로 손질하면 탄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세안**-스크럽이 함유된 폼클렌징크림을 사용해 각질 제거. 세포의 신진대사 촉진. △**스킨**-수분 · 보습 성분 △**마사지**-혈액 · 임파 순환을 촉진. 영양물이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 △**습포**-팩을 하기 전 모공을 열어준다. △**팩**(건성 피부) 아몬드팩-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를 부드럽고 윤기 있게 해준다. 생 아몬드 간 것 1큰술, 달걀노른자1개, 레몬즙 조금. 살구씨팩-거친 각질을 제거해 피부를 맑고 윤기가 돌게 만든다. 살구씨 가루 1큰술, 달걀노른자 1개, 꿀 1작은술, 물 조금. △**팩**(여드름&지성 피부) 당근팩-여드름 · 상처를 아물게 한다. 비타민B군, 카로틴 등 함유. 당근 간 것 2큰술, 오트밀가루 1큰술, 미지근한 물 조금. 팩은 20~30분 후에 떼어 낸다. △**기초화장**-스킨로션, 로션, 아스트리젠트 △**아이크림**-눈 주위에 바른다. △**영양크림**-얼굴전체와 목 부분

■ 내 피부색에 어울리는 컬러 찾는 법

나를 돋보이게 하는 컬러는 어떤 것일까. 피부 색상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 피부타입으로 구분한다.

피부 컬러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색조 화장을 하면 나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을 수 있다.

◯ **봄타입, 연노랑 계열로 화사하게**

봄 타입의 피부는 얼굴과 뒷머리 두피색은 노르스름하고 베이지 빛을 띤다. 봄 타입의 사람에게는 싱그러움과 생동감을 잘 살려줘야 한다. 메이크업 할 때 전체적으로 연노랑색을 혼합해 사용하면 좋다. 파운데이션은 밝은 베이지를 선택해 피부색을 화사하게 표현한다.

눈 화장은 옐로그린과 미디엄골드로 귀족적인 느낌을 살린다. 입술은 맑고 투명한 복숭아색이나 산호색으로 발랄하고 산뜻하게 정리한다. 볼은 오렌지계열 핑크색으로 마무리한다.

◯ **여름타입, 푸른색 등으로 청명함 강조**

여름 타입은 흰빛이 나는 피부를 가진다. 여기에 붉은 빛과 푸른 빛이 도는 경우도 여름 타입이다. 희고 푸른 이미지인 여름 타입은 시원한 연출이 중요하다. 흰색과 파스텔 계열의 은은한 색상을 조화시키는 것이 좋다. 파운데이션은 노란기가 없는 로즈계열의 베이지색을 선택한다. 눈은 파스텔톤 하늘색과 보라색으로 청명한 느낌을 강조하고 입술은 로즈핑크나 립글로스로 촉촉함을 살린다. 볼은 연핑크로 전체적인 파스텔 색조를 맞춰준다.

◯ **가을타입, 붉은색 활용 깊은 눈매 연출**

황색 피부에 갈색 빛이 나는 피부를 가졌거나 갈색 피부에 황색 빛이 나는 피부는 가을 타입이다.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처럼 가을 타입은 성숙하고 깊은 눈매연출이 포인트이다. 붉은 색 계열을 잘 활용해 화려한 이미지를 살린다.

파운데이션은 노란색 기운이 많이 도는 아이보리색이나 베이지색으로 골라 피부를 정돈한다. 눈은 베이지 브라운 카키색 살구색 벽돌색 다크브라운 등 전형적인 가을 색이 어울린다. 입술은 주홍색으로 살짝 덧발라 전체적인 조화를 맞춘다. 볼은 브라운색과 살구색을 혼합해 마무리한다.

◯ **겨울타입, 원색사용 여성스러움 표현**

겨울 타입은 흰 피부에 푸른 빛이 돌거나, 약간 붉은 피부에 푸르스름한 빛이 섞인 피부이다. 눈동자와 머리카락은 여름 타입과 같다.

겨울 타입은 화려하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해 준다. 원색 계열이 잘 어울린다. 파운데이션은 로즈 베이지로 선택해 화사하게 표현한다. 눈은 블루 그레이, 와인, 펄이 들어있는 은색 등 강렬한 색조와 펄로 강조한다. 입술은 와인색이나 블루 레드로 연출한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호흡기질환 소화계와 관련

날음식 섭취, 습하고 냉한 곳 생활 등 원인

단전호흡, 명상, 요가로 몸 긴장 풀면 도움

관절염에 좋은 음식으로는 쌀밥 곡류 콩류 생선 닭고기 망고 바나나 배 생강 마늘 싱싱한 야채 저지방 요구르트 그리고 탈지유로 만든 희고 연한 치즈들을 들 수 있다.

티베트의학은 관절염에도 탁월한 효험을 발휘한다. 여러 약초와 광물질을 배합해 만든 관절염제로는 아카시아이십오환 가루다(대붕금시조)오환 그리고 아카시아이십삼환과 같은 것들이 있다. 석류오환과 같은 약은 소화기 계통의 강화제로도 처방한다.

관절염으로 무슨 목숨까지야 잃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방심하였다가는 거동마저 힘든 절름발이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장기적으로는 약을 거르는 일 없이 꾸준히 복용해야 하고 항상 식습관과 생활양식을 바르게 유지하여야 한다.

호흡기질환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병중의 하나이다. 티베트의학에서는 호흡기질환의 원인을 소화계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유제품(乳製品) 탄수화물 전분식품 적육(赤肉)과 같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날로 많이 섭취하고 습하고 냉한 곳에 오래있게 되면 서서히 소화열을 떨어뜨려 끈적끈적한 점액질과 같은 소화되지 않는 미립자들이 과다하게 발달하게 된다. 그러면 그 미립자들이 서서히 호흡계를 방해하여 호흡장애를 유발시킨다. 공기오염 흡연 그리고 운동부족도 호흡기질환의 또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

호흡기질환은 티베트의학에서 과로성 호흡장애 기관지염 호식(呼息:날숨)장애 숨가쁨증 그리고 흡식(吸息:들숨)장애 다섯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이들 호흡기질환에 공통적인 일반증상으로는 숨이 차고 가슴과 갈비뼈에 통증이 오며 위가 부풀어 오르고 아주 심한 경우 가슴이 잠잠해져 버린다.

과로성호흡장애의 특이증상은 신체적으로 조금만 과로하거나 과음 과식을 하여도 나타난다. 기관지염은 가슴에서 점액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기관지가 점액으로 막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목구멍에 부하가 걸려 목소리가 변하게 된다. 어깨뼈에 심한 경직과 동통이 오고 드러누워 있으면 몸이 몹시 불편하다.

호식장애는 숨쉬기가 어렵고 특히 숨을 내쉬기가 곤란하다. 입도 바싹 마르고 목소리가 변해 속삭이는 듯이 들린다. 숨가쁨증은 목이 꽉 막혀 목소리가 안나오고 씨근거리는 소리를 내며 목구멍이 마르고 담을 뱉어내기가 고역이다. 항상 가슴에 울혈이 맺혀 그것을 한 번 속 시원히 풀어버렸으면 원이 없겠다는 느낌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흡식장애는 상행룽의 균형이 깨져 발생한다. 점액이 룽(氣)의 경로를 막아 룽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숨을 내쉬기보다 들이마시기가 더 힘들다. 폐에 항상 공기가 부족하여 그것 때문에 기진맥진 지쳐버리게 된다.

호흡기질환의 치료 역시 식습관과 생활방식이 중요하다. 우선 짠 음식을 피해야 한다. 볶은 땅콩 포테이토칩 염장훈제육 생선튀김 고추 가공식품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냉장고에서 막 꺼낸 빙과음료 등을 가급적 멀리하여야 한다. 단전호흡과 같은 가벼운 명상이나 몸을 풀어주는 요가가 호흡기질환에 좋다.

호흡기질환에는 몸의 긴장이 잘 풀리도록 소화흡수를 증진시켜 룽(氣) 에너지의 균형을 되살리는 약물을 처방한다.

또 폐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래를 객출시키는 약도 쓴다. 호흡기질환의 치료약은 주로 환제(알약)가 많으며 흔히 쓰이는 약으로는 포도칠환 정향육환 용담십오환 갈매나무십구환 그리고 우무삼십오환 등이 있다.

피부질환도 티베트의학에 잘 듣고 우리 주변에 흔한 병이다. 피부질환의 원인은 비위생적인 생활방식과 당류 감귤류 주류 그리고 사제약(私製藥)의 과잉섭취나 남용에 있다. 그렇게 되면 미생물들의 증식이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 몸안에 불순 혈청이 많이 생기게 되어 피부병을 초래하는 것이다.

티베트의학에서는 아홉 가지의 피부질환을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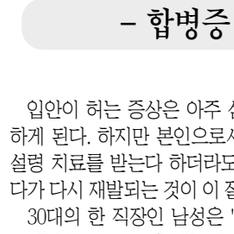
다음 회에는 피부질환과 당뇨병을 중심으로 티베트의학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PR

당뇨, 한방으로 잡는다

– 합병증 예방 치료에 효과적 – 초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호전



혈당을 효과적으로 잡아주면서 합병증을 예방, 치료해주는 당뇨 한방치료제가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발병한지 3년이내의 초기 당뇨병은 치료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로 인한 각종 합병증에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래한의원(원장 최선미 (02)512-2075)은 당뇨에 따른 각종 합병증을 예방, 치료해주는 당뇨 한방치료제 제당탕과 제당환(除糖丸)을 환자들에게 투여한 결과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미 원장은 "제당환을 3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 9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에게서 혈당 정상화와 함께 피곤감, 시력저하, 혈압상승, 성욕감퇴, 손발 저림 등의 합병증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며 "특히 발병한지 3년이내의 환자들에게서는 더 이상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호전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제당환'을 3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 가운데 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95%(83명)가 1개월 이내에 혈당이 현저하게 떨어져 정상혈당을 유지하고, 손발저림, 혈액순환장애, 피곤감, 시력저하 등의 합병증이 사라지거나 감소하는 치료효과를 보였다. 특히 이중에서 발병한지 3년미만의 초기 환자 20명은 혈당이 정상화되고 합병증세가 사라지는 등 더이상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상태가 좋아졌다.

최원장은 "당뇨 환자 대부분이 해당근, 백강잠, 영지 등의 20여가지 한약재로 만든 한약인 제당환을 복용한지 3일뒤부터 혈당이 잡히기 시작, 늦어도 15일 이내에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져 정상혈당을 찾아 일상 생활에 거의 불편을 느끼지 않을 만큼 호전됐다"며 "특히 초기, 중기 환자들은 일주일만에 정상 혈당을 되찾는 등 증상의 회복속도가 무척 빨랐다"고 설명했다.

최원장은 "합병증 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보여 10년 이상된 당뇨환자 역시 한달 이내에 혈당이 정상화되고 합병증 증상이 사라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방에서는 인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분 성분인 진액을 보충해주고 탁해진 피를 맑게 하며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당뇨를 치료한다.

최원장은 "한방 당뇨치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별다른 부작용 없이 혈당을 안정시켜주면서 증세를 없애주고, 궁극적으로는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인체 스스로 인슐린 분비를 하도록 도와 준다는 점"이라며 "발견 즉시 또는 3년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다"고 설명했다.

www.storydang.com

입안이 자주 허는 증상, 청열탕과 침으로 다스린다

– 합병증 예방 치료에 효과적 – 초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호전

입안이 허는 증상은 아주 심하지만 않으면 병원에 가기를 주저하게 된다.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무척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설령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을 당시에만 조금 좋아지다가 다시 재발되는 것이 이 질환의 특징이기도 하다.

30대의 한 직장인 남성은 "늘 입안이 헐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특히 야근이 있을 때는 훨씬 더 심해진다"며 "입 안에 작고 둥근 상처가 생기며 그 자리가 둥글게 곪는 증세를 자주 겪어왔다"고 호소한다.

이 증세는 조금만 피곤하거나 몸이 좋지 않으면 잇몸과 뺨 안쪽 등에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할 때마다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을 주어 이만 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구내염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한방 치료법이 나왔다고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 재발성인 구내염이나 설염 등의 질환을 체질과 증상에 따라 한방으로 치료해 수일이내의 빠른 치유와 만족할만한 재발방지효과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진선미한의원(02-2273-8694)의 신기돈 원장은 "스트레스 및 기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반복성 구내염 환자를 대상으로 해, 한약으로 만든 청열탕을 복용케 한 결과 증상의 빠른 회복과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였다"며 "한방에서는 구내염이 심장에 열이 있거나 방광의 열이 소장을 뜨겁게 달구어 그 열로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보는 바, 스트레스 및 기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이러한 염증을 없애주고 오장의 뭉쳐있는 기운을 고르게 하며 편안하게 만들어 재발을 방지하는 작용이 뛰어나다"고 밝혔다.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청열탕에 주로 쓰인 약재는 생지황, 택사, 적복령, 신이, 금은화, 홍화, 황연 등 20여 가지 이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청열탕은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가감해 사용하는데, 헤르페스성 구내염 및 아프타성 구내염 등에 있어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원장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괴롭혀오고 있는 이 구내염은 뜨거운 음식이나 구강위생불량, 질병이나 과로로 인한 체력저하, 면역결핍, 영양불균형 또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 과량복용으로 인한 것이 많다"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뭉쳐진 오장의 기운을 고르게 하는 한약재로 만들어 구내염의 신속한 치료와 재발을 막아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월 11일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지골사리를 한국에 모셔옵니다.

중국 법문사 현지에서도 친견이 불가능한

부처님 진신지골사리 친견.

그 장엄한 나툼이 우리곁에 펼쳐집니다!!

불기2549년(2005년) 11월 대한민국은 2,000만 불자와 더불어
온 국민이 부처님의 빛을 따라 광명해탈의 정토가 됩니다.

불지사리의 나툼

1987년 사월 초파일!
진신보탑을 철거하고 지하궁 유물을 발굴하던 발굴팀은 사월 초파일
역사적인 불지사리를 발굴하기에 이르른다.
至高至上의 聖體 佛指舍利는 이렇게 다시 세상을 빛내기 위해 나투신다.

- '법원주림(法苑珠林)'에 보면 그 8만4천 사리탑 가운데 중국에 19탑이 있으며 그 중 하나인 치저우(岐州)의 법문사 탑 아래 부처님의 손가락뼈인 불지사리가 묻혀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 서기704년(장안4년) 측천무후가 현수국사 법장을 법문사에 보낼 때 해동신라국 시랑겸 한림학사 승무랑 정수병부시랑 최치원을 동행시켜 탑기첨례(탑의 지궁을 열고 불지사리 참배)를 했다는 7일간의 행도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 당송(唐宋) 이래 강택민(江澤民)에 이르기 까지 황제는 이 불지사리 봉양이 관례가 되어 내려 왔고 민간에서는 이에 빌면 소원성취 한다 하여 기적의 신령스러운 성보가 되었습니다.

中國의 皇帝라 할지라도 용이하지 않았던 佛指舍利 親見

2005년 대한민국은 2,000만 불자와 더불어 온 국민이 부처님의 빛을 따라
광명 해탈의 정토가 됩니다.

지하궁 유물


• 류금대좌보살


• 홍안문은향남


• 우금마갈문 죄유 삼족가은염대


• 감조석수정곽자



당나라 황실 사찰 법문사
부처님 진신지골사리 친견 및 지하궁 유물 한국 특별전

기간/장소
서울 _ 불기2549년(2005년) 11월 11일(음,10월10일)(금) ~ 12월 3일(음,11월 2일)(토) 23일간 / 올림픽 제2경기장
부산 _ 불기2549년(2005년) 12월 08일(음,11월 7일)(목) ~ 12월 20일(음,11월19일)(화) 13일간 / 부산 BEXCO 제1 전시장

주 최
법보신문, 경향신문, (사)부산컨벤션뷰로, PSB부산방송, 부산일보
중국불교협회,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중국 국가문물국

주 관
불지사리 봉행위원회, (주)티엔씨엔터테인먼트

후 원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방송, 불교TV

행사내용
친견법회 / 법문사 지하궁 유물전시 / 부대행사 (영산재, 법무, 범패 등)

문의처 : 봉행위원회 TEL.02)730-7273 FAX.02)730-7275 http://www.buljisari.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2 종로우정에쉐르빌딩 3층